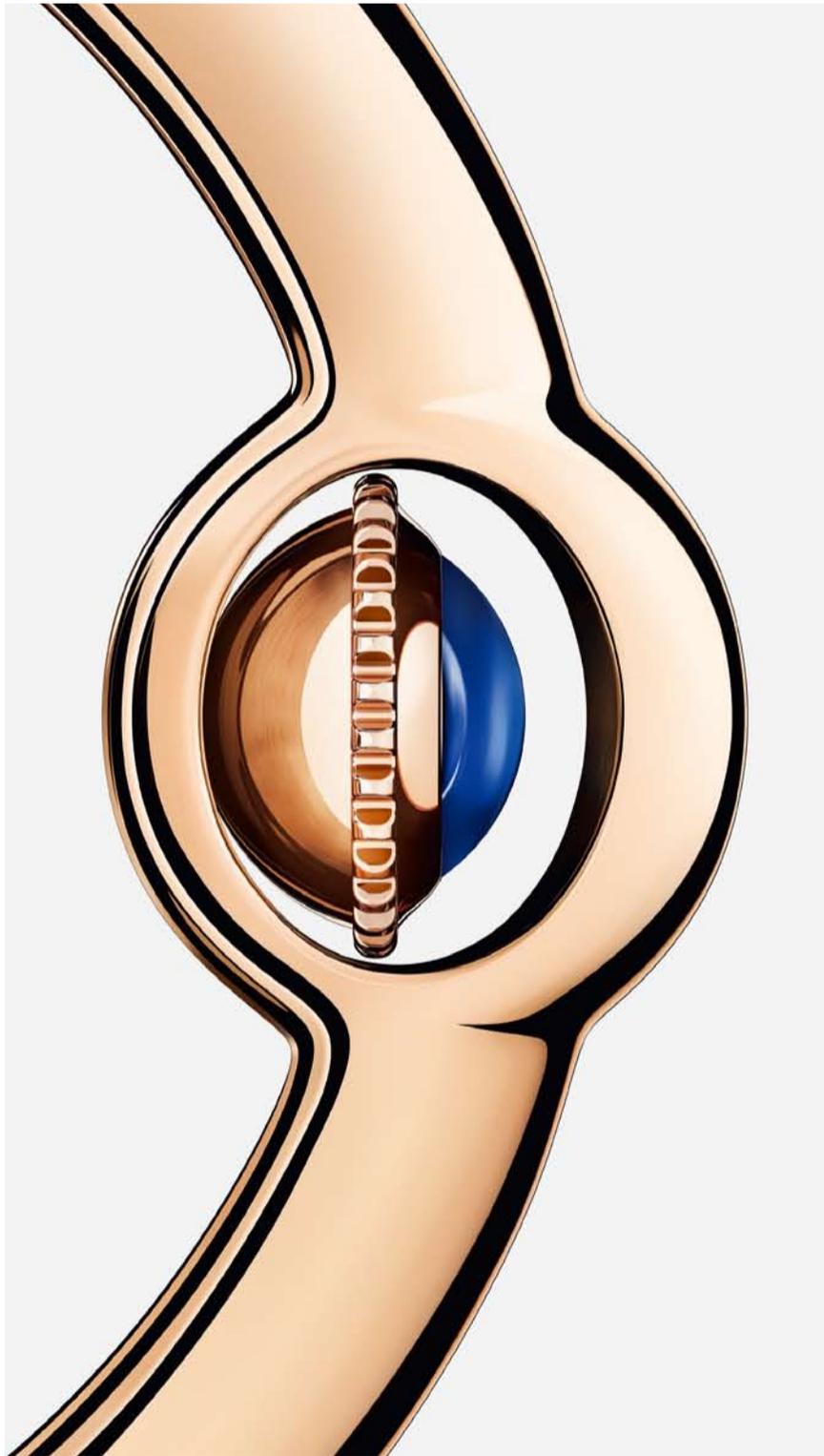


Style 조선일보

JANUARY 2023
vol.247



BALLON BLEU
DE
Cartier



Yayoi Kusama

Creating infi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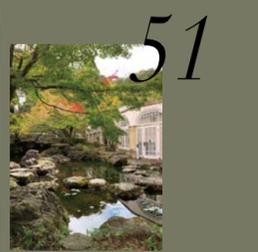
LOUIS VUITTON



ART + CULTURE



발롱 블루 드 까르띠에 워치는 메종의 독특한 비전과 순수한 라인, 정밀한 비늘, 고귀한 다이얼, 그리고 정교한 형태 등 네 가지 창의적 테마를 대변한다. 조각상을 연상시키는 곡선의 볼륨감과 볼록한 양면을 강조한 케이스는 무중력 상태를 연상 시키듯 가볍고 친숙한 착용감을 자랑한다. 표지 사진 속 모델은 케이스 지름 33mm로 다이아몬드와 카보숑 컷 사파이어를 매치한 발롱 블루 드 까르띠에, 문의 1566-7277



GLOBAL VOYAGERS

세상을 여행하는 것만큼 특별한 경험은 없지만, 특별한 경험은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준다. 이번 247호에는 177개국을 여행한 177명의 여행자를 소개한다. 여행자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문화와 예술을 소개하고, 그들의 삶을 소개한다. 또한, 그들의 여행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문화와 예술을 소개하고, 그들의 삶을 소개한다.

08



- 11 TIME TO SHINE 손목 위에서 훌륭한 액세서리가 되어줄 브레이슬릿 워치.
- 12 마항(美港)의 도시가 품은 새로운 랜드마크의 탄생 마항(美港)의 도시로 꼽히는 블록버스터급 호주 시드니 발 미술관 프로젝트.
- 16 SHE IS... 그녀가 자아를 시간과 앞으로 갈게 될 그 모든 순간.
- 24 THE GREAT HARMONY '예술 X 사설 프로젝트' 전시.
- 26 BE GENTLE 남자의 품격을 높여줄 오메가 드 빌 프레스티지 컬렉션.
- 28 GREAT MOMENTS 오메가 CEO와 다나엘 크레이그와의 인터뷰.
- 29 BE MY ONLY ONE 특별한 존재감의 솔리테어 다이아몬드 링.
- 30 LITTLE GIANT 시간을 초월하는 아름다움, 사넬 J12.
- 32 TIMELESS ELEGANCE 섬세한 세공과 대담한 디자인이 멋진 하모니를 이루는 포엠티토의 주얼리, 그 아름다움 파스들을 소개한다.
- 34 BETTER THAN CLASSIC 시크해진 패션 하우스들의 시그니처백.
- 35 시간에 대한 독특한 해석 에르메스 워치 사업부를 이끌고 있는 CEO 로랑 도르테(Laurent Dordet)에게 단진 몇 가지 질문.
- 36 DYNAMIC ELEGANCE 한국을 찾은 다미아니 CEO 제롬 파비에(Jérôme Favier)를 만났다.
- 37 SAVE YOUR SKIN 뷰티 다미아니의 새로운 라인업.
- 38 NEW FOR YOU 더 탄력 있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한 실크의 스키퍼머.

SPECIAL - ART + CULTURE

- 42 YET TO DISCOVER 2022년은 177년 전 세상을 떠난 백남준의 탄생 90주년을 기념하는 해. 작업만큼이나 흥미로웠던 인간 백남준을 오늘날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 47 이우환(李禹煥) 이우환은 이제 지구촌 곳곳에서 이름만으로도 존재감을 뽐내며 글로벌 작가다.
- 48 폐어와 축제 사이에서 꿈틀거리는 도쿄의 아트 잠재력이 큰 아시아 아트 시장에서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듯하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변화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일본 도구를 살펴 들어갔다.
- 50 MAGICAL ENCOUNTERS 일본 도쿄 시내를 창조적으로 수놓은 쿠사마 야요이(Yayoi Kusama) 프로젝트 한 장을 다녀왔다.
- 51 민예(民藝)의 원류를 찾아서 '교토다운' 역사와 일본 현대 디자인의 토대인 민예에 얽힌 스토리텔링을 지닌 문화 예술 유산을 소개한다.
- 54 우리가 '여행의 공간'에 기대하는 것들 에이스 호텔(Ace Hotel)의 에이스 교토와 올레 문을 연 에이스 시드니를 방문했다.
- 56 심문섭, 時光之景(시간의 풍경) 심문섭(b. 1943)이 갤러리 페르랑과 함께한 첫 개인전 <時光之景(시간의 풍경)>.
- 57 평화로운 전사 키키 스미스의 자유낙하가 닿는 지점 키키 스미스의 지난 40여 년 세월을 걸친 여정을 돌아보는 대규모 전시 <키키 스미스 - 자유낙하>가 국내 최초로 서울시립미술관(사소문) 본관에서 열리고 있다.
- 58 EXHIBITION IN FOCUS 제아란(b. 1960)과 남화연(b. 1979) 작가는 세상의 인기에는 별 관심 없는 듯 묵묵히 걸어오며 미술사에 새로운 길을 트고 있다.

DAMIANI

HANDMADE IN ITALY SINCE 1924



Belle Époque Reel collection

Style 조선일보

Issue.247 January 2023

TASTE the Italian EXCELLENCE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정희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정민 sjm@chosun.com
에디터 | 윤자경 yjk@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상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i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관선비 분혜, 재판 리은 인세 | 타라티미에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메리온 비즈스퀘어 110호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허사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하십시오. stylechosun.com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시,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DAMIANI.COM



HAPPY RABBIT YEAR!

매년 새해를 기념하며 특별한 컬렉션을 출시하는 피아제. 올해는 토끼의 해를 맞아 삼이(三子) 시리즈의 미자(美子) 주인공이자 화랑과 장수를 상징하는 동물인 토끼로 장식한 시계를 선보였다. 오랫동안 피아제와 협업해온 에나멜링 장인, 아나타 포르세의 완벽한 예술성이 돋보이는 38피스 라미네이트 에디션 일드플러노는 두 마리의 토끼 디테일로 완성했다. 약 0.71캐럿의 78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38mm의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를 갖추었으며, 울트라-스킨 핸드 와이징 430P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문의 1668-1874



LOVE GLOVES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는 요즘, 손끝까지 따뜻하고 포근하게 해줄 아이템에 주목하자. (우부터) 장갑 위에 바게트 백 디자인의 디테일을 다한 100% 울 소재 바게트 클럽 80만원대 **팬디**. 문의 02-514-0652. 테디 소재와 병아리 장갑 모양의 조합이 귀여움을 자아내는 울브라토 테디 장갑 가격 미정 **막스마라**. 문의 02-511-3935. 스타드로 장식한 스트랩을 다양한 방법으로 연출 가능한, 부드러운 글레이즈드 펠스킨 소재의 클럽 2백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포도그래퍼 **박재용 에디터** **윤자경 아사스트트 신장미**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아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BAG OF DREAM

새해를 맞아 나 자신 또는 소중한 이를 위한 선물로 신상 백을 영두에 두고 있다면 클래식하면서도 아이코닉한 디올 북 토트백을 추천한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마리아 그라치아 치우리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감각이 담긴 오리지널 스타일의 백으로 매해 다른 디자인으로 선보여 우리를 설레게 한다. 특히 이번 미디엄 백은 크리스찬 디올이 가장 좋아했던 삼별이자 디올 하우스의 에센셜 코드인 별을 문양적으로 담아낸 아티스트 피에트로 루포의 화이트와 블루 레브 드피니(Rêve d'Irini) 모티브 자수가 특징이다. 앞면의 크리스찬 디올과 파란 레터링으로 아이코닉하면서도 실용적인 디올 북 토트 미디엄 백으로 새해의 문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 문의 02-3480-0104



빛나는 행운

신년께 북을 불러들 행운의 의미를 지닌 링. (우부터 차례대로) **블가리 세로렌티 세두토리** 풍요, 지혜, 불멸과 장수를 상징하는 뱀에게서 영감을 받은 세로렌티 컬렉션 링으로 뱀의 눈이 지닌 힘에 초점을 맞춰 보다 대담하고 매력적인 링으로 완성했다. 로즈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풀 패브 세팅하고 루블라이트로 뱀의 눈을 표현한 링 9백55만원. 문의 02-2056-0170 **반클리프 아펠 베를리 스텝트 클로버** 링 행운을 상징하는 클로버 모티프로 우아하게 장식한 링으로 로즈 골드 밴드에 다이아몬드로 만든 클로버를 매해 포인트를 주었다. 1천만원대. 문의 1877-4128 **부세인 비행 보렘 투헤드** 링 지혜, 용기, 사랑, 보호를 상징하는 뱀을 모티프로 만든 링으로 16캐럿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유아함을 더했다. 1천만원대. 문의 02-6905-3322 **포도그래퍼 박재용 에디터** **상영민**

ROYAL LUXE

영국의 주얼리로 유명한 파페르제. 1842년 창립되어 2세인 피터 칼 파페르제가 1885년 러시아 황실 공식 주얼리로 발탁되면서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다. 그 후 런던의 부티크, 네덜란드의 영국 왕실에 납품했고, 당시 유럽 왕실과 귀족들에게 칭송받는 주얼리 매종으로 자리 잡았다. 이토록 클래식한 높은 주얼리를 만들 수 있었던 건 모회사인 켈팔트 덕분이다. 켈팔트는 최고급 펠라티의 에메랄드와 루비의 주요 공급원으로 꼽히는데, 파페르제 또한 이곳에서 윤리적이고 친환경적인 베스트 원석을 제공한다. 오늘날까지 파페르제의 유구한 역사와 훌륭한 펠라티의 원석, 정밀한 세공력이 이어지고 있다. 문의 02-3442-4706



MODERN HEEL

드레스한룩은 물론 캐주얼한 의상에도 잘 어울리는 루이 비통의 세이크 펌프스를 소개한다. 고풍적 미감을 다한 페이넨트 송아지가죽 소재로 선보이는 강렬하고 현대적인 스타일로 그래픽한 V 형태의 힐 디자인이 독특한 무드를 선사한다. 트루스트 백의 클래식스러움을 연상시키는 오버사이즈 LV 액세서리로 장식한 상단은 독특한 가죽 소재로 이뤄져 포인트를 준다. 블랙과 화이트 컬러, 다양한 굽높이로 만날 수 있어 취향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과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문의 02-3432-1854



NEW YEAR NEW SKIN

데코르테의 베스트셀러, 리포솜 어드밴스드 리페어 세럼이 2023년 토끼띠를 기념해 행력을 기원하는 토끼알라스트가 새겨진 뉴 이어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인다. 0.1미크론의 초미립자 캡슐인 다중층 바이오 리포솜 캡슐이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캡슐 막이 서서히 스며들면서 오랜 시간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50ml 13만8천원. 문의 080-568-3111

FEEL SO GOOD

보습뿐 아니라 훌륭한 향까지 갖춘 고크라티 핸드크림.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바이레도 갈레릭스 에디션 핸드크림 모비에 고스트** 바이레도의 아이코닉한 핸드크림인 모비에 고스트가 이타스틱한 감성을 담은 스페셜한 패키지로 출시했다. 자메이칸 네스베리의 신선한 향에서 사탕수수향으로 묵인 향으로 마무리되는 유니크하면서도 감미로운 향이 특징. 30ml 5만5천원. 문의 02-3479-1688 **로이퍼 퍼플드 핸드크림 피오이엔 화이트 마스크** 강렬한 카시드 향으로 시잔해 치분한 화이트 마스크와 붓꽃 향으로 마무리되는 향이 고급스럽다. 35ml 1만9천원대. 문의 1644-4430 **헤사드 핸드크림 더 뉴 에어** 미국적인 펠과 스타드로, 펠라의 스키아린 향이 오묘하게 결합해 매력적이고 감각적인 향의 핸드크림 50ml 2만1천원. 문의 02-6966-0053 **포도그래퍼 최연진 에디터** **상영민**



미학적 존재감의 시간여행



산정하는 브랜드라는 공통분모를 지닌 팬들이 묘한 연대감으로 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1백 년 전통의 독일 명품 라이카 카메라(Leica) 역시 라이카 카메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팬들이 남다른 브랜드다. 그들 사이에서 공공증을 유발해왔던 라이카 워치가 드디어 한국에 상륙했다. 지난해 2월 일부 라이카 매장에서만 공개한 브랜드 최초의 시계는 'L1', 'L2'라는 모델명을 달고 서울 라이카스토어 청담 플라그스에서 한정 수량으로 선보이고 있다. 수동 와인딩 기계식 무브먼트로 구동하는 라이카 워치는 독일 현지에서 설계부터 제작, 생산까지 모두 이뤄지는데, 디자인은 그동안 수많은 라이카 카메라 제품에서 미학적 존재감을 강화해 삼은 아힘 하이네(Achim Heine) 교수가 담당해 그려진 카메라 감성이 녹아 있다. 일단 앞면을 보면 깔끔하고 세련된 외관에 카메라 렌즈를 떠올리게 하는 통형 유리 미강과 카메라 샤프에서 영감을 받은 레드-닷 푸시 크라운 기능이 눈에 띈다. 작은 초침을 0으로 재설정하는 이 기능은 당기 지 않고 눌러서 작동하는 방식으로 시간 조정을 간편하게 해준다. 또 스퀘어까지 시퍼(사이어 크로스)를 유리로 만들어 투명한 시계 덮개는 초침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아름다움 디자인이 즐거운 눈노릇을 선사한다. 엔지니어링과 디자인의 조화로운 혁신을 거듭해온 브랜드 라이카의 매력이 시계에서도 많은 이들을 사로잡을지 궁금해한다. 가격은 각각 1천5백98만원(L1), 1천5백98만원(L2). https://www.instagram.com/leica_kr



투명하게, 정교하게

1904년 루이 까르띠에가 비행사들이 비행 중에도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해 탄생시킨 산토스 워치. 이 선구적인 손목시계는 기하학적 디자인과 조화로운 곡선형 혼, 시선을 사로잡는 상징적인 스크류와 함께 까르띠에의 아이코닉한 거품났다. 이후 지속적인 발전에 이어 스텔레톤 워치는 정교한 새로운 디자인을 내린 산토스 드 까르띠에, 블랙 DLC 스틸 케이스에 그레이 스텔라 1개를 세팅한 칠카 크라운과 검 모양의 그레이 스틸 핸즈, 시퍼(사이어) 클라스와 케이스 백커지, 산토스 워치를 더 완벽하게 고안했다. 여기에 그레이 레커 장식 로즈메타 스텔레톤 브로치로 표도르는 시아로. 20개의 루비를 포함한 1백38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까르띠에 매뉴팩처 매뉴얼 워딩 메카니컬 무브먼트 9611 MC 칼리버의 정교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1877-4326

부드러운 울과 크세에 혼합한 소재와 충분한 추위감에 특장인 세븐로 니트를 선보이신다 **보태가 베베라**.

자유로운 느낌의 그래픽 로고를 더한 100% 아세타트 소재의 액션 그래픽 마스크 스타일러스 가격 미정 **일렉산더 맥퀸**.

몸통의 패턴과 체온을 조절하는 M.모는 패턴이 돋보이는 가죽 소재의 등용담 M.모는 4810 BCC 장갑을 가진 4221년 **몽블랑**.

그린 카프 스칸과 실버 톤 메탈 버클이 캐주얼한 느낌을 선사하는 클래식 레이스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소피드**.

캐주얼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어울리는 **레드 코트**.

화이트 세라믹과 레드 골드 소재 케이스에 귀여운 스마일 디자인이 돋보이는 RM 88 인하우스 오토매틱 투르비옹 스마일리 가격 미정 **리차드 밀**.

다채로운 컬러 조합이 돋보이는 **레드 스나이커** 가격 미정 **크리스찬 루부탱**.

클래식 디자인에 고급스러운 레드 컬러를 더했으며, LVG 인공을 받은 18K 골드 스마일 스나이커는 레드 워터마크가 매력적이다 **부폰**.

18K 레드 골드와 레드 세라믹이 매력적인 조합을 이루는 코르도 레드 워터마크는 매력적이다 **부폰**.

풍성한 컬러감과 캐주얼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스퀘어 스니커** 가격 미정 **몽블랑**.

스틸과 가죽 소재의 **레드 코트** 가격 미정 **보태가 베베라**.

for him Selection

리드미컬하게 시작하고 싶은 2023년의 첫 달. 선명하고 생생한 컬러를 품은 이달의 아이템을 눈여겨볼 것.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kim say yun**

2,246캐럿 다이아몬드와 알티콜러 레카를 세팅한 컬러 디얼 네크리스 가격 미정 **디올 파인 주얼리**.

강력한 오펜저 컬러가 돋보이는 라-유를 장갑 8220원 **보태가 베베라**.

낙엽 수납공간과 테디 플리스 소재가 특징인 트트랙 1백만원 **몽블랑**.

디올 파인 주얼리 02-3480-0104 보태가 베베라 02-3438-7882 일렉산더 맥퀸 02-6905-3770 몽블랑 1877-5408 리차드 밀 02-512-1311 노비스 080-860-1301 프리다 02-6905-3780 크리스찬 루부탱 02-6905-379 루이 비통 02-3432-1854 몽블랑 0030 8321 0794 부세론 02-6905-3322 디올 멘 02-3480-0104 로로피아나 02-546-0615 쇼퍼드 02-6905-3390

Time to Shine

손목 위에서 훌륭한 액세서리가 되어줄 브레이슬릿 위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칼리 세르펜티 투보가스** 원형, 자체 발광과 장 수를 상징하는 방패 모양을 받은 브랜디 대표 캐릭터의 워터마크와 별의 특성을 절묘하게 재해석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스틸과 스몰 스텔 케이스와 손목을 휘감는 브레이슬릿을 주얼 워터마크의 면모를 강조했다. 배젤에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을 더한다. 1천백30만원, 문의 02-2066-0170

부세론 **노벨 다이아몬드 워치** 메종의 시그니처인 배럴 보행 컬렉션의 워터마크를 특유의 골드 비즈로 장식해 화려하고 여성스러운 무드를 연출한다. 화이트 마다오브펠 다이얼에 12시, 3시, 6시, 9시 방향에 4개의 다이아몬드로 포인트를 주어 은은한 매력을 가미했다. 8백만원, 문의 02-3277-0148

피에르 라몽아트 갈라 워치 지름 32mm의 비대한 라코가 문보이는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가 인상적인 워치로, 배젤에 점차 커지는 라몽아트 다이얼을 인클로져로 감싸고 강장적인 곡선미를 강조했다. 62캐럿 브라운펠트 다이아몬드와 1.64캐럿을 세팅했으며, 비즈 부분에 1개의 0.01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다채롭게 연출했다. 자체 제작 5019 케이스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6천8백만원, 문의 1668-1874

쇼퍼드 다이아몬드 워치 브랜드의 하이 주얼리 워치인 다이아몬드 컬렉션의 워치 중 하나로 우아한 캐주얼하게 다이얼이 오묘한 매력을 자랑한다. 배젤에는 총 4.07캐럿 브라운펠트 컷 다이아몬드 22개를 세팅해 마치 브레이슬릿을 착용한 듯한 화려함을 강조했다. 1억9천892만원, 문의 02-6905-3390

발리프 아메 베를리 워치 생생한 골드 비즈의 아메리칸과 유려하고 여성스러운 감성을 담은 베를리 컬렉션의 워치로 케이스 지름 23mm에 옐로 골드 베젤과 7요세 화이트 마다오브펠 다이얼로 마무리했다. 스위스 귀족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1천1백만원, 문의 1877-4128

카르띠에 랜더드 카르띠에 워치 손목을 두 번 감을 수 있는 브레이슬릿 형태의 퀴브 무브먼트 워치. 브랜드의 아이콘인 워터마크를 상징하는 동물, 팬더의 감성을 담아 브라운펠트 컷 다이아몬드 37개를 세팅한 핑크 골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모던한 감성을 더하는 실버 미팅 다이얼, 검 모양 블루 스틸 핸즈를 강조했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326 에디터 **상정민**



‘시드니 모던(Sydney Modern)’ 프로젝트

미항(美港)의 도시가 품은 새로운 랜드마크의 탄생

현대의 도심에는 성전 대신 미술관을 짓자고 했던가. 세계 어느 도시를 가든 내로라하는 미술관 앞에 지주 펼쳐지는 풍경을 보면 허울 좋은 말은 아니다. 이른 아침부터 몇 겹씩 파리를 튼 기나긴 줄은 ‘미술관 효과를 실감케 한다. 그래서 창조 도시’, ‘문화 예술 허브’ 같은 따나는 키워드를 자랑하는 세계 우수 도시는 저마다 랜드마크가 될 미술관 짓기에 여전히 열중하고, 팬데믹에 아랑곳없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중에서도 미항(美港)의 도시로 꼽히는 호주 시드니발 프로젝트는 단연 블루버스터급이다. 울루물루만의 근사한 풍경을 등에 업은 뉴사우스웨일스 주립미술관(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 NSW 주립미술관의 확장 프로젝트로 현지에서는 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의 탄생 이래 규모나 무게 면에서 ‘역대급’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도 그럴 것이 8년여에 걸친 시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예산과 기부, 무엇보다 수많은 창조적 인재가 그야말로 ‘영혼을 갈아 넣어 완성해낸 미술관 프로젝트다. 그리고 마침내 ‘시드니 모던(Sydney Modern)’이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의 건축을 맡은 SANAA의 ‘스타키텍트’ 듀오가 몸소 ‘신관’을 공개한 지난달 초 오프닝 주간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를 앞둔 시기와 맞물려 도시 전체가 축제 모드에 휩싸인 그 현장을 가봤다.



4월 15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앞, 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



“여기에 오페라만 있는 게 아닌데, 왜 ‘오페라하우스’라고 이름 붙인 건가요?” 아름다운 항구도시 시드니를 상징하는 아이콘과 같은 오페라하우스 건축 투어를 하던 중 누군가 불쑥 이런 질문을 던졌다. 실제로 오페라하우스에서는 클래식과 팝을 가리지 않는 콘서트, 발레 공연, 전시 등 다채로운 유·무형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 사실 ‘건축’ 하나만 가지고도 온종일 ‘뿔을 풀 수 있는’ 다면성을 품고 있는 공간 아닌가. 오늘날 미술관이라는 존재 역시 그러하다. ‘도시의 세기’라 불리는 21세기를 구가하는 대다수의 메트로폴리스는 도시의 자존심을 좌우하는 랜드마크로 현대미술관을 내세운다. 첨단을 달리는 기술력과 미학의 조화를 반영하는 하드웨어(건축물)와 동시대적 시각, 흐름을 담아내는 소프트웨어(현대미술)가 어우러지는 공공의 공간. 미술 전시뿐 아니



라 음악과 영화도 접할 수 있고, 미식과 쇼핑을 즐기거나 정원 산책을 하며 힐링을 꾀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이기도 하다. 시드니에서 만난 SANAA의 건축가 세자미 가즈요(오른쪽)와 류에(왼쪽)는 주류 미술 애호가들만 드나들었던 데 반해, 이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대중이 즐겨 찾는’ 공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적으로는 외관상의 건축미도 중요하지만, 일단 안으로 발을 들여놓은 다음에 맞닥뜨리는 경험 디자인이 뛰어난 미술관에 더 호감이 간다. 화이트 큐브라는 수식어에서 알 수 있듯 대개 네모반듯한 갤러리의 전시 공간에 비해 아무래도 미술관은 공간성이 훨씬 더 풍부하게 느껴지고, 시시때때로 카멜레온처럼 변모할 수 있는 유연함을 발휘하는 무대를 꾸릴 수 있지 않은가. 미술관은 대다수 공공 플랫폼과는 달리 ‘작품이 주인공이 되는 환경에 놓여 있지만, 결국 공간을 배회하는 주체는 관람객이다. 공간, 그리고 예술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공감대를 형성할지는 관람객 각각의 몫이므로 그들의 자유로움과 가능성을 최대한 뒷받침해주기를 바라게 된다. 이는 SANAA가 추구해 온 ‘열린 건축’과도 일맥상통하는 기대였던 것 같다. ‘시드니 모던(Sydney Modern)’ 프로젝트로 공개된 새 미술관의 공간은 확실히 ‘열려 있다’는 인상을 선사했기 때문이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의 등장 이래 ‘역대급’ 프로젝트, 그 베일을 벗다
시드니 중심가의 도메인 지구, 하이드파크와 세인트 메리

대상당 근처에 자리한 뉴사우스웨일스(NSW) 주립미술관. 1백50년 역사를 반영하듯 창공을 향해 치솟은 커다란 나무들에 둘러싸인 채 고색장연한 황토빛 건물로 무게감 있는 위용을 뽐낸다. 18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력담이 근현대미술을 아우르는 소장품 목록도 출중하기에 전 세계에서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명소다. 그렇지만 이 문화적 자산이 ‘modern’을 겸비한 랜드마크로 거듭나기를 갈망했던 시드니 시민들의 숙원 사업이 바로 ‘시드니 모던’ 프로젝트였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이래 ‘역대급’ 프로젝트라는 수사를 동원한 만큼 전 세계적인 공모를 실시했고, 세자미 가즈요와 니시자와 류에라는 걸출한 ‘스타키텍트’ 듀오가 이끄는 일본 건축 스튜디오 SANAA가 채택됐다. 2010년에 건축계 노벨상으로 통하는 프리츠커상을 받은 SANAA는 뉴뮤지엄(미국 뉴욕), 21세기 미술관(일본 가나자와) 등 ‘뮤지엄 건축’에서도 꾸준히 두각을 드러내는 터라 기대를 한 몸에 받아왔다. 3억4천4백만 호주달러가 투입됐다는 시드니 모던 프로젝트가 시동을 건 지 8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초, 드디어 NSW 주립미술관 신관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 건축에는 파사드가 없습니다”라는 니시자와 류에의 설명처럼 본관 옆에 자리한 신관은 보행자들이 오가는 길거리에서 보기에 마치 하얗고 투명한 물결처럼 유연한 곡선의 가리막을 드러낸 듯한 단층짜리 건물로 보인다. 물론 햇빛 속에서 은은하게 반짝이는 외관의 자태와 그 앞 마당에서 반갑게 맞아주는 듯한 커다란 조각물들은 충분히 인상적인

1, 2 시드니 모던(Sydney Modern) 프로젝트로 불린 NSW 주립미술관(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의 미술관 확장 프로젝트의 결실로 지난 12월 초 개관한 신관. 글로벌 공모를 통해 세계적인 건축 스튜디오 SANAA가 전체 설계와 디자인을 이끌었다. aerial view of the 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 new SANAA-designed building, 2022. photo © Iwan Baan 3 SANAA의 건축가 세자미 가즈요(오른쪽)와 니시자와 류에(왼쪽). 4 본관 건물에 전시된 작품. 카를라 디켄스(Karla Dickens), 'To see or not to see'(2022), commissioned with funds provided by the Barbara Tribe Bequest 2022. © Karla Dickens, photo © Art Gallery New South Wales, Diana Panuccio 5 NSW 주립미술관 본관의 기획전 (Correspondence) 전시 풍경. Jilish Kallat, 'Public Notice 2'(2007). 6, 8 NSW 주립미술관 본관에서 대규모 전시를 진행 중인 호주 작가 데. 일 보이드(Daniel Boyd)와 전시 모습. 7 1백50년 넘는 역사를 가진 NSW 주립미술관 본관 건물 외관. 9 NSW 주립미술관 본관의 소장품 전시 풍경. 10 NSW 주립미술관 본관과 신관이 나란히 있는 모습. 7,000㎡ 크기의 전시 공간을 갖춘 신관의 원형으로 전시장 규모가 2배 정도 커졌다고 한다. exterior view of the 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 new SANAA-designed building, 2022. photo © Iwan Ba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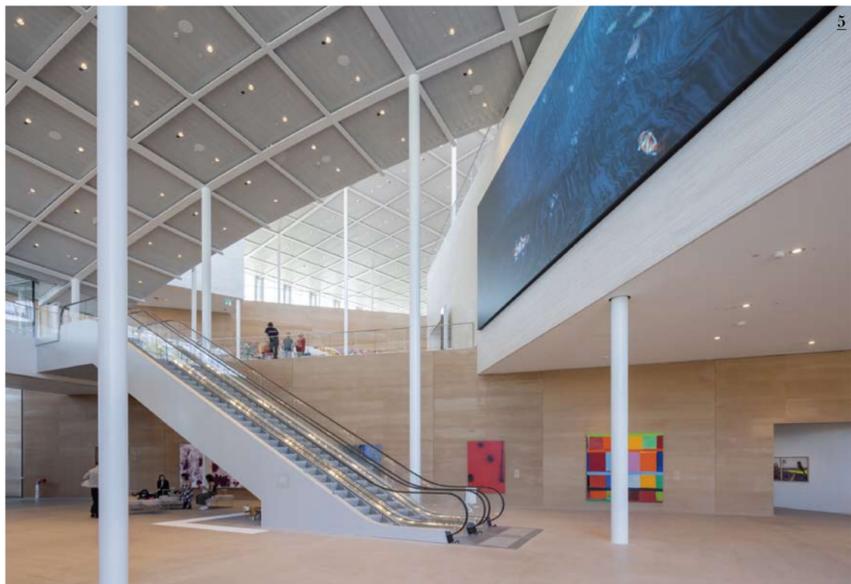




아름다움을 품고 있지만 말이다. 어쩌면 압도적인 높이와 화려한 파사드를 갖춘 압도적인 랜드마크의 건축미를 내심 기대했던 이들에게는 다소 놀랍게 다가왔을지도 모르겠다. 프랜시스 어프리지드(Francis Upritchard)의 커미션 신작인 이 길쭉하고 덩치 큰 인물의 형상을 띤 조각들은 화합과 소통의 손길을 내밀거나 마주 잡고 있는데, 'Here Comes Everybody'(2022)라는 제목을 붙였다. 처음에는 이 조각 작품들이 놓인 앞마당을 빈터로 만들지 않고 본관과 바로 연결하는 구상도 고민했다고 전해지는데, 결이 다른 신·구관이 이렇듯 숨을 터주는 공간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자리한 풍경은 여러 시각의 '중첩'을 완화하고, 전혀 위압적이지 않은 디자인과 구도가 친근함을 느끼게 해준다.

투명하고 심세한, 그리고 따스함어벤 공간

사실 신관의 묘미는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바로 가동한다. 해사하고 시원하게 펼쳐지는 공간을 목도한 이들은 저도 모르게 짧은 탄성을 내지르기도 한다. 1층부터 시작해 아래로 한 층 한 층 내려가면서 지하 4층까지 유기적으로 펼쳐지는 이 미술관의 진짜 '위용'을 짐작할 수 있는 구조의 미학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그것도 양파 겹질 벗겨내듯 각각 다른 매력을 뽐내면서 말이다. 일단 탁 트인 1층의 전시 공간은 SANAA 특유의 건축 언어를 반영하듯 한 없이 가볍고 투명한 분위기를 품고 있는데, 이에 더해 따스함이 배어 있기도 해 위로받는 느낌도 든다. 입구에 가까이 위치한 원형 아트 스푼은 그 자체로 작은 비엔날레의 파빌리온 같은 느낌을 자아내는데, 이를 전체적으로 감싸는 갈색 도는 오렌지빛 반투명 유리에 미술 서적의 실루엣이 비치는 모습이 정겹다. 1층의 메인 전시 공간은 호주 원주민



(aboriginal)과 토레스해협제도 원주민의 예술 작품을 전시한 이리바나 갤러리(Yiribana Gallery). 영국인 죄수와 이민자의 이주로 태동한 호주 근현대사에서 그들이 몰아내고 찬탈한 '원주민' 문제는 뼈 시린 이슈이고, 당연히 아트 신에서도 진지하게 다루어왔다. 굳이 따로 분류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는 차치하고, 글로벌 미술계에서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는 동시대 호주 작가들의 현주소와 그네들의 가슴 아픈 역사를 가능해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이리바나 갤러리는 그 자체로 매력적인 공간이다. 하지만 1층 공간에만 머물 게 아니라 잠깐이라도 '외유'를 하는 동선도 잊지 말아야 한다. 푸른 물결 넘실대는 울루물루만(Woolloomooloo Bay)의 정취를 한눈에 담아볼 수 있는 1층 야외 공간으로 가면 넉넉하게 펼쳐진 테라스에서 쿠사마 야요이의 화려한 꽃 조각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신관에는 1층만이 아니라 층층마다 바깥 풍경을 응시하도록 군데군데 창이 나 있든지 산책을 유도하는 정원을 품고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요소가 여기저기 섬세하게 배치되어 있다. 예컨대 지하 전시장에서 통하는 소담스러운 뜰의 끝에는 대만계 작가 리밍웨이(Lee Mingwei)의 커미션 신작 'Mingwei Spirit House'이 자리하는데, 불상 앞에서 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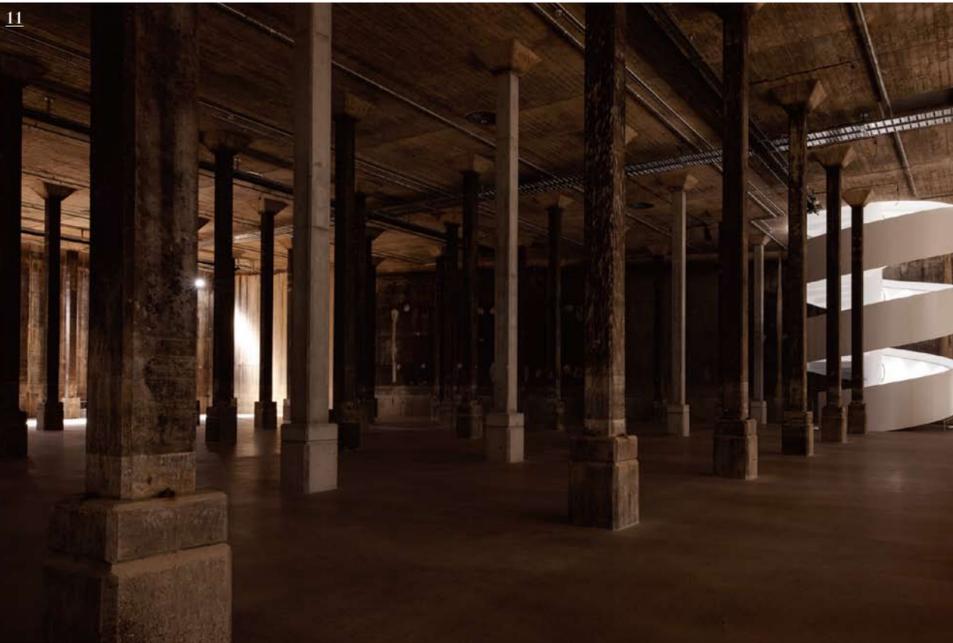


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신관 구성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다른 공간과 확연한 대조미를 이루는 지하 4층 전시장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의 비공개 오일 탱크 시설이 있던 장소라 '탱크(Tank)'라 이름 붙인 이 전시장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젊은 스타 작가 아드리안 비야로하스(Adrián Villar Rojas)가 처음 보자마자 열광적으로 반응했다고 전해지는 '어두운 기운이 흐르는 공간'인데, 이 압축의 매혹을 자신만의 예술 언어로 살린 <The End of Imagination>이라는 전시를 직접 기획해 펼쳐 보이고 있다. '역대급' 프로젝트라는 표현이 '내용적으로 무색하지 않을 만큼 신관의 소장품 컬렉션과 기획전은 '공동인 흔적'이 역력하다. 우고 론디노네, 무라카미 다카시, 솔 르윗 등 세계적으로 명성 자자한 이른바 '스타' 작가들을 비롯해 다양한 지역과 배경의 작가 구성이 눈에 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가 김수자의 참여적인 전시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 서울에서 선보이기도 했던 <마음의 기하학>처럼 관객들이 '진흙 공'을 테이블 위에 굴리면서 함께 이뤄나가는 전시다. 9백여 명에 이르는 다국적 작가의 작업 세계가 곳곳에 펼쳐져 있으니 제대로 감상하려면 일주일도 모자랄 듯하다. 건축과 예술의 조화가 많은 이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시드니의 르네상스를 이끌 것'이라는 수사를 끌어내기도 했지만, 더 눈길을 가는 건 마치 전쟁을 치르듯 비장하게, 때로는 축제에 가는 듯 흥을 내며 이 새로운 랜드마크를 공개할 채비에 여념이 없던 '미술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프리뷰' 기간에도 미술관 담당 너머로 연신 가웃거리면서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낸 시드니 시민들도.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풍경을 보노라니 사회운동가이자 저술가였던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의 말이 떠올랐다. "도시에는 모든 이에게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는 도시가 모든 이의 참여로 창조되었을 때만 발현된다." **글 고영민**



1 투명하고 해사하며 유동적인 분위기를 지닌 NSW 주립미술관 신관의 내부.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면 무라카미 다카시(Takashi Murakami)의 대형 작품이 걸려 있다. © 2019 Takashi Murakami/Kaikai Kiki Co., Ltd. All Rights Reserved., 2022, photo © Iwan Baan 2 신관 1층의 이리바나 갤러리. Lorraine Connelly-Northey, 'Narrong-galang(many bags)'(2022). 3 신관 입구 앞마당에서 인상적인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프랜시스 어프리지드(Francis Upritchard)의 커미션 신작, 'Here Comes Everybody'(2022). 4 신관 1층에서 아외로 나가면 커다란 꽃 모양의 조각이 설치되어 있다. Yayoi Kusama, 'Flowers that Bloom in the Cosmos'(2022), photo © Iwan Baan 5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을 아우르는 전시 공간. 이 공간을 관통하는 한쪽 면에서는 영상 작품(Lisa Reihana, 2022)이 상영된다. © Iwan Baan 6 우고 론디노네, 프랑크 스텔라, 솔 르윗 등 대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지하 2층. © 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 Zan Wimberley 7, 9 신관의 기획전 <Dreamhome: Stories of Art and Shelter> 전시 풍경. 8 역시 신관의 기획전 중 하나인 <Outlaw> 전시 풍경. 10 지하 4층 정도의 위치에 자리한 'Tank' 전시장(지하 3층은 따로 없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젊은 스타 작가 아드리안 비야로하스(Adrián Villar Rojas)의 전시 설치 모습. installation view of Adrián Villar Rojas The End of Imagination 2022 in the Tank at the 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 © Adrián Villar Rojas, photo © Jörg Baumann 11 'Tank' 전시장 모습.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의 비공개 오일 탱크 시설이 있던 장소라 붙인 이름이다. © 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 Jenni Carter 12 지하 전시장으로 향하는 복도 입구. 전반적으로 밝고 투명한 신관의 분위기와 대조를 이룬다. * 2, 3, 7-9, 12 Photo by SY K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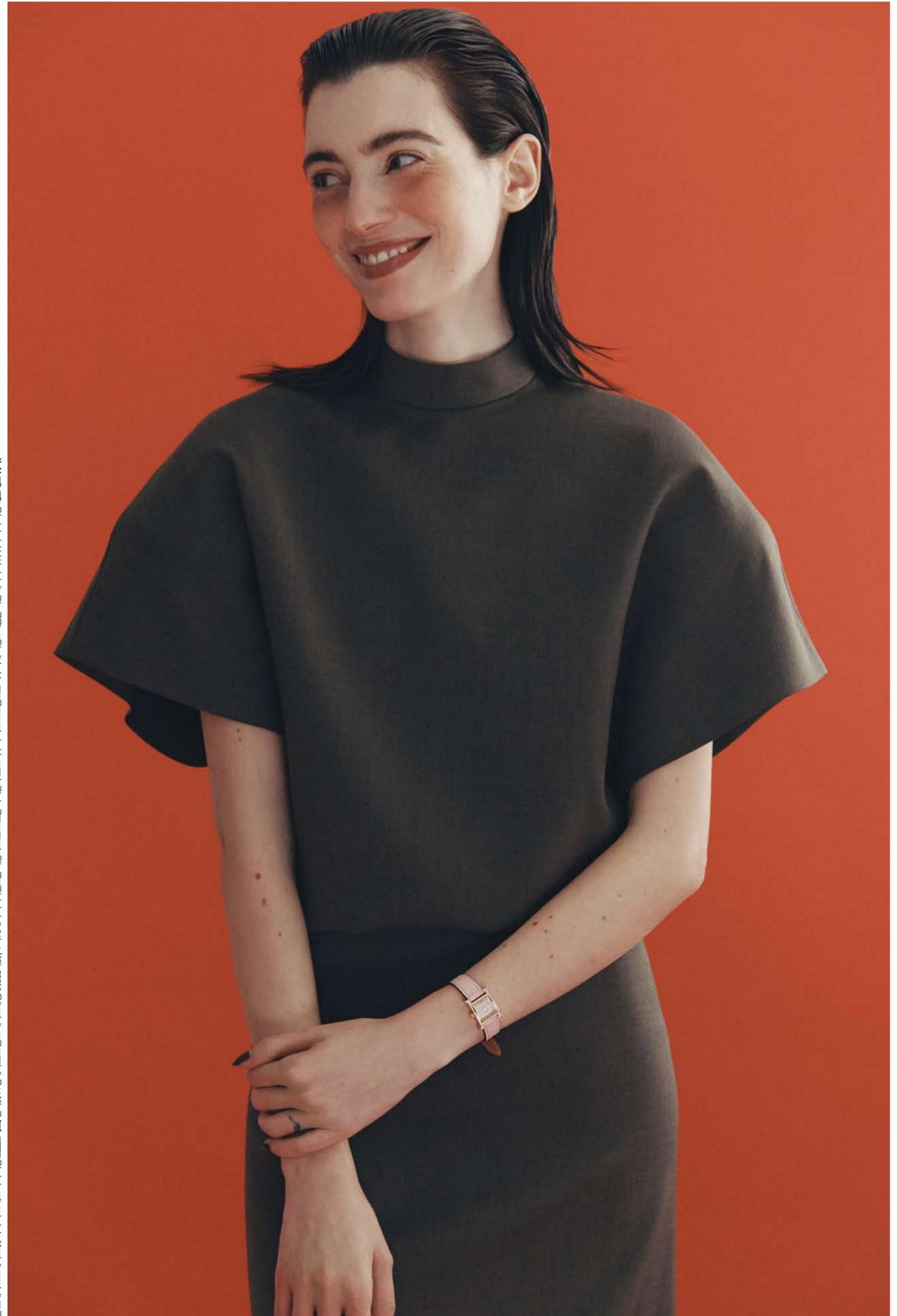
SHE IS...

그녀가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
 갈게 될 그 모든 순간.
 photographed by **kim sin ae**



에펠 GG 버튼 디테일의 그린
 셔츠 1백88만원 **구찌**, 옆보 부분에
 아이코닉한 고무 패들 디테일 가죽 패치를
 더한 레더 재킷 5백만원대,
 세미 사인니 레더로 개성을 더한 팬츠
 4백50만원대 모두 **토즈**, 브랜드의
 아이코닉 컬렉션으로 지름 42mm
 18K 핑크 골드 케이스와 그린 다이얼,
 브라운 슬롯이 매력적인 풀로 데이트 워치
 4천70만원 **피아제**.

올 시즌의 스타라벤트 핏 하이 넥 드레스 **스포르탄스**, 일바셋 H 용량의 로즈 골드 케이스에 총 0.228카럿, 1백16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로즈 오팔 다이얼과 로즈 사쿠라기트 스트랩으로 마무리된 여성스러움을 더한 에이지 아이 워치 가격 미정 **에펠메스 워치**,
 올 시즌의 스타라벤트 핏 하이 넥 드레스 **스포르탄스**, 일바셋 H 용량의 로즈 골드 케이스에 총 0.228카럿, 1백16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로즈 오팔 다이얼과 로즈 사쿠라기트 스트랩으로 마무리된 여성스러움을 더한 에이지 아이 워치 가격 미정 **에펠메스 워치**.





편타지 터워드 소재 재킷, CC 로고를 프린팅한 데님, 유광 고티스킨 소재의 매캐인 슈즈 모두 가격 미정 **샤넬**, 18K 옐로 골드 롤 0.10이 크로미터 코팅한 스텔 체인 브레이슬릿에 붙여 가죽 스트랩을 연은 디자인이 유근의 퀵스 무브먼트의 프라미트 에디션 오라클 7백8십원대 **샤넬** 워치.



백색 칼라가 돋보이는 셔츠, 플루이드 실크 소재의 더블브레스트 태입러드 재킷, 나파 가죽 소재의 러버 스타일 롤 모두 가격 미정 **샤넬**, 펜츠는 에디터 소장품, 오벌 형태의 옐로 골드 케이스에 카본송 컷 사파이어와 옐로 골드 비즈 크라운을 세팅한 토프 옐리키에터 가죽 스트랩의 배누이 워치 1천2천원대 **카르띠에**.

은은한 스트라이프 패턴을 기미한 캐시미어 소재의 롱보이 재킷 가격 미정
셀린트, 지름 34mm의 풀리싱 처리한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리군 그린 컬러 다이얼을 매치한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150M 코-엑스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씨 블루 컬러의 다이얼로 포인트를 준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 150M 코-엑스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각 8백30만원 **오메가**.



구주적인 디자인의 은은한 비스텔 비블 컬러가 롱보이 재킷을 주는 차가운 백 1백만원대 **지터박스**, 화이트 시스 가격 미정, 옴모의 (모이) 혼혈인 드레오프 테일러링 블랙 일부의 크롬트 재킷 2백90만원대, 옴모의 (모이) 혼혈인 드레오프 테일러링 하이 에이스트 패그로그 펜츠 1백60만원대, 앤드르 샹브의 블라 레인 소재로 이루어진 패시용 가격 미정 모두 **엘베스터** 브랜드.



올 소재의 핀스트라이프 셔츠 재킷, 워셔드 플루이드 비스코스 새틴 소재의 드레스 모두 가격 미정 보타가 베네텐, 36.5X28.45mm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천연 마더오브펄 다이얼과 총 1백17개의 다이아몬드 세팅으로 화려함을 더한 레인드 네이플 8918 워치 4천9백만원대 브레게, 헤어 최은영, 메이크업 사이클, 모델 Lidia Comini, 어시스턴트 신정임, 에디터 성장진



올 소재의 핀스트라이프 셔츠 재킷, 워셔드 플루이드 비스코스 새틴 소재의 드레스 모두 가격 미정 보타가 베네텐, 36.5X28.45mm 18K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천연 마더오브펄 다이얼과 총 1백17개의 다이아몬드 세팅으로 화려함을 더한 레인드 네이플 8918 워치 4천9백만원대 브레게, 헤어 최은영, 메이크업 사이클, 모델 Lidia Comini, 어시스턴트 신정임, 에디터 성장진

구찌 02-3452-1921
트즈 02-3438-6008
피아제 1668-1874
스포츠막스 02-511-3935
에르메스 워치 02-542-6622
샤넬 · 샤넬 워치 080-805-9628, chanel.com
질 샌더 02-6905-3530
까르띠에 1877-4326
셀윈스 02-549-6631
오메가 02-6905-3301
자크루스 02-3467-6744
알렉산더 맥퀸 02-6905-3472
밀프 로렌 캄백션 · 밀프 로렌 워치 & 와인 주얼리 02-3467-6560
보타가 베네텐 02-3438-7682
브레게 02-3479-1008



the great harmony

문화, 예술, 쿠티리에, 그리고 숭고한 장인 기술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보존하는 데 힘쓰는 패션 하우스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샤넬을 첫손에 꼽을 수 있다. 브랜드의 미션과 비전에 맞춰 샤넬은 앞으로 5년 동안 재단법인 예술을 후원할 예정이다. 그 후원의 일환인 '반짝거림의 깊이'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열린 '예술 X 샤넬 프로젝트' 전시에서 금박장 박수영과 옷칠공예가 유남권이 함께 만든 특별한 합작품을 공개했다.



예술은 2002년 설립한 이래로 꾸준히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일에 힘쓰며, 전통 공예의 가치를 올바르게 성찰하여 미래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하는 비영리 재단이다. 이들이 진행 중인 전통 공예 후원 프로젝트 중 '예술 프로젝트'가 후원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예 - 과거와 현재를 잇고(예술이 뽑은 올해의 장인), '올 - 현재와 미래를 잇는(예술이 뽑은 올해의 젊은 공예인) 주요 장인을 선정한다. 전통 공예의 기법과 기능을 구현하는 것과 동시에 현대적 쓰임을 위해 개방적 사고를 지닌 자를 예술이 뽑은 올해의 장인으로 2010년부터 선발해 왔다. 선발된 장인은 체계적으로 재료와 기술을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받고 작품 개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전시, 홍보, 판매까지 전 과정을 후원받을 수 있다. 2013년부터 '예술이 뽑은 올해의 젊은 공예인'도 매년 선정했다. 선발된 젊은 공예인을 통해 이들의 실험적이고 다양한 작업을 토대로 전통 공예의 가치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쓰임을 만들어냄으로써 미래 공예의 저변을 넓히고자 한다. 이렇듯 과거와 현재를 잇는 장인, 현재와 미래를 잇는 공예인을 함께 소개하면서 한국 공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예술 프로젝트의 목표다. 올해부터는 샤넬은 예술과 손잡고 한국 공예 발전에 기여한 장인과 공예인을 기리는 여정을 함께한다. 향후 5년간 후



원사로서 '예술 X 샤넬 프로젝트: 올해의 장인, 올해의 젊은 공예인'을 선보인다. 김영명 재단법인 예술 이사장은 "올해부터 샤넬과 함께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어 이를 통해 금박과 지태칠기 등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공예 기술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전시와 더불어 앞으로도 소중한 한국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재조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2022년 올해의 장인에는 금박장 박수영을, 올해의 젊은 공예인에는 옷칠공예가 유남권을 최종 선정했다. 장인들의 프로젝트 결과물은 11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진행한 예술 X 샤넬 프로젝트 전시 <반짝거림의 깊이에 관하여(On the Aesthetics of Radiance: Geumbak & Ottchil)>를 통해 만나볼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금박장 박수영과 옷칠공예가 유남권이 함께 제작한 특별 합작품도 공개했다.

올해의 장인, 박수영

올해의 장인 금박장 박수영(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이수자)은 섬세하고 아름다운 금박 작업에 금빛 원형을 표현하고 반짝임의 미학을 담아낸다. 깊은 역사를 지닌 북촌의 '금박역'에서 인생의 동반자인 남편 김기호 장인과 함께 기업으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선대가 지켜온 소중한

유산을 계승하는 장인의 모습에서 금박에 대한 애정과 우리 문화에 대한 사랑감이 느껴진다. 또 이번 프로젝트에서 박수영 장인은 금박의 현대적 변용을 위해 건축가이자 공간 디자이너인 임태희와 협업을 진행했다. '낮과 밤이라는 자연의 흐름과 움직임'을 주제로, 모빌을 제작해 금박의 생동하는 반짝임을 새롭게 표현했다. 세밀한 선과 한지로 하늘거리는 빛의 이미지를 표현했으며, 공기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손끝의 터치에 따라 흔들리는 모빌 공예 품은 마치 한 편의 시처럼 서정적인 매력을 발산한다.

올해의 젊은 공예인, 유남권

옷칠공예가 유남권은 종이로 만든 기물을 옷칠로 마감하는 전통 기법인 '지태칠기'를 활용해 작업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거친 질감 위로 옷칠이 스며들고 겹치게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작가만의 '겹'을 쌓아가는 방법으로 독특한 분위기가 나는 작품을 구현한다. 유남권 작가는 동양화를 전공하며 배운 배접 기법을 활용해 견고한 형태를 만들고, 붓칠로 옷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표현해 직선적 형태의 지태칠기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프로젝트 작품은 지태칠기의 또 다른 미감을 찾아기는 과정이다. 문의 080-805-9628, chanel.com 에터 **윤지영**

1 예술 X 샤넬 프로젝트 올해의 장인, 올해의 젊은 공예인 전시회 현장, 2 금박장 박수영의 작업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다, 3 옷칠공예가 유남권의 작품과 금박장 박수영의 작품, 4 옷칠공예가 유남권의 작업 과정을 담은 영상, 5 올해의 장인, 금박장 박수영, 6 2022 올해의 장인과 젊은 공예인이 함께 제작한 특별 합작품, 7 옷칠공예가 유남권의 전시 작품, 8 올해의 젊은 공예인, 유남권, 9 금박장 박수영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현장 모습.



Be Gentle!

클래식하고 모던한 디자인에 다양한 컴플리케이션으로 남자의 품격을 높여줄 오메가 드 빌 프레스티지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오메가 드 빌 프레스티지 컬렉션

1994년부터 클래식한 디자인과 세련된 품격으로 사랑 받아온 드 빌 프레스티지 컬렉션. 여러 다이얼 컬러와 패턴, 마감 기법 등으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어울리는 개성 있는 스타일로 구성되어 취향에 따라 원하는 스타일대로 연출할 수 있다. 특히 더욱 슬림해진 디자인이 돋보이는데, 시계의 우아한 곡선을 살리면서도 슬림해서 편리하게 착용 가능하며, 40mm와 41mm 모델의 경우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무브먼트를 장착할 수 있도록 다이얼을 볼록한 돔 형태로 제작해 기능과 실용성을 겸비했다. 다채로운 디자인과 매력의 드 빌 프레스티지 컬렉션을 만나보자. 문의 02-6905-3301

(위부터) **드 빌 프레스티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파워 리저브** 스테인리스 스틸 및 18K 세드나™ 골드 소재의 지름 41mm 케이스에 태완링 패턴 마감 처리한 세로 형태의 스텝링 랜덤 패턴의 동형 PVD 라틴 다이얼을 매치했다. 270도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는 6시 방향에 위치하며, 초승달 모양의 4개 색투와 접재된 대조 효과를 이끔어주는 마감 기법이 적용된 동일한 컬러의 인더플레이트가 특징. 6시 방향의 날짜창과 9시 방향의 스몰 세컨즈 사브 다이얼, 외부 존에 장식된 레일웨이 형태의 마닛 트랙으로 간결하면서 실용적인 디자인을 완성했다. 오메가 마스터 코-엑시얼 칼리버 8810으로 구동된다. 1천2백90만원.

드 빌 프레스티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스테인리스 스틸 및 18K 옐로 골드 소재의 지름 40mm 사이즈 모델로 크리스탈 마감 기법을 다한 동형 살버 다이얼이 특징이다. 옐로 골드 도금 핸즈와 교차 배열된 로마숫자, 카보숏 인덱스부터 6시 방향의 날짜창까지, 간결한 디스플레이로 모던하고 세련된 매력을 지어내며, 오메가 코-엑시얼 칼리버 8800로 구동한다. 굽힘에 강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 백을 장착해 부담 없이 편안하게 착용 가능하다. 1천1백10만원.



(왼쪽부터) **드 빌 프레스티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파워 리저브** 18K 세드나™ 골드 소재의 지름 41mm 케이스에 크리스탈 마감 기법의 동형 살버 다이얼을 매치해 은은한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PVD 처리한 세드나™ 골드 컬러 핸즈와 교차 배열된 로마 숫자, 카보숏 인덱스로 완성했다. 270도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는 6시 방향에 위치하며, 초승달 모양의 4개 색투와 접재된 대조 효과를 이끔어주는 마감 기법이 적용된 동일한 컬러의 인더플레이트로 마무리했다. 1천2백90만원.

드 빌 프레스티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스몰 세컨즈 지름 41mm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케이스에 태완링 패턴으로 마감 처리한 동형 PVD 다크 블루 다이얼이 매력적인 모델로 3시 방향의 날짜창과 6시 방향의 스몰 세컨즈 사브 다이얼, 외부 존에 장식된 레일웨이 형태의 마닛 트랙으로 구성된다. 다이얼과 같은 다크 블루 컬러의 레더 스트랩을 장착해 통일감을 주었다. 1천2백70만원. 에디터 **성영민**





Great Moments

스위스 워치메이커 오메가는 제임스 본드 탄생 60주년을 맞이해, 이를 기념한 2개의 씨마스터 다이버 300M 타임피스를 선보였다. 이언 Fleming(Ian Fleming)의 소설을 바탕으로 촬영한 영화 25편은 어느덧 전 세계 영화계의 살아 있는 전설로 자리 잡았고, 오메가 시계는 1995년 <007 골드아이>에서 제임스 본드의 시계로 선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혁신적이며 스타일리시한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 스크린에서 점차 발전을 거듭해가는 제임스 본드처럼 오메가 시계도 놀라운 혁신을 선보여왔다. 오메가의 히스토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 소중한 만남, 오메가 CEO와 다니엘 크레이그와의 의미 있는 인터뷰 타임.

오메가 CEO 레이날드 애슐리만(Raynald Aeschlimann), 제임스 본드를 말한다 오메가가 제임스 본드의 시계로 선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화 출연은 결코 간접 광고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995년에 의상 디자이너 린디 헤밍(Lindy Hemming)이 오메가를 선택했습니다. 제임스 본드는 영국 해군 시령관으로, 스파이처럼 세련된 남자기도 합니다. 오메가는 제2차 세계대전 시 영국 육군에 가장 많은 물량의 시계를 공급한 업체였습니. 여기에서 연결 고리가 탄생했습니다. <골드아이>(Golden Eye) 이후 오메가의 다이버 시계가 제임스 본드의 세계에 등장할 수 있었고, 오메가와 007의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온 프로덕션과의 관계를 설명한다면?** 팀 정신으로 결속된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그리고 이 컬래버레이션의 성공은 007뿐만 아니라 프로듀서 마이클 G. 윌슨(Michael G. Wilson)과 바버라 브로콜리(Barbara Broccoli)와 쌓아온 긍정적인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탄생 60년이 지난 후에도 제임스 본드가 인기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제임스 본드는 늘 현대적인 남성으로 그려집니다. 그렇기에 흥미로운 인물로서 어느 시대에나 현대적인 아이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듀서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스크린과 제임스 본드가 행동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춰 그 시대에 맞는 제임스 본드를 보여주죠. 이러한 관점에서 제임스 본드는 영향력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두에게 커린 영감을 주는 인물입니다. **제임스 본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제임스 본드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해 질문을 받는 일이 종종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노 타임 투 다이>(No Time To Die)에서 그가 착용한 시계는 폭발하기도, 손상되기도 않았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오메가 시계를 차고 있지 않은 제임스 본드는 상상하기 힘들죠. 그의 시계는 분명히 견딜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차기 제임스 본드는 누가 될까요?** 누구인지 이름을 대는 어렵죠. 다니엘이 선택되었을 때도 이를 예상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누구든 간에 새로운 배우는 그만의 개성을 보여줘야 하겠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제임스 본드라는 인물을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것은 60년을 이어온 본질입니다. 새로운 시계 정보나 공금 하군요. 오메가가 원하던 것은 시계를 통해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메가 시계의 마법이자, 첫째로, 이 시계의 블루 컬러는 27년 전 제임스 본드가 최초로 착용했던 블루 컬러의 시계를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노 타임 투 다이>에서 착용한 메시 브레이슬릿을 장착했죠. 이를 통해 오메가가 등장한 최초의 007 영화와 마지막 영화 사이의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케이스 백에는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가장 아이콘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애플리케이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백 애플리케이션이 흥미롭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제임스 본드가 걸어온 60년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모든 영화에 나오는 유일한 장면이며, 모든 것과 이어지는 연결 고리입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디자인을 갖추고, 영구적으로 움직이며 제임스 본드의 시대를 초월한 모습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메가 워치메이킹을 정의한다면? 우리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메가의 마법에 대해서 굳게 믿고 있지요. 오메가의 DNA를 잃지 않고 기술을 놀라움으로 바꾸는 일, 저는 이것을 마법이라고 부릅니다. 오메가는 혁신과 도전을 사랑하고, 고객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소중히 여깁니다. 오메가는 이러한 마법을 현실로 불러오는 브랜드입니다.**

다니엘 크레이그, 오메가를 말한다

무엇이 제임스 본드와 오메가를 서로에게 그렇게 완벽한 존재로 만드나요? 본드는 시간을 지는 시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계는 스파이라는 직업을 고려해 어떠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충격을 견디고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죠. 본드 영화에서 착한 모든 오메가의 시계는 영화에서 여러분이 확인했듯 매우 극한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를 함께 헤쳐왔을 뿐만 아니라 항상 같은 모습과 기능을 유지했습니다. 더불어 디자인적으로도 그 시계들은 매우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제임스 본드는 매우 엄격한 기준에 자신을 맞췄고, 오메가의 시계 역시 그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1 제임스 본드 탄생 60주년을 맞이해 런던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함께한 오메가의 CEO 레이날드 애슐리만(Raynald Aeschlimann)과 다니엘 크레이그. 2 제임스 본드 탄생 60주년 기념 씨마스터 다이버 300M 42mm 시아존의 스테인리스 스틸 워치. 영화 <골드아이>에서 제임스 본드가 착용한 씨마스터에서 영감을 받은 시계다. 실제로 007 영화 테마를 반영해 특별한 미세 구조 금속화로 장식한 스파이더 하단의 케이스 백에 제임스 본드 실루엣과 화전하는 건 배럴이 등장하는 영상 높은 007 오프닝 시퀀스를 새겨 넣었다. 3 제임스 본드 탄생 60주년을 기념하는 또 하나의 특별한 타임피스. 오랜 기간 눈부신 광채를 유지한다고 알려진 오메가의 18K 캐노푸스 골드(Canopus Gold)로 제작했다. 지메이카 국기를 연상시키는 배럴에는 엑스트라 디크 포레스트 그린에서 올리브, 옐로, 골드 컬러를 거쳐 코쿠치 10가지 트로피컬 열매를 그린 다이얼 및 옐로 천연 다이아몬드를 파헤쳐 세팅했다.

영화에서 시계 역할은 누가 결정하시나요? 오메가가 영화 제작사와 협업하며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에 대해 대화를 나눕니다. 영화 속 본드가 활용하는 기법은 본드 영화 속에서 중요한 실마리를 풀어가 는 역할을 하죠. 바로 그 정점에 오메가가 있습니다. 단지 시계를 알려주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스토리텔링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최근 영화에서 본티지 DB5 자동차가 나오는데, 제임스 본드에게 어울릴 것 같은 본티지 오메가 시계가 있 니요. 1969년식 씨마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착용하고 여전히 아름답게 구동하고 있지요. 그 제품을 제 요하고, 당신이 테일러 워치로 선택한 오메가 시계는 무엇일까요? <007 스펙터>에서 착용했던 씨마스터 제품 역시 너무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나토 스트랩을 매칭해서 좀 더 캐주얼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해주죠. 제임스 본드 탄생 60주년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당신은 옛날 제임스 본드 영화를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예전 시퀀스를 많이 보는 편이죠. 아주 많이 봐요. 특히 저가 활용할 때는 영화를 찍기 전에 항상 다시 봅니다. 제임스 본드가 지속적으로 인기를 끄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영화 제작자인 브로콜리가 영화를 만드는 방식은 항상 특별한 행시를 기획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계부터 자동차, 테마까지 모든 것이 말이죠. 이러한 디테일이 공개될 때 언제나 큰 화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방식을 유지하는 한, 제임스 본드 영화의 인기는 앞으로 60년은 더 지속될 것 같네요.

Bemy only One

센터 다이아몬드 하나만으로 독보적인 존재감과 화려함, 우아함까지 완성하는 솔리테어 다이아몬드 링.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소메 비 마이 러브 솔리테어 링** 브랜드 특유의 일베리얼 비 모티브에 기반해 그래픽적이고 현대적인 매력을 선사하는 링으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0.157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0개를 세팅했으며, 1.01캐럿부터 1.09캐럿까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센터 스톤 1개를 세팅해 화려함을 부각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6905-3330

블라키 리아 이모로 링 생동감 넘치는 로마의 정신과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얻은,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인게이저먼트 링으로 강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플래티넘 소재에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0.57캐럿부터 출시하여 캐럿과 등급 별로 가격이 상이하다. 가격 미정. 문의 02-2056-0170

그라프 프라미스 라운드 다이아몬드 인게이저먼트 링 클래식한 스타일이 세련된 멋을 자랑하는 플래티넘 프라미스 사랑의 인게이저먼트 링. 패어 세프 사이드 스톤으로 중앙에 1.21캐럿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둘러싸 더 돋보이게 하는 디자인으로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표현했다. 3천개씩 30만원. 문의 02-6905-3330

스티븐 헬스터 밴드 투게더 어니 링 영국의 패이퍼 다이아몬드 2종 양의 마카조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받쳐주어 더욱 화려해 보이도록 디자인했다. 기존 솔리테어 링과는 다른 매력에 있는 디자인으로 유려한 아름다움도 돋보인다. 가격 미정. 문의 02-2231-1592

타피니 사랑 링 세계 최초로 밴드와 다이아몬드를 분리한 디자인의 타피니 사랑으로 완성한 솔리테어 링으로 67캐럿 프롬이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밴드 위로 완전히 들어 올림으로써 빛이 하단까지 통과해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최대한 살린 것이 특징이다. 플래티넘 소재 밴드로 이뤄져 있다. 가격 미정. 문의 02-6250-9620

카르파에 1895 솔리테어 링 가장 심플하면서도 그 덕분에 센터 다이아몬드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카르파에 대표 솔리테어 링으로 플래티넘 소재 밴드에 0.23캐럿 5.99캐럿까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할 수 있다. 가격 미정. 문의 1566-7277 에더터 **상영민**

Little Giant

2022년 샤넬은 셀프 와인딩 칼리버를 탑재한 최초의 J12 33mm를 선보이며 J12 위치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바로 J12 칼리버 12.2 위치. 이는 진정한 기술적 위업이자 샤넬 위치메이킹 노하우의 압축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매료시키는 샤넬 J12는 늘 우리 마음속 넘버 1이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독보적이고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J12. 2022년 또 한번의 혁신으로 탄생한 J12 12.2 33mm 워치를 선보인다. 이 작은 크기에 고도의 기술력을 담고 셀프 와인딩 매뉴팩처 무브먼트를 장착하기 위한 혁신적인 샤넬의 노력이 돋보이는 순간, 샤넬 워치 크리에이션 스튜디오 디렉터인 아르노 사스탕이 디자인하고 스위스 라쇼드퐁의 샤넬과 케치시의 공동 소유 매뉴팩처에서 개발 및 조립한 J12 33mm는 전혀 없는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 칼리버 12.2를 탑재했다. 이 웨어러블한 사이즈의 워치에는 샤넬 워치메이킹의 모든 노하우가 담겨 있다. 세라믹으로 견고함을 더했으며 상징적인 완벽한 원 형태의 오실레이팅 웨이트를 구현했다. 이 모든 움직임은 스피어 크로스털 케이스 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작지만 놀랍도록 강한 샤넬 J12 칼리버 12.2를 만나보자. 문의 080-805-9628

(왼쪽부터) J12 워치 칼리버 12.1 화이트 세라믹으로 견고하며 은은한 스틸과 화이트 다이얼, 블랙 컬러 인텍스를 매치해 디자인적으로도 완벽한 풍격을 자랑한다. 브레이슬릿 역시 화이트 세라믹으로 매치해 통일감을 부여했다. 12개의 다이아몬드 인디케이터로 약 0.09캐럿을 새긴 화이트 래커 다이얼로 우아함을 부여한다. 1천 3백만원대. J12 워치 칼리버 12.2 지름 33mm의 화이트 세라믹과 스틸 소재 케이스로 아담하지만 셀프 와인딩 기계식 무브먼트를 탑재해 높은 기술력과 견고한 내구성을 갖췄다. 스피어 크로스털 케이스 백을 통해 내부를 볼 수 있으며 샤넬 워치메이킹의 상징인 완벽한 원 형태의 오실레이팅 웨이트를 넣어 장식했다. 5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1천만원대.



(왼쪽부터) J12 워치 칼리버 12.1 지름 33mm의 견고한 블랙 세라믹과 스틸 소재로 이루어진 케이스에 블랙 래커 다이얼을 매치했다. 브레이슬릿 역시 블랙 세라믹 소재로 재질에 강한 내구성을 갖췄다. 총 0.09캐럿, 12개의 다이아몬드 인디케이터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1천3백만원대. J12 워치 칼리버 12.2 지름 33mm의 블랙 세라믹과 스틸 소재 케이스로 일순 손목에도 매치하기 쉬운 사이즈가 특징. 칼리버 12.2 오토매틱 무브먼트로 작동하는 셀프 와인딩 기계식 무브먼트를 탑재해 기능적으로도 손색없다. 샤넬 워치메이킹의 상징인 완벽한 원 형태의 오실레이팅 웨이트를 탑재했으며 COSC(스위스 크로노미터 공식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았다. 1천만원대. 에디션 상징인

시그니처 스톤의 변주, 누도

포멜라토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컬렉션이자 메종의 헤리티지를 고스란히 표현하는 누도 컬렉션. 스톤의 화려함이 돋보일 수 있도록 강조된 대담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무엇보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생동감 넘치는 컬러와 비정형적 디자인이 조화를 이뤄 아이덴티티를 확연히 드러낸다. 대범한 사이즈의 스톤을 사용했지만 스톤을 감싸는 프롱이 없어 더욱 우트 있으면서도 자유로운 컬러믹스를 통해 포멜라토만의 스타일을 대변한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18K 로즈 골드와 화이트 골드 소재에 총 1.87캐럿 78개의 브라운 다이아몬드가 조화를 이뤄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누도 솔리테어 이어링, 포멜라토만의 대담한 클래식 시드라 컷(cleesdra cut)이 돋보이는 총 31.27캐럿에 달하는 3개의 로즈 큐츠와 3개의 칼세드나가 서로 면을 맞대고 있으며, 2캐럿의 2백19개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18K 로즈 골드 소재의 누도 라브에르 네크리스, 총 0.97캐럿 33개의 브라운 다이아몬드를 정밀하게 세팅했으며 18K 로즈 골드와 화이트 골드 소재가 돋보이는 누도 솔리테어 링 모두 가격 미정. 문의 02-3143-9486



Timeless Elegance

밀라노에 위치한 까사 포멜라토에서는 매일 1백 명이 넘는 금세공 장인들이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주얼리 피스를 창조해내고 있다. 섬세한 세공과 대범한 디자인이 멋진 하모니를 이루는 주얼리, 그 아름다운 피스들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메종의 금속 세공을 향한 찬사, 이코니카

유구한 금속 세공의 전통과 가치가 그대로 담긴 이코니카 컬렉션. 무엇보다에서도 절제된 포멜라토만의 스타일 이 특징이다. 여러 아이템과 다양하게 매칭해도 주얼리 피스 각각의 훌륭한 퀄리티와 개성이 돋보인다. 여기에 다채로운 컬러를 활용해 발랄한 느낌을 연출했으며, 무엇보다 각각 신비로운 색과 빛을 발하는 별, 세모, 타원과 정사각형으로 세팅한 원석들이 매력적이고도 유니크하다.

(위부터 차례대로) 18K 로즈 골드 밴드에 총 1.97캐럿, 13개의 스톤을 세팅한 이코니카 멀티컬러 링, 5.1캐럿의 34개 스톤을 다채롭게 세팅한 18K 로즈 골드 소재의 이코니카 멀티컬러 브레이슬릿, 3.47캐럿의 2백42개 다이아몬드를 총총히 세팅한 이코니카 브레이슬릿, 18K 로즈 골드 소재에 핑크 투르말린, 가공 옐로우 사파이어, 블루 사파이어, 차보라이트 등의 2.5캐럿 스톤을 세팅한 이코니카 멀티컬러 링 모두 가격 미정. 문의 02-3143-9486 에디터 윤지영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 강렬한 오렌지 컬러가 눈에 띄는 카프 레더 소재의 아이코닉 타임즈 3백만원대 **패라가모**, 문의 02-3430-7854. 실용성과 편리함을 겸비한 핸들이 특징인 패이먼트 카프 스킨 소재의 스톤 플랫폼 워드롭 핸들 가죽 미팅 **사블**, 문의 080-805-9628. 북스 카프 스킨 소재로, 컬러 백을 비대칭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의 캘리 II 셀리에 영 데조르드르 백 1천7백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2-8622. 루이 비통의 시그니처 노노그램 디자인과 골드 톤 금속 디테일의 조합이 돋보이는 카프 스킨 소재의 카루신 B8 가죽 미팅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부드러운 100% 랩 스킨 소재를 인트라피드 우빙으로 완성했으며, 메탈릭 핸들을 더해 고급스러움을 선사하는 시트린 탑 핸들 백 9백20만원대 **보티가 베네타**, 문의 02-3438-7882. 7개-뉴 스타칭 디자인과 블루 컬러가 매력적인 랩 스킨 소재의 시그니처 레디 디 조이 백 가죽 미팅 **디올**, 문의 02-3480-0104 에디터 **윤지경**



better than Classic

'클래식은 영원하다'라는 명제처럼 시간이 흘러도 사랑받는 패션 하우스들의 시그니처 백. 더욱 시크하고 유니크하게, 그리고 러블리하게 변신했다.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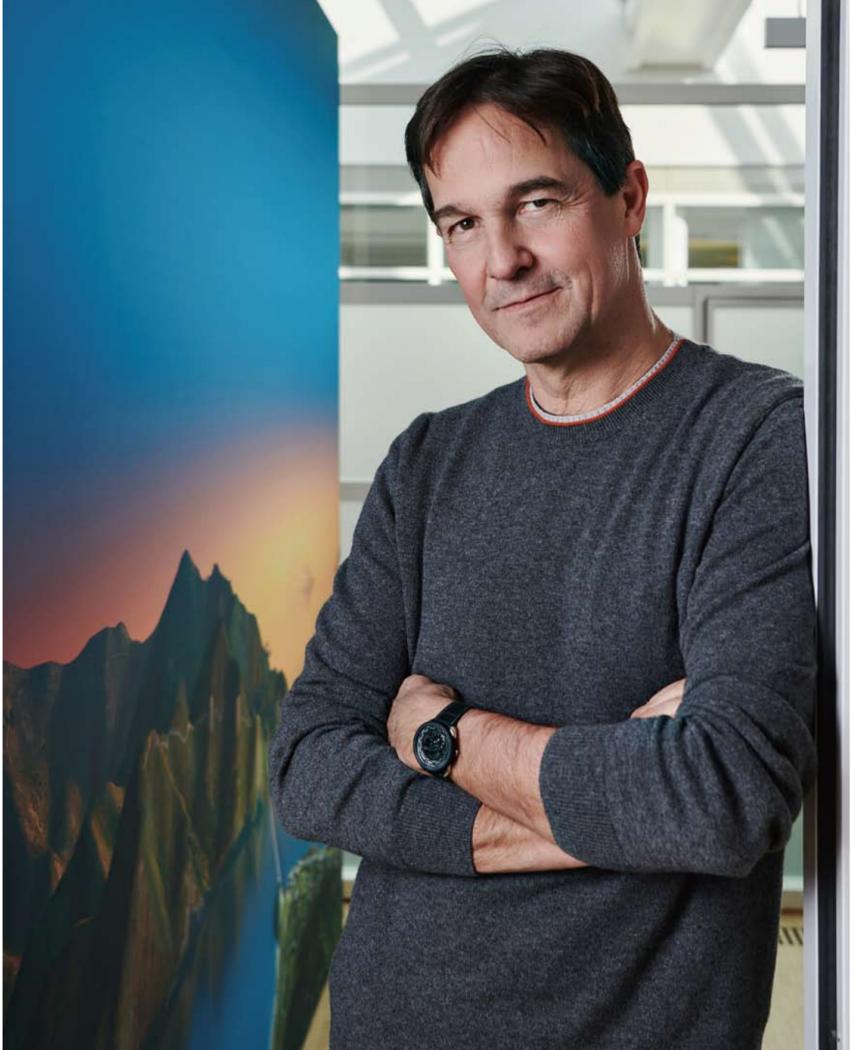
에르메스 신제품

시간에 대한 독특한 해석

팬데믹에도 작년 한 해 럭셔리 워치 시장은 큰 성장을 이뤘다.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는 고객이 늘었고, 그에 발맞춰 워치 메종은 더 진보된 기술, 훌륭한 장인 정신, 스토리를 더한 섬세한 아트 피스로 보답했다. 에르메스 워치도 마찬가지로 3년 남짓한 기간 동안 모든 것이 도전이었지만 훌륭하게 적응해 디지털과 물리적인 공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일관적인 메시지, 빠르고 민첩하지만 타협하지 않는 전략으로 감동을 안겨준 에르메스 워치. 2015년부터 에르메스 워치 사업부를 이끌고 있는 CEO 로랑 도르데(Laurent Dordet)에게 이에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했다.

Stylechosun(이하 SC) 훌륭하고 특별한 워치 메종은 많다. 그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에르메스 시계는 시계에 대한 다른 해석을 선보인다. 기발한 타치로 가득한 시간, 스티플 그 이상의 시간, 다정하고 지속되며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 이야기가 있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시간이 바로 그것. 시계에 재해되거나 시간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기고, 시간과의 특별한 관계를 상상하는 것이다. 기존의 시계업계와는 다른 이런 독특한 해석은 아쓰 레흐 트리렌(Arcueil L'heure de la Lune), 슬림 데르메스 레흐 임파시앙트(Slim d'Hermès L'heure Impatiente), 드레사지레 호 마스케(Dressage L'heure Masque), 아쓰 르 탕 서스펜디(Arceau le Temps Suspendu) 등과 같이 뛰어난 기능을 갖춘 모델들을 통해 구현되었다. 올해는 아쓰 르 탕 보야주(Arceau le Temps Voyageur)를 통해 우리의 이런 창의적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구현해냈다. 이 시계는 매우 유용한 컴플리케이션인 동시에, 우리를 에르메스가 선보이는 상상 속 시계의 세계로 이끌어 준다. 또 메종이 선보이는 특별한 언어와 스티플로 창조된 새로운 대륙들 사이로 여행하게 해준다.

SC 에르메스 워치는 다른 워치 메종들과 달리 패션, 뷰티 리빙 등 라이프스타일을 아우르는 메종의 일부다. 이런 강점일까, 약점일까? 확실한 강점이다. 에르메스에는 현재 이전보다 더 창의적인 16개의 메티에(가게)가 있으며, 각 메티에를 이루는 풍부한 색상, 패턴, 장인 정신을 지니고 있다. 시계 메티에를 보자면, 물론 시계만의 독특한 부분을 개발하기도 하지만, 다른 메티에에서 영감을 받아 시계를 개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실크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메티에 디르(métiers d'art) 디자인의 특별한 시계를 만든다. 매년 새로운 디자인과 기존 모티프의 새로운 색상을 출시하며, 이는 우리가 뛰어난 시계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 훌륭한 영감의 원천이다. 영감은 꽃, 야생동물, 음악, 기하학적인 패턴, 그리고 현대적인 것 등 다양하다. 우리는 또 생루이 크리스탈(les Cristalleries de St-Louis)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다른 브랜드에서는 볼 수 없는 밀레피오리 크리스탈 디자인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타임피스 중 일부는 남성 RTW 컬렉션과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 선보인 에르메스 H08(Hermès H08)은 남성 RTW 아이덴티티의 일부를 담아 남성 유니버스에 뿌리를 둔 시계를 만들고자 했다.



SC 개인적으로 시계는 작은 공간에 담는 예술과 기술, 그리고 그 한계를 깨는 도전의 영역이라 생각한다. 에르메스 워치에 한계를 깨는 도전은 무엇인가? 에르메스에 있어 기술은 창조이며 도전이다. 매년 우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필립 델로탈(Philippe Delhotal)이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새로운 구체적인 아이디어, 디자인, 감정을 보여주고, 개발 부서에서는 그의 아이디어를 기능적인 시계로 바꿀 가장 좋은 방법을 연구한다. 그 예로, 아쓰 컬렉션의 신제품인 르 탕 보야주는 에르메스의 유니크하고 독특한 컴플리케이션을 보여준다. 에르메스는 고객이 어디서든 찾을 수 없는 것을 함께 만들고 공유하고자 하는 시계에 대한 독특한 접근 방식을 갖고 있다. 워치메이커의 작은 디자인은 우리 장인들에게도 분명히 큰 도전이다. 장인들은 종종 90 X 90cm 사이즈의 실크 스카프를 매우 작은 시계의 일부에 재현하는 꼼꼼하고도 정확한 작업을 한다. 2018년 GPHG 이티스티 크라프트 부문에서 수상한 '아쓰 로브 뒤 수아에' 사용한 기발한 레더 모자이크 기법이 특히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 특별한 디자인은 약 2천5백 개의 매우 작은 사각형 가죽으로 말 머리 모티브와 배경을 구현했다. 에르메스 메종에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고유의 가치와 기원에 충실함과 동시에 혁신적이고 새로운 장인 정신을 개발해 계속해서 고객을 놀라게 하는 것이다.

로랑 도르데가 뽑은 주목할 워치 Best 4



Arceau Hermès Story
인하우스 장인의 숙련된 기술을 담은 나무 상자세공우드 마이크로과 마이크로 패턴, 그리고 조각 기법을 통해 독특하고 흥미로운 작품을 완성한 '아쓰 에르메스 스토리.'



Arceau le Temps Voyageur
지름 41mm 플래티넘 케이스와 매트 블랙 티타늄 베젤이 손목에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벼우며, 비대칭 리그가 특징인 르 탕 보야주.



Hermès H08
원형 디자인과 독창적인 타이포그래피, 부드러운 라인의 케이스 등 기하학적 요소들의 대담한 매칭 등 세심한 디테일과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에르메스 H08.



Heure H Titanium
정사각형 티타늄 케이스의 부분별로 미각 기원을 달콤해 대비와 빛의 조화, 그리고 팀 블랙 컬러와 그레이 톤의 균형 잡힌 매장을 강조한 에티어, 에티어.

SC 아직 에르메스 워치가 달성하지 못한, 꼭 이뤄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워치 메이킹은 수세기 동안 존재해온 순수 플레이어가 많은 매우 경쟁적 산업이다. 워치메이커로서 우리는 비교적 최근에 생긴 브랜드로 볼 수 있지만, 우리 팀과 나는 에르메스에서 최고의 품질, 재능, 장인 정신으로 다른 어떤 브랜드에서도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시계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통해 질적 성장은 물론 워치메이커업계에 정통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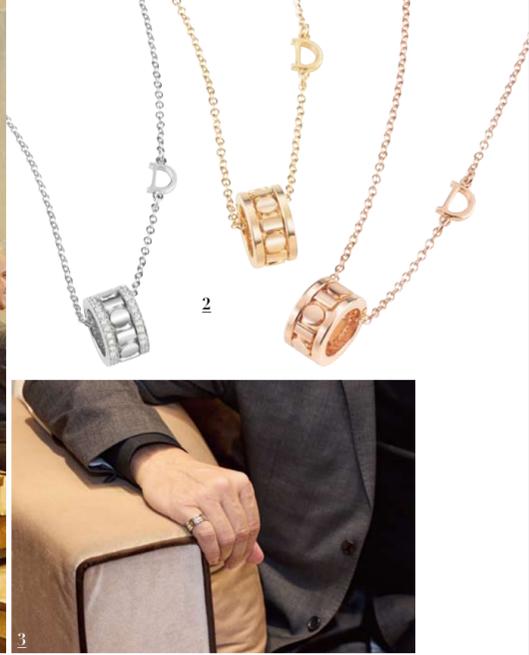
SC 팬데믹이 자라는 듯 싶었는데 이제는 또 다른 환율, 정치·사회적 이슈가 불거졌다. 이것이 미켓에, 특히 에르메스 워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 우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그때그때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에르메스는 뿌리에 충실하고자 노력한다. 창조적 자유, 아름다운 소재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 시간의 시계에 건지는 유용하고 유일한 오리지널의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탁월한 노하우의 전달은 에르메스만의 독특함을 만들어냈다.

SC 에르메스 워치에서 아시아 시장은 어느 정도 포텐을 차차하고 있나? 그 중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에르메스가 아시아와 한국 시계 산업에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지난 9월 에르메스 공식 보고서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에르메스 그룹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에서 2022년 3분기 기준 +34%의 성장하는 실적에 힘입어 3분기 말까지 전체 +21%의 성장을 강세를 이어갔다. 앞으로도 한국과 아시아 전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SC 에르메스 시계 중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뒷면에 출몰된 어느 모델(또는 어느 컬렉션)인가? 가장 좋아하는 에르메스 시계는 에르메스 H08이다. 굉장하게 버텨서 매일 착용하기 좋다. 이 시계를 만들 때, 우리는 기술적인 소재와 모양을 결합한 스포티한 시계를 원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시계 형태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실루엣과 형태를 고민하다 색다른 점을 발견했다. 필립 델로탈과 남성 유니버스의 이티스티 디렉터 베로니크 니샤니앙(Véronique Nishanian)의 자유로운 크리에이티브 작업은 이 워치를 에르메스의 남성 유니버스의 연결했다. 유니클라가 가벼운, 혁신적인 소재의 결합, 이것이 내가 이 시계를 좋아하는 이유다.

SC 시계를 구매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 그리고 '좋은 시계'란 무엇일까?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장인 정신이다. 또 그것이 전하고자 하는 스토리,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계란 실용적이며 기능적인 동시에 전문적인 자식이 담겨 있는 시계라고 생각한다.

SC 에르메스 워치의 정체성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Singular! 에디터 **장미윤**



Dynamic elegance

서구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시기로 꼽히는 파리의 문화 예술 황금기를 가리켜 '벨 에포크(Belle Époque)'라고 부른다. 대개 19세기 말부터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시기에 해당하는데, 훗날 사람들이 단어 뜻 그대로 '아름다운 시절을 그리워하며 부르다가 정착된 표현이다. 이탈리아 하이 주얼리 브랜드 다미아니(Damiani)의 창립자 엔리코 다미아니 역시 그 빛나는 시절에 파리를 여행하며 추억을 가득 쌓았는데, 귀국한 뒤 그 영감을 바탕으로 탄생시킨 스테디셀러가 '벨 에포크' 컬렉션이다. 거의 1세기가 흐른 지금, 빼어난 성장세로 또 다른 의미의 아름다운 시절을 누리고 있는 다미아니는 그에 걸맞은 특별한 컬렉션을 선보였다. 21세기다운 역동성을 우아하게 풀어낸 '벨 에포크 릴(Belle Époque Reel)' 컬렉션. 얼마 전, 이 뜻깊은 컬렉션을 둘러싼 이야기 보따리를 안고 한국을 찾은 다미아니 CEO 제롬 파비에(Jérôme Favier)를 만났다. photographed by kim sa yun

낙천적인 풍요가 흐르며 문화 예술적으로 꽃을 피웠던 그 눈부셨던 시절. 사실 알 만한 이는 다 아는 벨 에포크는 늘 마케팅 전략을 펼칠 때 활용하기 좋은 개념이다.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 주인공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매혹된 파리의 시대적 배경으로도 나왔듯,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황홀하기 그지없는 시기다. 그래서 자칫 진부해지기 쉬운 만큼 범람하고 있는 용어이기도 한데, 1세기 전쯤 등장한 하이 주얼리 브랜드 다미아니(Damiani)에는 결코 허울 좋은 마케팅이 아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금세공 장인 엔리코(Enrico) 다미아니가 1924년 브랜드를 창시한 다음 세상에 선보인 '벨 에포크' 컬렉션이고, 이 이름값을 하듯 오랜 세월이 걸쳐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엄연한 역사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는(rolling) 기능적인 메커니즘 덕분에 한층 더 매력적이다. 시각과 촉각적 희열의 조화가 빛어진다곤 할까. 더욱이 소피아 로렌을 비롯해 샤론 스톤, 틸다 스윈턴, 제니퍼 에니스톤, 기네스 팰트로, 브래드 피트 등 영화배우들에게 애정을 담백 받아온 가나킨 이력이 있기에 브랜드의 정체성도 잘 어울리는 참박궁합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전통에 마냥 기대 게 아니라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컬렉션'이라는 점을 제롬 파비에에는 누누이 강조하며 스스로 벨 에포크 릴 컬렉션의 화이트 링을 낀 손을 내보였다. "성 구분이 없고(gender-free) 포용적인, 동시대성을 반영한(contemporary) 컬렉션입니다. 심지어 '롤링'의 묘미 덕분에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장점까지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도 잊지 말아야겠지요."

1세기 전의 영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벨 에포크 릴'
"엔리코 다미아니는 다분히 예술적 영혼을 지닌 인물이었다. 데, 20세기 초반 파리를 여행했을 때 찬란한 도시 풍경에 매료됐어요. 라디오, 자동차, 영화 등 빠르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문명의 소산에도 폭 빠져들었죠. 이 같은 배경에서 우리는 이번에 특별히 '영화(cinema)'에서 영감을 얻은 새 컬렉션을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팬데믹의 여파로 3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게 되어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한 다미아니의 최고경영자(CEO) 제롬 파비에(Jérôme Favier)가 벨 에포크 릴(Belle Époque Reel)의 탄생 배경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다미아니의 상징과도 같은 벨 에포크 컬렉션이 그동안 그 유서 깊은 자산을 토대로 다양한 라인업을 보여왔지만 이렇듯 완전히 새롭게 진화한 현대적인 창조물을 내놓은 건 거의 1백 년 만인 셈이다. 파비에 CEO의 말처럼 '시네마의 미학에서 영감을 받은 창조물'에 목걸이, 반지, 이어링, 팔찌의 구성을 갖춘 이 컬렉션은 필름의 '릴(reel)'처럼 직각-원형이 반복되는 기하학적 패턴이 눈길을 절로 잡아끄는데, 단지 디자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회전하

다미아니의 새 르네상스를 이끄는 주역들
게다가 이 뜻깊은 프로젝트에서 전반적인 디자인 경영을 진두 지휘한 일등 공신이 다름 아닌 다미아니 가문의 3대 후손 조르지오(Giorgio) 다미아니라는 점도 흥미로운 사실이다. "다미아니는 창업자의 3대손이 경영진으로 참여하면서 여전히 기업을 이끄는, 그리 흔하지 않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세 남매가 휴일에도 같이 시간을 보낼 정도로 친하면서 일에서도 각각의 강점을 발휘하며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거든요." 회장으로 기업을 이끄는 귀도(Guido), 섬세한 감각과 소통력으로 대외적 이미지를 담당하는 실비아(Silvia), 그리고 디자인과 제품 개발 영역에서 남다른 동력을 제공하는 조르지오 등 다미아니 세 남매의 역할은 저마다의 특장점을 토대로 이렇게 나뉜다고. 내로라하는 명품 브랜드를 두루 거친 '럭셔리'인 제롬 파비에에는 다미아니에 2018년 경영 전문가로 합류하기 전 가족 경영 체제에 대해 살짝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가문의 DNA가 제대로 작동될 때는 오히려 "남다른 '시너지'와 '응집력'을 창출하는 것 같다"고 평했다. 실제로 실비아, 칼레로니를 비롯해 무라노 유리공예로 유명

한 베니니 등 여러 브랜드를 거느린 다미아니 그룹의 최근 수년간 성장세는 가히 21세기의 르네상스라고 명명할 정도로 가파른 편이다. 제롬 파비에 CEO는 이러한 상승세에 대해 우선적으로는 브랜드 자체의 경쟁력에 힘입은 것이라 강조했다. "주얼리계의 오스카로 통하는 다이아몬드 인터내셔널 어워즈에서 18차례나 수상했다는 사실이 단적으로 경쟁력을 말해주는 지표일 텐데, 저는 감히 우리가 '럭셔리 산업'이 아니라 '럭셔리 진정성'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에디터 고성연**

1 벨 에포크 릴(Belle Époque Reel) 컬렉션 런칭 행사에 참석해 한국을 찾은 이탈리아 하이 주얼리 브랜드 다미아니(Damiani)의 최고경영자(CEO) 제롬 파비에(Jérôme Favier). **2** 벨 에포크 릴 컬렉션의 네트리스 라인업. 링, 이어링, 팔찌의 구성을 갖추었다. 1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벨 에포크 컬렉션의 찬란한 유산을 바탕으로 하되, 영화의 역동적인 미학에 영감을 받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벨이라는 단어가 나타내듯 필름의 말처럼 스스로 회전하는 메카니즘을 지녔다. 3 벨 에포크 릴 컬렉션 반지를 끼고 있는 파비에 CEO. **4** 벨 에포크 릴 컬렉션의 링 라인업. 다이아몬드, 화이트, 옐로우, 핑크 골드 등으로 구성돼 있다. **5** 지난 12월 초 벨 에포크 릴 컬렉션 행사에 열린 롯데 에비뉴엘 월드타워 2층의 다미아니 매장.



Save your Skin

한번 사용하면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효과, 간편한 사용법을 자랑하는 뷰티 디바이스의 새로운 라인업.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FAQ 스위스 102 핑크 루비** 미세 진류 자극으로 얼굴 근육을 강화해 탄력을 높이고 강력한 고주파가 피부 조직의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얼굴 윤곽을 또렷하게 타이트닝해준다. 81만원. 문의 070-5143-0799 **비디퍼머 스마트 이온 부스터** 이온 기능이 스킨케어의 영양 성분을 피부 속 깊이 흡수시켜 매끈하고 탄력 있게 가꿔주는 뷰티 디바이스. 손가락처럼 작은 사이즈를 통해 눈가, 콧방울 등 극소 부위도 성세하게 케어할 수 있다. 6만5천원. 문의 1644-4490 **실론 페이스타이머 3.0** 고주파와 LED 레드라이트가 피부 진피층에 균일하게 적용해 피부 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며, 울긋불긋한 피부 톤을 고르고 밝게 만들어 매끈하고 화사하게 가꿔준다. 56만원. 문의 080-246-1234 **듀얼스킨 프로세스 세트** 고강도 집중초음파(HFU) 기술로 노화의 근본 원인인 근막층까지 관리할 수 있어 피부에 빠르고 확실한 탄력 개선 효과를 선사하는 뷰티 디바이스 2백65만원. 문의 031-8002-0070 **LG 프라임 에센셜 부스터** 살리코브라시 부분을 사용하면 1초에 35만5천 번의 초음파 미세 진동으로 딥 콜라겐 효과로, 메탈 부분을 활용하면 스킨케어 유성 성분의 흡수를 도와 피부 속 건조를 해결해주는 보습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멀티 디바이스 39만9천원. 문의 1544-7777 **다이슨 에어랩™ 멀티 스타일러** 기계 입력의 차이를 이용해 노출에 따라 리어미가 불어 흐르게 하는 코안다 효과로 잔머리 정리와 스타일링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헤어 스타일링 기기 69만9천원. 문의 080-300-4253 **포레오 UFO 2** 월 핑크 피부 온도를 높여 스킨케어의 유성 성분을 깊숙이 흡수시키는 워밍 타피타. 피부 온도를 낮춰 모공을 조이고 탄력을 높이는 쿨링 타피타 효과를 주며, LED 라이트와 미세 진동이 피부 톤을 밝힌다. 49만7천원. 문의 070-5143-0799 **객원 에디터 김주혜**

NEW for you

새해를 더 탄력 있고
어려진 피부로 맞이하고 싶다면 꼭 갖춰야 할 세 가지.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점점 다양해지는 뷰티 디바이스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어울리는 스킨케어 제품과 함께 하는 것이다. 눈에 띄는 확실한 효과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홈케어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실콘에서 올해 새로운 스킨케어 라인을 선보인다. 고주파와 LED 레드라이트를 이용해 피부 탄력을 높여주는 가정용 인모드 고주파 피부관리기 실콘 페이스타이트 3.0과 함께 사용하기 좋은 것이 특징이다. 먼저 1월에 출시하는 실콘 뷰티 피토 콜라겐 에센스 미스트는 주요 성분인 인바섯에서 유래한 저분자 식물성 콜라겐을 함유해 피부 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며, 아미노산 함량이 풍부해 오래 지속되는 수분 광채를 선사한다. 또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으로 피부 면역 체계를 강화해 건강한 피부를 가꾸는 데도 효과적이다. 세럼 대신 사용해도 무방할 정도로 뛰어난 유효 성분과 효과를 지니고 있어 간편한 스킨케어까지 가능하다. 특히 실콘 뷰티 피토 콜라겐 에센스 미스트는 고주파 젤 대신 활용 가능해 페이스타이트 3.0을 더욱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실콘 뷰티 하이드로 글로우 크림 토너 패드는 부드럽고 보습력 높은 크림 에센스를 듬뿍 담아 관재 나는 피부를 만들어준다. 또 자외선 원사와 3중 레이어의 8cm 빅 사이즈 패드로 피부에 완전 밀착되어 기기 사용 후 간단한 마스크 팩으로도 제격이다. 문의 080-246-1234 에디터 **성정민**

(왼쪽부터 차례대로) 실콘 페이스타이트 3.0 비올라 고주파 에너지(RF)와 LED 레드라이트, 열 에너지(IR)를 HT™(Home Tightening) 기술을 활용해 피부 진피층에 균일하게 침투시켜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는 가정용 인모드 고주파 피부관리기 1502원, 실콘 뷰티 피토 콜라겐 에센스 미스트 기초 스킨케어 단계에서 에센스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미스트로 인바섯에서 유래한 저분자 식물성 콜라겐 성분과 프로바이오틱스 성분, 나이아신아미드와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아데노신 성분으로 주름 개선과 피부 탄력 개선, 피부 보습 효과까지 복합적인 피부 문제를 해결한다. 100ml 3만9천원, 실콘 뷰티 하이드로글로우 크림 토너 패드 3중 레이어의 자외선 원사 제작한 8cm 빅 사이즈 패드가 피부 깊숙히 밀착되어 기기 사용 후 완전 밀착해 부족한 수분을 충족한다. 60매 230ml 3만6천원.

editor's Pick

새해를 맞아 화장대를 재정비할 시간! 엄선한 뷰티 아이템13.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데코르테 페이스 파우더 마르셀 반디스 컬렉션 2022 울트라 울루 반페 리미티드 컬렉션 출시한 데코르테의 스테디셀러. 스킨케어업 마지킨 단계에 T존 위주로 토크 발라주었더니 눈에 띄는 모공과 피부의 착색을 섬세하게 커버했다. 필름 함유해 고글소문 윤기로 자연스럽게 마무리되고, 오랫동안 높은 밀착력을 자랑한다는 것도 장점. 18g X 2ea 29만원. 문의 080-568-3111_by 에디터 **윤지경**

사해 푸주 알루르 발렛 #51 레전타임 한 번만 발라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스펀지 립스틱. 개기가 피그먼트와 진동막 입자가 만나 은은하게 빛나며 오랫동안 밀착되어 오랫동안 립라인을 유지해준다. 허투로 마스크를 벗 땀샘이 새어나오는 것만 막아도 사용감이 좋다. 3.5g 5만2천원. 문의 080-805-9638_by 에디터 **정리은**

글레드보 보메 UV 프로텍티브 크림 N SPF 50+ PA+++ 자외선은 노화의 주범으로 오늘 시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다. 여가에서 자외선 차단제 해 피노모드 고글스 리온 광채를 선사해 인본 자신감을 올려줄 제품인 한편, 이 제품이 바로 그렇다. 쫘쫘한 텍스처가 피부에 은은한 광을 완성한다. 자외선 손상을 막을 뿐 아니라 피부 내·외부 방어력까지 높여준다고 하니, 이보다 더 완벽한 자외선 차단제는 없을 것. 50ml 16만원. 문의 080-564-7700_by 에디터 **성정민**

시사도 알루르 아이 파워 인퓨징 아이 컨센트레이트 III 눈가 피부엔 잘 관려되는 노화의 영향을 피할 수 있다. 시사도의 시그처 라인인 알루르에서 출시한 이 아이 세럼은 알루르 파워 세럼의 10배나 되는 농축된 성분을 담아 은은한 눈가를 집중 케어한다. 가볍고 빠르게 흡수되는 텍스처로 비링용이나 트라를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 15ml 9만8천원. 문의 080-564-7700_by 에디터 **성정민**

달바 인텐시브 보르피린 스프레이 앰플 앰플을 스킨케어 앰플에 곁들여 분사할 수 있어 피부에 더욱 잘 밀착되는 듯한 기분이 든다. 무엇보다 인가 분사 10분마다 여러 번 뿌려도 재빨리 헹가거나 흘러내리지 않고 얼굴에 빠르게 스며들어 끈적임 없이 스킨하게 마무리된다. 또 고함량의 보르피린 성분을 포함해 피부 속부터 치유되는 볼륨을 느낄 수 있었다. 50ml 5만2천원. 문의 070-7714-8428_by 에디터 **윤지경**

시슬리 에멀션 에콜로지컬 어드밴스드 포뮬러 이 제품은 1980년에 탄생해 40여 년 동안 미생물학과 피부 면역학은 두 가지 분야를 집중 탐구하며 발전을 거듭한 제품이다 더욱 신뢰가 간다. 이번에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에멀션 에콜로지컬은 여가 우영과 메도우 스위트 추출물, 두 가지 성분을 첨가했다. 매일 아침 사용하고 있는데, 피부가 한층 밝아진 느낌이 든다. 125ml 3만원. 문의 080-549-0216_by 에디터 **정리은**

조지앙 로르 크림 드 주르 민방해진 피부를 잠재울 무덤 크림을 찾고 있던 날! 만난 제품. 부드러운 제형으로 피부에 자극 없이 부드럽게 발린다. 천연 유농 오가닉 제형으로 예민성분인 호환, 참깨, 로즈우드 오일과 일로베라 잎을 함유해 탱탱한 탄력과 보습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묽은 세럼 2~3점울과 함께 섞어 사용하니 보습력이 더 좋아진 느낌. 50ml 18만2천원. 문의 02-556-0663_by 에디터 **성정민**

바비리 뷰티 아이클레어 모노그렐 컬렉션 리미티드 에디션 평생시 여러 계절을 한번에 쓸 수 있는 세드 필립트를 즐겨 사용하는 편. 바비리의 현대적인 느낌을 더해 메탈릭하고 다채로운 컬러를 담았으며, 이번 한정판 패키지에 적용한 TB 모노그렐과 골드, 실버 컬러가 조화를 이뤄 개인 소장용으로든 기쁘기 있다. 20g 10만원. 문의 080-850-0708_by 에디터 **성정민**

랑콤 레제르지 트리플 세럼 한 비람이 불면사투터 꾸준히 사용하기 시작한 고성능 세럼. 피부에 보습 효과를 주는 크림 텍스처의 하일루루신, 탄력 있는 피부로 가꾸주는 에일린 텍스처의 비아민 C 유도체, 항산화 효과를 발휘하는 젤 텍스처의 페룰릭 산. 이 3가지 활성 성분이 단 한번의 필립으로 필요한 양을 전달하고, 순차적 유에서 부드럽게 섞이며 같이 발랐을 때 사니 효과가 배가된다. 50ml 22만원. 문의 080-022-3332_by 에디터 **윤지경**

얌미의 목욕탕 레시피 삼라십산 트라블 클리어 패드 모공 각질 제거에 탁월한 사과 식용의 피부를 케어해줄 AHA, PHA 성분이 들어 있어 블랙헤드와 각질이 사라지게 갖게 하는 느낌이었다. 앞뒤로 연근 면, 밀착 면으로 이뤄진 7cm 빅 사이즈 듀얼 패드가 부위마다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어 센스 있는 패드 제품. 60매(130ml) 2만8천원. 문의 080-850-1551_by 에디터 **성정민**

구찌 뷰티 어 리즌 투 러브 어전 소원0든 해 누는 이뤄줄 듯한 마법의 모이 같은 밤에 담긴 향수. 구찌의 프로그레스 일케미스트 가든의 신제품 어 리즌 투 러브 오 드 퍼퓸이다. 디아스크 로즈와 우드 향을 조합해 농도 깊은 관능적인 향을 탄생시켰는데, 열성, 활력, 영원이 존재하는 강한 불 등을 연상시켜 주는 강렬한 향이다. 100ml 45만 원. 문의 080-850-0708_by 에디터 **정리은**

수려한 효바담 발효 크림 설토끼 에디션 2023년 계모넨 토기제를 맞아 모던 미화 작가 사해리와 함께 패키지를 강조했다. 리치화지만 바를 때 피부에 씩씩하게 베르 게 흡수되는 사용감이 일품이다. 특히 아침에 사용하면 촉촉함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물론, 약간의 유포이 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 정품 크림 75ml + 더블팩 세럼 15ml 10만8천원. 문의 080-023-7007_by 에디터 **성정민**

벨란트 에콜로지컬 유로피안 페이스 마스크 3분 산소 마스크로 불리는 유로피안 페이스 마스크. 피부 컨디션은 유수분과 노폐물의 양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젤 타입 마스크라 답글만장해주는 동시에 피부 속 수분도 함께 채워준다. 비아민 C와 E가 들어 있어 피부 톤이 밝아진 것 같은 느낌. 118ml 6만8천원. 문의 1644-4490_by 에디터 **성정민**



SHOWROOM

리모와



고든램지버거 시몬스
N32 WEDDING PROMOTION



글렌피딕 글렌피딕 12년 세리 캐스크 피니시 영국 스코틀랜드의 프리미엄 위스키 브랜드 글렌피딕은 신년 모임에서 분위기를 한층 더해줄 글렌피딕 12년 세리 캐스크 피니시를 추천한다. 글렌피딕의 스페셜 에디션으로 출시된 글렌피딕 12년 세리 캐스크 피니시는 에메랄드와 유라피안 오크 캐스크에 12년간 숙성과 추가 숙성 과정을 거쳐 사양배와 청사과의 상큼함에 달콤한 베리, 너트메그, 시나몬의 은은한 스파이시함을 더했다. 글렌피딕 12년 세리 캐스크 피니시는 주오 백화점과 마트, 전문 리큐어 숍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1577-3419

이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리모와만의 텔레스코픽 핸들과 알티 힐 시스템, TSA 승인 잠금장치 등을 적용해 스타일뿐 아니라 기능성까지 갖춰 라기지 이동 중에도 편안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문의 02-2056-2257

시몬스 2023 S/S N32 웨딩 프로모션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가 전국 공식 매장에서 웨딩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3백만원 이상 구매 시 50만원 상당의 케노샤 호텔 침구 세트 1개, 7백만원 이상 구매 시 총 20만원 상당의 케노샤 호텔 침구 세트 1개와 케노샤 사계절 쿠스라이프 이불솜 1종을 추가로 증정한다. 이 외에도 구매 시 증정하는 시몬스 한정 수량으로 선착순 제공하며, 시몬스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서둘러 혜택을 누리보자. 문의 1899-8182

고든램지버거 1966 버거의 최상급 소고기로 구성된 프리미엄 한우 2종 고든램지버거에서 설을 맞아 스타 셰프 고든 램지가 선택한 최상급 1++ No.9 등급의 한우 선물 세트를 선보인다. 최상급 한우 세트와 1966 버거에 들어가는 프리미엄 한우, 총 2가지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요리를 집에서 즐길 수 있다. 문의 02-3213-4797

LIFESTYLE



로로피아나 2022~2023 F/W 캐시퍼 컬렉션 이탈리아의 정인 정신이 깃든 럭셔리 브랜드 로로피아나에서 2022~2023 F/W 캐시퍼 컬렉션을 선보인다. 로로피아나의 시그니처 소재 중 하나인 캐시미어를 대중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한 캐시퍼가 이번 컬렉션에서 주요 소재로 등장했다. 클래식한 레인 부츠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이번 컬렉션의 대표작인 아이템, 리넨트 앵글부츠는 소프트 부분에 천연 숄이까지 적용한 캐시퍼를, 소프트와 밑창이 만나는 부분은 레진을 사용해 견고함을 더했다. 금격히 추워진 날씨에 어울리는 패션 아이템이 고민인 요즘, 순수한 캐시미어의 촉감, 따스하고 포근한 컬러, 디자인과 보온성까지 담은 캐시퍼 컬렉션을 주목해 보자. 문의 02-6200-7719

FASHION



포델라토 다. 이번 전시 기간 동안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전시 관람을 예약할 수 있다. 문의 1877-4128

반들리프 아벨 **쇼베 주드 리앙 하모니 메달리온 컬렉션** 꿈어질 수 없는 아름다운 인연을 가리키는 프랑스어, 리앙, 이러한 의미를 담아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전하는 쇼베에서 아름다운 인연을 간직하고자 주드 리앙 하모니 메달리온 컬렉션을 선보였다. 1780년부터 이어진 리앙 컬렉션은 감성을 전하는 주얼리로서 오랜 전통을 지켜오고 있다. 나폴레옹과 조세핀의 영원한 사랑을 기반으로 애정의 형태에 관해 이야기하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매종의 세계관을 이룬다. 이번 컬렉션은 광채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 중심에서부터 바깥으로 섬세하게 세팅해 눈부신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다. 문의 02-3442-3359



포델라토 베네디타 포르카롤리와 함께한 캠페인 공개 새로운 럭셔리 브랜드의 선구자, 포델라토에서 이탈리아 영화계의 신예, 베네디타 포르카롤리가 참여한 캠페인을 공개했다. 이번 캠페인 영상 속 포르카롤리는 낮과 밤을 모티브로 자유롭게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며, 함께 착용한 누도 컬렉션과 이코나가 컬렉션이 그녀의 패셔너블하고 시크한 스타일과 함께 아우라져 포델라토가 그려낸 멋진 여성성과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선보였다. 문의 02-3143-9486

리도 트루 스퀘어 오픈 하트 정사각형의 하이테크 세라믹 시계 제작으로 명성을 얻은 워치메이킹 브랜드 리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트루 스퀘어 오픈 하트' 워치를 블랙과 화이트 버전으로 선보인다. 트루 스퀘어는 시그니처 향대를 새롭게 해석한 최초의 라도 시계로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 탄생했다. 사각형 시계 중심부에 라도 칼리버 R734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해 기능을 다하고 80시간 파워리저브 기능으로 실용성까지 갖추었다. 새로운 시적을 함께하는 1월, 사랑하는 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라도 트루 스퀘어 오픈 하트 워치와 함께 기념해보자. 문의 02-3149-9555



반들리프 아벨 사람의 다리에서 마주하는 시인의 서사시 프랑스 하이 주얼리 & 워치 매종 반들리프 아벨에서 오는 1월 8일부터 28일까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 이트홀 1관에서 워치메이킹 이벤트를 선보인다. 시공, 예술, 꿈, 그리고 자연의 상징이 어우러진 매종의 대표작인 컬렉션을 다채롭게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42-3359

JEWEL & WATCH



샤넬 뷰티 N°1 DE CHANEL 레드 캐펠리아 리치 크림 매서운 겨울 속 강인한 생명력을 꽃피우는 레드 캐펠리아. 샤넬에서 이곳의 에너지를 담은 새로운 리치 크림을 선보인다. 이번 신제품의 주요 성분, 세라미이드는 피부 장벽을 강화해 수분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추운 날씨로부터 피부 속까지 보호해준다. 매서운 겨울바람으로 건조해지기 쉬운 요즘,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레드 캐펠리아 리치 크림과 함께해보자. 문의 080-805-9638, chanel.com

라프래리 플레타늄 레이 컬렉션 스위스 럭셔리 스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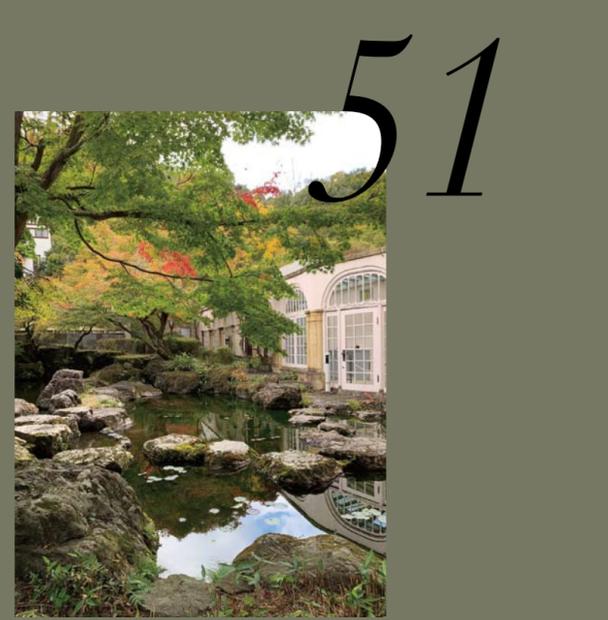
케어 허우스 브랜드 라프래리에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최상위 럭셔리 라인 '플레타늄 레이' 컬렉션을 제안한다. 영원한 아름다움의 비밀에 대해 연구했던 폴 리앙스 박사의 혁신적인 연구와 끊임없는 노력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라프래리의 독자적인 셀룰라 콤플렉스와 플레타늄의 에너지를 담은 플레타늄 레이 컬렉션은 피부에 새로운 생명력과 에너지를 채워 생기는 본연의 피부를 경험할 수 있다. 전국 백화점 라프래리 매장과 온라인 전용 뷰티점(laprairie.com)에서 구매 가능하다. 문의 02-511-6626

BEAUTY

ART + CULTURE



42



51



54



47

GLOBAL VOYAGERS

세상을 이어주는 국경을 매물차게 차단했던 빗장이 점차 풀리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네 디지털 유목민들은 다시 여행을 향해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금 길을 떠나는 우리의 여정은, 아직 여러 제약이 도사리고 있는 관계로, 어쩌면 물리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예전에 비해 불편하고 힘들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하던 암흑기를 겪은 대다수는 다시 찾아온 이 여행의 기회를 보다 소중하고 의미 있게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니 그보다 더 가까운 과거에도 멀리 떠나는 여행이나 장기간 머무는 체류 자체가 극소수만 누리는 특권이었던 시대가 존재했음을 상기하게도 되네요. 물론 자신을 둘러싼 배경이나 처지와 상관없이 타지에 가서 익숙한 듯 다른 사물과 풍경을 접하고 기술과 지식을 습득한다는 건 분명히 도전입니다. 자의든 타의든 스스로의 정체성을 고민하게 되고 때때로 틀을 벗어나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테니까요. '여행이란 우리가 사는 장소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바꿔주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말입니다. 이번 (스타일 조신일보) 'Art+Culture' 겨울 스페셜호에서는 일찍이 세상 밖으로 뛰어나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글로벌 코즈폴리탄' 같은 궤적을 그리며 치열하던 서도 생기 있게 살았던, 혹은 그런 여정을 여전히 밟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을 지면에 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개척자가 될 필요는 없겠지만, 저마다의 호호로 세상을 누비는 나그네들이 일으키는 창조적 변화를 지켜보고 응원을 보내는 일도 흥미로운 삶의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요? 글고성연(아트+컬처총괄 디렉터)



1 백남준, '비디오(재현된)가족사진(1984)', 종이에 예칭, 29.7x37.5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2월 26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열리는 '백남준 효과'에서는 국외에서 처음으로 전시되는 백남준의 유년 시절 사진도 살펴볼 수 있다. 당시 아바-리 개인으로 장안 여신들도 남상 복장을 입고 찍은 가족사진에서 유래하여 독특한 기법이 적용된다. 2 '코넬리 시계', 한국으로의 여행(1984), 단채널 비디오, 컬러, 시운드, 9분, EAI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백남준의 아내 구스타 시계라는 3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백남준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로 제작했다. (C) '다익선' 출가운 합안에서 2월 26일까지 관람 가능하다. 3 '백남준, M200(1991)', 330 X 960 X 500cm, 86개 TV 세트, 1개 컴퓨터, 두 손잡이 지팡이, 4 'MS-올림피아스(오림피아 7번)', © Erik Andersch, 백남준아트센터 제공. 5 '오래된 크리스마스', © Peter Moore, 백남준아트센터 제공. 생애이전을 일으켰던 백남준과 그의 예술적 파트너 상의 무언, 4 'TV 부처', © René Block, 백남준아트센터 제공. 7 'TV 팔레타(비디오의 고교학)', © Manfred Montwé, 백남준아트센터 제공.

우 리 들 의 백 남 준



YETTO DISCOVER

'백남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수식어로는 '비디오아트의 아버지', '동양에서 온 테러리스트', '과짜이자 천재 아티스트' 같은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20세기 중반 헤성처럼 등장한 뒤 파격적인 행보로 해외 예술계에 먼저 이름을 알린 백남준(1932~2006)이 34년 만에 조국을 방문한 1980년대 한국은 사회적, 문화적 변환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고도의 경제성장을 일군 한국은 최초의 대규모 글로벌 행사인 '86아시아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연달아 개최하며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다지기 시작합니다. 전에 없던 경제적 부흥기와 더불어 세계화와 정보화의 물결을 누리며 새로운 소비 계층으로 떠오른 중산층과 자유분방한 청년들이 음악과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빠르게 유입된 서양 문화를 향유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당시 미국과 유럽에서 큰 성공을 거둔 스타 아티스트라는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별안간 등장한 독특하게 그지없는 인물이 백남준이었습니다.

2022년은 17년 전 세상을 떠난 백남준의 탄생 9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고, 행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백남준아트센터에서는 '마르코 백남준' 등의 전시를 개최하고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시스템 제플(1993)' 등 백남준의 대규모 미디어 설치 작업을 만나볼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울산시립미술관에서는 미술관의 첫 소장품이기도 한 '거북(1993)'을 전시한 탄생 90주년 특별전 '땅의 아바타, 거북'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서울의 두손갤러리는 30년 만의 재개관을 기념하며 백남준의 대작 'M200(1991)'을 선보였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는 미술관의 로툰다에 높이 솟아 있는 '다익선(1988)'의 역사적인 재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가동이 완전히 중단된 지 4년 만에 이뤄낸 성과였지요. 재가동을 기념하며 열린 '다익선: 즐거운 협연'과 '백남준 효과' 전시는 2월 26일까지 과천관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꾸준히 이어져온 백남준에 관한 연구는 아직 현재진행형입니다. 우리는 그가 남긴 작품들과 텍스트 외에도 살아생전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기억을 수집하고 돌아보며 그의 작품 세계와 삶, 인간적인 면면에 대해 여전히 알아가는 중입니다. 위대한 예술가라는 당연한 사실은 차치하고라도, 백남준은 그 시대가 낳은 최고의 아웃라이어 중 한 명이었음에 의심할 여지가 없는 듯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임두도 내지 못할 담대한 작업 스케일과 미래를 내다보는 남다른 혜안을 지니고 있었으며, 당대 여러 분야에서 주목받던 예술가, 기술자와 유례없는 창조적 협업을 펼치며 유럽과 북미 예술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다져갔습니다. 독일, 일본, 미국 등 세계 각지를 떠돌았던 그의 삶에서 여전히 간직하고 있던 한민족의 정체성을 작업에도 녹여내며 묘하게 애국심마저 불러일으켰던 그. 만약 과거에 지금처럼 '현류'라는 이름으로 K-문화 열풍이 불었다면 그 추억은 백남준이 아니었을까요? <스타일조선일보> 지상(紙上) 전시에서는 백남준이라는 걸출한 크리에이터의 탄생 90주년을 계기로, 작업만큼이나 흥미로웠던 인간 백남준을 오늘날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글 김연우(독립 큐레이터) 기획 김연우, 고성원

Exhibition Concept 고성원



초국가적 스케일의 개척자 COSMOPOLITAN PIONEER

● 종종 기행으로 세간의 눈총을 받기도 하지만, 자율주행 전가치를 생산하는 테슬라와 항공 우주 기업 스페이스 X를 운영하며 세상의 판도를 바꿔놓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남다른 행보를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지상에 별도의 인터넷 선을 깔 필요 없이 지구 밖 인공위성으로 구축한 통신망을 이용해 지구상 모든 지역에 광대역 인터넷을 제공한다는 초국가적인 발상도 놀라운데, 이미 수천 개의 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려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이처럼 담대한 스케일의 상상을 실행에 옮긴 사람이 있다. 무려 1980년대에 '위성 오페라 3부작'이라는 지상 최대의 인공위성 중계 쇼를 기획하고 성공적으로 펼쳐낸 백남준이다.

●● 1984년 1월 1일 정오(EST)에 발표된 '굿모닝 미스터 오웰(1984)'은 미국과 프랑스 방송국의 조정을 통해 인공위성으로 연결해 양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퍼포먼스를 뉴욕(미국), 파리(프랑스), 서울(한국) 등 세계 여러 도시에 생중계한 전대미문의 쇼였다. 현대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존 케이지(John Cage)의 연주와 함께 요셉 보이츠(Joseph Beuys)의 퍼포먼스, 머스 커닝햄(Merce Cunningham)의 탱고가 펼쳐졌고, 파리의 패션 그룹 슈투디오 베르코에서는 패션쇼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록 밴드 오잉고 보잉고(Oingo Boingo)가 공연을 선보이며 등 대중문화부터 전위예술에 이르는 당대의 유명 가수, 댄서, 예술가 등 30여 팀, 1백여 명이 출동했다. 무려 2천5백만 명의 시청자를 기록한 이 '위성 오페라'는 매스미디어와 TV로써 시공간을 뛰어넘는 소통이 가능케 하는 새로운 표현 수단임을 증명하며, 기술과 미디어로 인한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그린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소설(1984)가 예견한 암울한 미래의 모습에 유쾌한 반론을 제시했다.

●●● 그로부터 2년 뒤, 영국의 소설가 러디어드 키플링(Rudyard Kipling) 사망 50주기에 발표한 후속작 '바이 바이 키플링(1986)'에서 백남준은 다시 한번 "동양과 서양은 절대 어울릴 수 없다"는 키플링의 주장에 반기를 든다. 서양 음악의 클래식 연주와 한국의 가요 연주, 서양의 타악기 연주와 한국의 사물놀이 화면 등 동서양의 요소가 뒤섞인 바이 바이 키플링은 한국, 일본, 미국에서 생중계되었다. 대망의 마지막 편은 88 서울올림픽을 기념해 제작한 '세계와 손잡고(1988)'로, 세계 11개국을 연결하는 이 대규모 위성 프로젝트가 쏘아 올린 방송에는 같은 날 국립현대미술관의 중앙홀에서 가동을 시작한 '다익선'의 모습이 처음 등장하기도 했다. '다익선' 앞에서 사물놀이가 벌어지는 동안 사카모토 류이치(Ryuichi Sakamoto)와 마스 카우헴,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 등이 세계 각지에서 공연을 펼쳤으며, 중국에서는 쿵푸, 브라질에서는 카-발 축제가 열렸다. 지금까지 인터넷이 상용화되기 이전, 전 세계 시청자 5천만 명이 가상의 시공간에서 연가하는 대담한 발상과 융합적 사고는 그저 놀라울 뿐이다.



백남준, '세계와 손잡고(1988)', 단채널 비디오, 컬러, 시운드, 47분, EAI 소장,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백남준, '굿모닝 미스터 오웰(1984)', 스틸 편집 컷, 백남준아트센터 제공



기술로 실현될 미래를 꿈꾸는 예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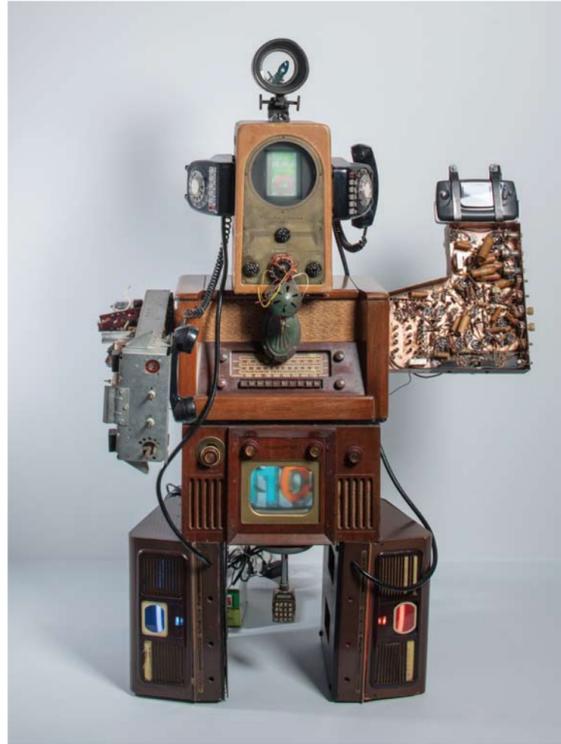
INNOVATIVE VISIONARY

“언젠가 작가들은 오늘날 붓, 바이올린, 고물로 작업을 하는 것처럼 콘덴서, 저항기, 반도체로 작업을 할 것이다(Someday, artists will work with capacitors, resistors, and semi-conductors as they work today with brushes, violins, and junk).” _백남준(1965)

● 백남준은 TV를 직접 매체로 사용하면서 보다 본격적으로 텔레비전과 관련된 기술을 익히고자 1960년대 초 일본으로 떠난다. 당시 소니, 파나소닉 등의 브랜드로 대표되던 전자 기술 강국인 일본에서 신기술을 배우고자 했던 것이다. TV의 내부 회로를 조작해 영상을 편집하는 기술을 독학으로 깨우칠 만큼 명석했던 백남준은 일본에서 기술적 스승이자 긴밀한 협력자인 공학자 이베 슈이를 만나게 된다. 일본의 TBS 방송국에서 전기 기술자로 일하던 이베 슈이는 백남준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 작업을 개설했고, 두 사람의 협업은 백-이베 비디오 신디사이저(1969)를 탄생시켰다. 백-이베 비디오 신디사이저는 TV에 송출되는 영상을 파는 2천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왜곡, 합성, 채색 등의 효과를 인입할 수 있고, 방송국 장비 없이도 누구든지 영상을 편집할 수 있게 하는 최초의 비디오 영상 처리기였다. 백남준은 기계를 발명하며 누구나 어디에서든 영상을 촬영해 편집하고 방송할 수 있도록 비디오가 보편화되는 날이 올 것이라 예견했는데, 이는 마치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영상을 촬영하고, 개인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 등의 플랫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현재를 내다본 것만 같다.

●● 1974년 록펠러 재단의 뉴미디어 작가 지원 프로그램에 백남준이 제출한 보고서 (후기 산업사회를 위한 미디어 계획에서 그는 전자 초고속도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다가올 미래의 인터넷 환경을 암시한다. 그리고 그의 아이디어는 월드와이드웹(WWW)의 출현으로 1990년대 들어 실현되었다. 당시 미국을 순회했던 <The Electronic Superhighway: Travels with Nam June Paik(1994-1997)> 전자에서 백남준이 선보인 전자 초고속도로(1995)는 미국 대륙의 형태를 이루는 3백36대의 TV 설치물에 네온 조명으로 대륙 전체에 뻗어 있는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형상화한 작업이다. 미국의 대산 주기가 시작되는 아이오와주 위치의 화면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이전 영상이, 캔자스주 위치의 화면에서는 <오즈의 마법사>가 상영되는 등 각 주에 해당하는 문화를 반영해 현재까지도 정보화 시대 미국 문화의 아이콘과도 같은 기념비적인 작업으로 여겨진다.

●●● 백남준아트센터에서 3월 26일까지 열리는 <백남준의 보고서 1968-1979>는 전자 초고속도로를 누비는 미래 시대를 대변하는 해커 뉴비(1994) 등의 미디어 조각과 백남준이 생전 작성한 보고서들을 통해 시대의 변화를 포착하는 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전시다. “누구나 손에 TV를 들고 다니며 전자 초고속도로를 통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백남준의 말은 오늘날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무게가 20kg 가까이 나가는 최초의 휴대용 컴퓨터가 1975년에 출시되었는 사실을 되짚어보면 불과 1년 전에 나온 그의 주장이 당시에는 얼마나 공상과학에 가까운 발상이었는지 실감할 수 있다. 만약 그가 지금 시대를 살고 있다면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어떤 모습을 예상했을까 궁금해진다.



백남준, 해커 뉴비(1994), photo by Jungho Jung © Nam June Paik Art Center



Nam June Paik, 'Electronic Superhighway: Continental U.S., Alaska, Hawaii'(1995), fifty-one channel video installation(including one closed-circuit television feed), custom electronics, neon lighting, steel and wood; color, sound, Smithsonian American Art Museum, Gift of the artist, 2002.23, © Nam June Paik Estate



보존·복원 완료 디다익션(2022) © 2022, 우중역,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위)1988년 초 진행된 디다익션 건설 공사.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 소장, (아래) 2022년 초 디다익션 시공기 중 당시의 모습.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CONVERGENT LEADER

● 백남준은 인간적인 매력과 흥미로운 작업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사회가 기술이 다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를 아웃사이더로 여기고 있었다지만, 연주하던 바이올린을 부수고 싶었던 구두를 벗어 뭉쳐 마음 마시는 독특한 퍼포먼스라든지 절고 아름다운 첼리스트 신희 무어안과의 신체이(세살한 파티) 취임을 보면 퍼스널 브랜딩의 요체를 꿰뚫는 듯 비범한 쇼맨십과 사회성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자신의 재능을 함께 뛰어넘어 이룬 것만으로도 이 같은 매력과 카리스마는 동양에서 온 낯선 아티스트가 타국의 예술계에서 인지를 다져 나가는 데 큰 보탬이 된다. 얼마 전 대규모 백남준 회고전이 열린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의 미디어 아트 큐레이터 루돌프 프링클에 따르면 “백남준을 만난 사람들은 ‘백남준이 얼마나 특별한 성격인가, 얼마나 활기찬 예술가인가’라고 말하곤 했다”며 “그는 일을 성사시키고 사람들을 활기치게 하는 자질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아내 구보리는 백남준에게 팬데믹을 보낼 정도로 그를 연애했다고 하며, 백-이베 신디사이저의 협업자 이베 슈이는 가족이 있는 일본을 뒤로하고 백남준을 따라 미국으로 가는 비행에 이들을 서로에게 소개해준 사람이 나중에 이베의 가족에게 소개해주기까지 했다고 전해진다. 그뿐만아, 전 세계의 수많은 예술가들이 백남준의 기획에 워싱 오페라 3부작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일에 동참하고 작품에 가까이 참여했다.

●● 그의 작업에서는 예술가 동료들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전문가, 기업, 국가 차원의 협업 또한 두드러진다. 백남준은 88 서울올림픽에 맞추어 개관을 앞두고 있던 국립현대미술관의 중앙홀에 놓을 거대한 작업을 구상하던 중 텅 빈 램프에 수백 대의 TV를 기념탑처럼 쌓아 올린 역대 최대 규모의 비디오아트 작업을 떠올린다. 바로 얼마 전 3년간의 복구 작업을 마치고 조심스럽게 재가동을 시작한 디다익션의 아이디어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18m 높이로 천장을 향해 높이 솟아 있는 1천3대의 TV 모니터 화면을 화려하게 밝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위용을 자랑하는 디다익션은 결코 백남준 혼자서 만들어낼 수 없는 작업이었다. 디다익션은 1천 대가 넘는 TV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줄 기업, 구조물 설계를 맡아줄 건축가, 기술적인 부분을 실행해줄 테크니션, 모니터에 상영될 영상의 소프트웨어 제작자, 작품을 모니터링하고 운영하는 관리인, 예산 확보와 설치를 총괄할 기계 기사 등의 수많은 관계자가 2년 동안 미국과 한국의 시차를 넘어 협력해서 탄생시킨 창조적 융합의 소신이다.

●●● 디다익션의 재가동을 기념하며 열린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의 <디다익션: 즐거운 협업>전은 그동안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아카이브 자료를 바탕으로 디다익션 작품 제작과 설치, 유지를 위해 진행한 많은 사람과의 협업을 재조명하는 동시에 세상을 떠난 백남준을 새롭게 해석하는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을 통한 즐거운 협연을 엿볼 수 있다. 30년 남게 운영되며 수많은 수리와 복구를 거친 디다익션의 재가동은 앞으로도 그가 남긴 작업을 보존하고 지켜가기 위한 또 다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융합적 협업의 범주에는 그가 남긴 귀중한 유산을 향유하는 관객들의 역할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자.

가장 한국적인 것을 세계적으로
STRATEGIC COMMUNICATOR

- 독일, 미국, 일본 등 세계 각지를 떠돌던 노매드의 삶을 살았고 국적도 여러 차례 바꾼 백남준에게 사실 한국은 태어난 곳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어쩌면 그의 생애서 그리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한국형 디지털 사원이라 불릴 정도로 백남준의 작업에는 고국에 대한 애정과 한국적인 요소가 스며들어 있다. 특히 무속 신앙을 믿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백남준은 한국의 무속 문화와 사마니즘에 남다른 관심과 자부심을 품고 있었다. 그는 신과 인간을 이어준다고 믿는 무속 신앙이 미디어와 텔레비전보다 앞서 등장한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이라고 여겼다. 프리드리히 쉐겔스의 고향인 독일 북파탈(Wuppertal)에 자리한 파르나스 갤러리에서 연 자신의 첫 개인전 〈음악의 진시 - 전자 텔레비전〉(1963)에서 백남준은 전통적인 화생 재물인 상징과도 같은 소의 머리를 전자장 입구에 설치했다. 작가로서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여는 첫 전시회 피카 흐르는 소 머리를 걸어둔 것이다. 후자는 이를 기리켜 동사양 신화에 20세기 새로운 신화인 디지털 세계를 콜라주한 세계 최초의 전시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 사마니즘에 관한 관심사를 함께 나누는 또 다른 가장 요셉 보이스의 시기 4주기를 기념하기 위한 퍼포먼스에서 백남준은 이에 스스로 무당으로 분해 진짜 굿판을 벌인다. 1990년 서울 현대회랑(갤러리 현대)에서 열린 '요셉 보이스를 위한 진혼곡'(1990)이라는 퍼포먼스였는데, 보이스를 떠올리게 하는 시진과 소풍은 물론이고, 노트를, 담뱃대 같은 한국 굿에 쓰이는 오브제, 피아노와 요강 같은 언뜻 어울리지 않는 오브제 등이 여기저기 놓여 있는, 마치 동사양의 콜라주 같은 굿판이었다. 또 가족의 성우 공장이 있던 서울 중상가의 이름을 딴 사당 형태의 작품 〈종교 차점〉(1991)에서는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있는 백남준의 어린 시절 사진이나 조부의 사진, 영상 등을 벽에 부착하고 바닥에 노트를 펼쳐놓았는데, 조상 숭배의 전통인 제사상을 연상시킨 대벽 구조를 한데 놓여 있는 익숙한 시멘트 중절모 역시 보이스를 상징한다).

- 이 범상치 않은 인물의 기행과도 같은 업적이 알려지면서 한국에서는 와우환과 신기함이 뒤섞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현재 스타의 출현을 크게 반겼다. BTS가 빌보드 차트를 강타하고, 국내 드라마와 영화가 세계적인 권위의 상을 휩쓸 정도로 K-문화가 강세인 지금과는 달리 당시에는 그 밑으로 반향으로 여겨지는 동양의 작은 나라 출신이었으니 말이다. 마치 이러한 정서를 꿰뚫고 있듯, 백남준은 각종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35년 만의 귀국 당시 인터뷰(1984)에서 "왜 조국을 놔두고 외국에서만 활동합니까?"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한국의 문화를 수출하기 위해 세상을 떠도는 문화 상인입니다." 우리 문화에 대한 그의 애정이 깃든 대작 가운데 삼장생 중 하나로 신성하게 여겨지는 동물인 거북을 주제로 한 대형 미디어 조각 '거북이 있다(울산미술관 소장), 백남준의 이름을 크게 알린 TV 작업의 연장선에 있는 대표작으로 독일 베를린의 국제아트비엔날레(IFA)에서 처음 공개됐는데, 1993년은 백남준이 베니스 비엔날레에 독일관 작가로 참여해 '시스템 재플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가장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시스템 재플로' 시스템 상태에 있는 미첼펠로의 창작화 '전자침초'에서 영감을 받은 사형제 폐기론 속 '하늘을 의미한다', '거북은 동양적 세계관인 땅으로 대변된다. 총 1백66대의 TV으로 이뤄진 거북은 머리부터 꼬리까지 이어지는 웅장한 자태와 스케일가로 10m, 세로 6m)로 단번에 관람객을 강탈하게 압도한다.



백남준, '거북'(1993), 울산미술관 소장. Photo by SY Ko 울산미술관의 개관 준비 과정에서 수집된 1호 소장품인 백남준의 '거북', 1백66대의 텔레비전 스크린에서 빠른 속도로 번갈아가며 상영되는 영상 콜라주가 비디오아트트의 백미를 보여주는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힌다.

※ **이우환**
구본기, 신기림, 박흥수, 노보희(백남준) 이비엔, 2016.
백남준, '백남준: 백남준의 시스템'(1968), 미술사 연구회, 서울현대미술관, 2016.
김홍희, '이우환: 이우환 백 - 백남준, 이우환, 백남준, 이우환', 대전문화재단, 2007.
백남준, '이우환: 이우환 백 - 백남준, 이우환, 백남준, 이우환', 대전문화재단, 2007.
백남준, '이우환: 이우환 백 - 백남준, 이우환, 백남준, 이우환', 대전문화재단, 2007.
백남준, '이우환: 이우환 백 - 백남준, 이우환, 백남준, 이우환', 대전문화재단, 2007.
백남준, '이우환: 이우환 백 - 백남준, 이우환, 백남준, 이우환', 대전문화재단, 2007.
백남준, '이우환: 이우환 백 - 백남준, 이우환, 백남준, 이우환', 대전문화재단, 2007.
백남준, '이우환: 이우환 백 - 백남준, 이우환, 백남준, 이우환', 대전문화재단, 2007.
백남준, '이우환: 이우환 백 - 백남준, 이우환, 백남준, 이우환', 대전문화재단, 2007.



큰돌 하나가 저기, 정원에 있다
옛날, 하늘 한 조각이 땅에 추락하고
안으로 조금씩 조금씩 응고되는 듯했다
...
돌은 슬며시 하늘이 된다
...
수억 년이 흐른다.
나도 모르겠어, 돌이 된다. 이우환, 돌, 2022(프랑스어 번역, 심은록)



이우환(李禹煥)

이 글의 제목 '이우환'은 도쿄 국립신미술관(国立新美術館, The National Art Center, Tokyo, 2022, 8. 10~12. 7)에 이어 고베에 있는 효고현립미술관(兵庫県立美術館, Hyogo Prefectural Museum of Art, 2022, 12. 13~2023, 2. 12)에서 진행 중인 작가의 회고전 제목이다. '숲속의 미술관'으로도 불리는 국립신미술관의 개관 15주년 기념전이었고, 고베의 순회전도 효고현립미술관의 개관 2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인데, 딱히 이를 설명하는 부제가 없다. 수년 전부터 때때로 그의 개인전, 그와 관련된 글의 제목은 '이우환'이라고만 표시된다. 그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이 이름 석 자로 충분하다는 뜻이다. 특정 국가나 지역, 예술에 묶이지 않으려고 애쓰며 떠돌이처럼 살아온 이우환의 존재는 이제 지구촌 곳곳에서 이름만으로도 존재감을 뽐내내는 '글로벌 작가'다.

전장(戰場)에서

자연해 일본 도쿄에 있는 국립신미술관에서 4개월에 걸쳐 성황리에 열린 (이우환)전은 지난 1960년대 말부터 최근 작업까지 아우르는 전시였다. 그가 직접 기획하고, 회화와 조각 등 6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사실 작품이 몇 점 출품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단 10점으로 그 넓은 베르사유 정원(Lee Ufan Versailles)전, 2014, 6~11) 전체를 울리는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우환)전은 어느 한 작품이 특별히 강조되'보다 작품이 건물과 다른 작품들과 균형을 맞춰 선보인다. 모노하의 성격이 강한 초기 작업에는 '목력성, 부정성, 이동성' 등이 보이고, 1970년대 중반까지는 '트락의 사용이 종종 보인다. 이후에도 가끔 트락이 보이나, 공간과 사물, 자연과 산업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조각 작품인 '관계항(Relatum)'과 밀해질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을 제시하는 회화 작품 '대화가 꾸준히 등장하고, 베르사유 전시 이후에는 건축적인 요소가 한층 두드러졌다. 그는 '작품이 단순한 정보나 수많은 개념으로 잠멸되기보다는 여백의 울림을 신체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한다. 한시대가 디지털 시대에 이미 오히려 그는 더욱더 고집스럽게 신체를 주선한다. 그는 관람객이 작품에서 '낯설과 신선함을 느끼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공간이나 여백을 통해, 일상에서 조금이라도 벗어 나'를 바란다. 이 전시는 이제 무대를 옮겨 일본 간사이 지방의 고베시 효고현립미술관(兵庫県立美術館, Hyogo Prefectural Museum of Art, 2022, 12. 13~2023, 2. 12)에서 이어지고 있다. 미술관은 이우환이 1960년대 말 '모노하(物派)의 선형이 되었다고 소개한다. 그는 모노하의 이론적 바탕을 구축하고, 이를 세계적으로 알리기까지 고군분투하며 '모노하를 '이르테 포베라나 '랜드아트' 등의 미술 운동과 같은 위상으로 올려놓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그가 타국인이었기에 일본에서 철두, 작대기와 비판을 감수해야 했던 게 사실이다. 우뚝 섰음에도 그는 여전히 '전장(戰場)인 미술계에 있다. 그러나 더 힘든 전장은 아니라하게도 그의 고국 명일지도 모르겠다. 이우환은 모노하뿐 아니라 한국에서는 단색화의 성립에 이바지했다. 한 작가가 이처럼 두 나라에서 다른 경향의 미술 그룹을 세우는 데 공헌한 경우는 많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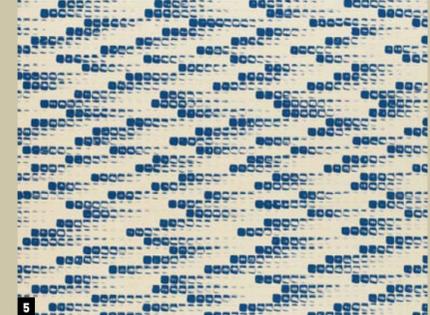
모노하와 단색화

한국의 현대미술은 자리매김을 확고히 한 중국과 일본과의 경쟁 구도와 베트 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가 치고 올라오는 경계에 있다. 서구 미술계에 처음으로 단색화가 알려졌다. 그러나 세계 미술사에서는 단색화가 아직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로는 캄캄타, 마케팅, 국가적 후원, 뛰어난 젊은 작가들의 발굴 등 여러 가지 틀 꺾을 수 있었지만, 여기서의 자연의 한계로 미학적, 미술사적 평가와 정렬에 대해서만 약속하고자 한다. 이는 이우환이 "예술을 하는 데 엄청난 뒷받침이 된 요소 중 70%가 인문학적 소양이었다"라

1 Relatum-Dwelling(III)(2017), stone, collection of the artist, installation view: Lee Ufan chez le Corbusier - Au-delà des souvenirs, Couvent de La Tourette, Évieux, France, 2017 © Fondation Le Corbusier, photo: Jean-Philippe Simard. 2 Relatum(1968/2019), stone, steel, glass, Mori Art Museum, Tokyo, photo by Kei Miyajima 3 Landscape I, II, III(1968/2015), spray paint on canvas, 218.2 X 291cm, private collection, deposited at The Museum of Modern Art, Gunma, installation view: Lee Ufan: Time, Centre Pompidou-Metz, Metz, France, February 27-September 30, 2019 ©ADAGP, Paris, 2022. ©Centre Pompidou-Metz / Photo Origins Studio 4 From Line(1977), Japanese pigment and glue on canvas 182 X 227cm,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Tokyo. 5 From Point(1977), Japanese pigment and glue on canvas, 182 X 227cm,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rt, Tokyo.



4



5



#일본 순회전 메인 포스터

세우는 것과 사그라뜨리는 것
부득이하게 사전을 켜야 할 때 이우환은 어색하게 서 있거나, 기쁨은 습관적인 자세인 듯 돌 위에 편히 앉는다. 후자의 모습에서는 이 글 도입부에 인용한 그의 시처럼 돌이 풍경이 되고(차경) 그가 풍경의 일부가 된다(자경). 그의 **#일본 순회전 메인 포스터**는 빛선 구도로 관람객을 당황시키며, 작가의 또 다른 심경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등을 돌리고 나무를 매진하고 있다. 그가 해석한 하이데거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예술가는 앵을 써서 예술 작품을 일으켜 세우려고 한다. 자연은 이를 무너뜨려서 자연으로 되돌리려고 한다. 세우려는 것과 사그라뜨리려는 것과 겨루는 데 작품이 있다." "이제는 세우는 것에 등을 돌리고 '사그라뜨리는 것과 손을 잡았다. 심은록(영의의 예술, 이우환과의 대화 그리고 선택)"

글 심은록(Sim Eunlog) MetaLab 연구원 · 미술 비평가



‘페이’와 ‘축제’ 사이에서 꿈틀거리는 도쿄의 아트 신

많은 이들이 미술을 감상하고 작품을 소장하는 일이 ‘다른 세상’, ‘남의 리그’ 얘기 같다고 하지만, 도시나 국가 차원에서 보면 그 꺾은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 굳이 ‘소프트 파워’나 ‘문화적 헤게모니’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특정 미술관이 한 해에 1백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건 엄청난 사실이지 않은가(팬데믹이 잠시 꺾방꾼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이렇듯 예술이 어떤 도시나 국가의 브랜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가시적으로 보일 정도로 막대하기에 저마다 도심에 미술관과 콘서트장을 짓고, 대승적 차원에서 예술가를 지원한다. 잠재력이 큰 아시아 시장에서도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듯하다. 아시아 도시에서만 열리는 연간 행사 일정만 봐도 숨이 막힐 정도니 말이다. 그 가운데 차츰 동시대 미술 생태계에서 눈에 띄는 변화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일본 도쿄를 살펴들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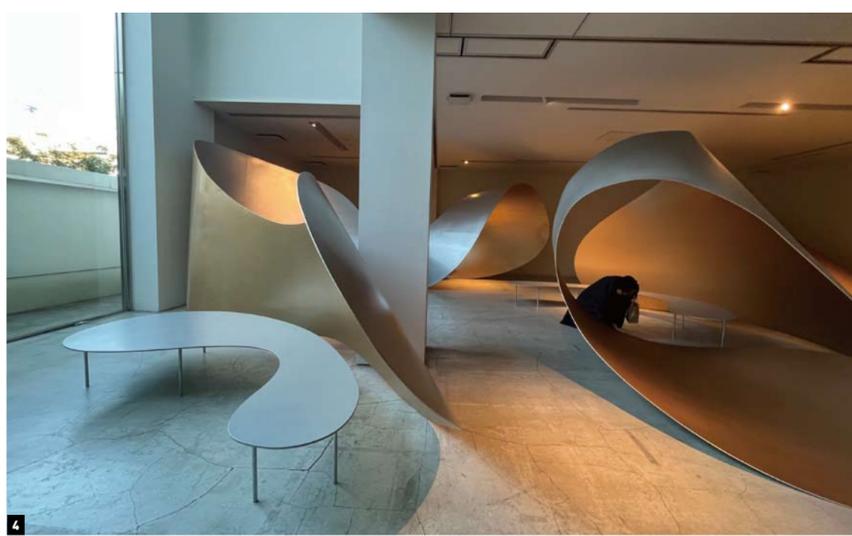
“우리 애도 그 정도는 셋씩하고 그러겠다. 아니, 나도 선은 잘 그을 수 있어.” 예술계에 몸담고 있는 이들이 이 분야에 별다른 관심이나 배경이 없는 비(非)예술계 사람들과 우연히 담소를 나누게 되면 기막을 듣는 농담 섞인 말이다. 누군가의 눈에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고(高)에 가대되는 미술품을 기꺼워 허를 찔끔 쳐다본다. 그래도 미술 시장의 자연이 넓어지면 덕분인지 이제는 단색화 뉴스를 신중하게 취재하고, 핫한 전시 소식을 거론하며, 어떤 작가의 작품이 투자 가치가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이들이 많아졌다. 지난 해에 이런 주제의 화제성이 더 크게 와닿았다면 그건 분명 ‘프리즈(Frieze)’ 효과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난 9월 초 우라나리 문화 예술계를 뜨겁게 달군 프리즈·키아트 페어의 첫 공동 개최를 계기로 미술에 대한 관심이 확연히 증폭됐기 때문이다.

물타오르는 열기에 지쳤던 것인지 아트 페어의 후유증을 같은 시기에 막을 올린 부산비엔날레에 가서 달래고 오는 다소 묘한 처방전을 쓰게 된 필자에게도 코에서 현대미술 축제가 열릴 예정(2022년 11월 3일~6일)이라는 소식은 비슷한 맥락에서 반갑게 느껴졌다. 주로 갤러리 부스로 구성되는 아트 페어는 본질적으로 예술을 상품으로 거래하는 장터인데, 그 장터를 둘러싼 편의 시설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과도한 면면도 드러나자 자연스레게 비상업적, 혹은 상대적으로 덜 상업적인 행사에 대한 호감이 절로 솟아난 것일지도 모르겠다. 마침 오랜만에 도쿄로 가는 하늘길에 훨씬 자유롭게 열린 치에 도시 산책자처럼 유유자적 거닐면서 예술을 즐겨보겠다는 마음으로 말이다. 그렇게 지난 11월 초 개막한 ‘아트 위크 도쿄(Art Week Tokyo, AWT) 2022’ 현장을 대면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적어도 물리적으로는) 여유로운 예술 산책은 기대할 수 없는 바람이었다. 물론 도쿄로 향하기 전에 서울에서 발발한 비극적인 사고로 인한 삼척 파장은 있었고, 되도록 빠짐없이 모든 공간을 훑어 보기도 해야 한다는 작업명 같은 사명감 탓이기도 했지만, 이 행사를 발족시킨 갤러리스트 나카가와 아쓰코(Atsuko Ninagawa)의 표현처럼 ‘도쿄는 꽤 큰 도시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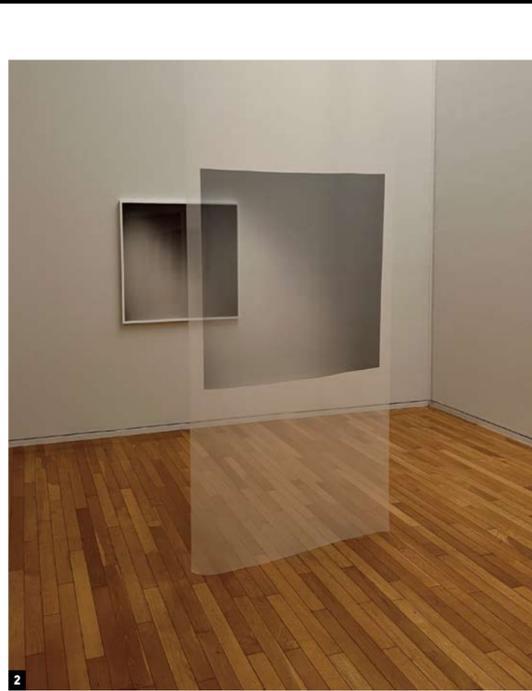
짧은표인 듯 다르고, 다른 듯 비슷한 도쿄의 예술 생태계

2021년 늦가을에 첫걸음을 땀 아트 위크 도쿄는 2022년 행사를 공식적인 확장형 버전이라고 내세운다. 많은 행사의 운명이 그랬듯 팬데믹 기간에 치른 글로벌 행사는 지역민을 주 대상으로 하기 위해 2021년에는 수요·공급 측면에서 재래로 된 구성을 갖췄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후회까지 받은 첫

‘소프트 론칭 행사’ 주간에 2만여 명의 관람객이 모여들었기에 주축자들에게는 의미 있는 시작이었다. 한마디로 ‘소프트 론칭(연속적인) 셈이다. 그리고 이듬해인 2022년 11월 초에는 미술관, 갤러리, 아트 스페이스 등 51개 기관과 조직이 참가하고 해외 컬렉터를 비롯해 전문 미디어까지 참여한 AWT 주간이 전격 펼쳐졌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는 글로벌 최강 아트 페어 브랜드인 아트 바젤(Art Basel)과 손을 잡았다는 것인데, 양자간 협업으로 유럽, 미국, 러시아, 한국 등 여러 나라의 미술 애호가들이 도쿄를 찾았다. AWT 주간에는 전용 앱을 내리받아 지도를 보면서 거점 시아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을 대상으로 무료 AWT 버스를 운영하는데, 컬렉터 그룹도 프리뷰 기간에 따로 버스 투어를 다채하게 그룹에 세팅해서 전용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트 페어든 비엔날레든 흔히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방문자의 면면을 살펴봐도 많은 이가 선호하는 대도시답게 다채로운 곳이 조화를 이뤘다. 도쿄 국립현대미술관, 도쿄 국립근대미술관 같은 유수의 공공 미술관, 모리 아트 센터, 시세이도 갤러리, 에르메스의 도쿄 전시 공간인 르 포럼 등 사립 미술관과 아트 센터 등. 그런데 흥미로운 건 갤러리 풍경이었다. 도쿄의 상업 회장을 몰아서 본 건 처음이었는데, 매출 규모를 떠나 대부분 공간이 크지 않았다. 이름난 작가들 소속 작가를 둔 갤러리도 별다른 없었다. 물론 도쿄의 높은 임대료를 감안하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아트 페어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상업 회장이 공간에 투자를 많이 하는 데 익숙해진 이들의 눈에는 낯설게 느껴질 법한 면모다. 몇몇 컬렉터의 공간은 규모나 인테리어 면에서 화려했지만 이들은 시간 남도록 몸소 투어 안내를 하면서도 촬영으로 인한 노출은 경중히 사양했다. 예술을 가늠은 벗이나 의미 있는 자원들 사이에서



공유하고 싶지만, 낯선 누군가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지는 않아서란다. 때때씩 한 퍼트 분위기도 거의 부재했다. 런던에서 온 한 기자는 행사의 성격 자체는 기본적으로 다분지만(하지만 사실 AWT도 페어 형식을 따지는 않지만 컬렉터가 원하는 대부분 판매를 한다) 프리즈 서울이 개최될 당시 셀럽들이 대거 출동한 화려한 퍼트와 다르게 뭔가 절제되고 훨씬 ‘미묘한(subtle)’ 방식을 택해 같은 아시아 도시지만 매우 다르게 느껴진다는 소감을 털어놓기도 했다.

지역 내 경쟁보다 각자의 특징점을 내세운 아시아 자체를 브랜드한다면

사실 이 같은 온도차는 ‘도쿄’라는 메트로폴리스의 명성을 감안한다면 컨템퍼러리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 도쿄에는 물론 쿠사마 야요이, 무라카미 다카시, 나리 요시모토를 위시해 글로벌 무대를 호령하는 세계적인 스타 작가도 있고, 이번 AWT 2022에서 보여줬듯 남부럽지 않은 인프라이 콘텐츠도 보유하고 있지만 ‘동시대 미술(contemporary art)’을 둘러싼 시장이 아직은 폭발적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게 사실이다. 그렇다 보니 갤러리 페어링 도쿄 등을 제외하면 메가 갤러리라는 대형 갤러리가 드물다. 하지만 도쿄의 예술 공간이 자신들의 작품을 보여주고 소통하는 방식은 다른 국가나 도시 간의 문화 차이를 느끼게 하는 지점이기도 했다. AWT 2022에 참여한 대부분의 갤러리는 타지에서 온 손님들 맞이하면서 만족감을 표했지만, 사실 ‘아트 주간’이라는 개념을 잘 몰랐다는 반응도 있었다. 글로벌 매력도가 높은 도쿄에 대한 자부심으로 아직은 시장이 작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낙관하는 분위기도 느껴졌다(실제로 올해를 도쿄에서 알지 않은 요코하미에서 새로운 글로벌 아트 페어를 지칭하는 도쿄 건다(가 열릴 예정이다). 이 행사당시 시사회에 위치한 갤러리 고야마는 소속 작가인 세계적인 사진 가장 스기모토 히로시 개인전을 열었는데, 이 갤러리를 이끄는 고야마 이쓰코 대표는 이 제 해외에서 열리는 아트 페어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그 이유로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하지만 ‘우리 공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시하는 지를 보여주고 싶다고 설명했다.

일본을 대표하는 도시, 도쿄의 컨템퍼러리 아트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건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데 주요 도시의 아트 마켓이 갈수록 만만 상장세를 보인 팬데믹 기간에 도쿄 역시 그저 응크리고 있지만 않았다. 그들에게 맞는 방식을 연구하면서 ‘글로벌’을 지칭하는 현대미술 축제를 만들어냈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었지만 국내외 관계자들의 반응 역시 호의적이다. 간사이 지방을 대표하는 천 년 고도 교토에서도 그새 지역일 본 갤러리가 해외 갤러리를 초청해 짝을 짓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제법 큰 규모의 아트 페어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각자의 속도와 본질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토대를 다져가는 건 결국 기초와 연관되므로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의미 깊은 변화가 아닐까 싶다. 도쿄는 도쿄대로, 서울은 서울대로, 홍콩은 홍콩대로 마이웨이(를 가도, 아시아라는 지역 내 여러 도시들의 다양성이 심하게 부각되면서 서로에게 ‘나자’를 불어넣는 영리한 브랜드가 필요하다. 우리가 파리, 말라카, 런던, 비엔날레나 중 채어나 자매를 꼽기 어려울 정도로 유럽 자체의 매력도가 높다는 점을 생략하지 말자. 글 & 사진



1 도쿄를 대표하는 사립 미술관인 모리 미술관(Mori Art Museum)의 전시장. 일본 미술관과 갤러리, 예술 공간이 대거 참여하는 현대미술 축제인 ‘아트 위크 도쿄(Art Week Tokyo, AWT) 2022’ 행사 주간에 열린, 팬데믹을 주제로 한 전시 풍경이다. 2 AWT 2022 기간에 도쿄 오페라 시티 아트 갤러리에서 선보인 카와우치 린코(Riko Kawachi) 개인전 풍경. 3 일본의 현대미술 수집가의 수준 높은 오야야시 컬렉션(Obayashi Collection)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 4 사진 건축가 후원 차원에서 유명한 건축가에게 설계를 맡기는 시공지 ‘AWT 비(非)바’가 들어선 프로젝트 공간. AWT 2022 행사에는 떠오르는 건축가 모토스케 만다이(Mandai Motosuke)가 선정됐다. AWT의 또 다른 공동 창립자이자 컬렉터 사카이 가즈나리(Kazunari Sakai)가 행사를 위해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일부를 제공한 공간이다. 5 현대 사진 미술의 거장 스기모토 히로시(Hiroshi Sugimoto)가 디자인을 맡은 오야야시 아트 재단의 전시 공간. 6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인파로 늘 활기 있는 도쿄의 예술 공간 팀랩 플렉스 도쿄(TEAM LAB PLANETS TOKYO)의 전시 풍경. teamLab, ‘The Infinite Crystal Universe’(2018). © teamLab 7 페어링 도쿄, 우라나리 키아트 페어를 비롯해 여러 갤러리가 입주해 있는 롯폰기 파리의 비탈리 빌딩. ※ 1~5, 7 Photo by SY KO

Interview with Atsuko Ninagawa

아트 위크 도쿄(Art Week Tokyo, AWT)의 공동 창립자 나카가와 아쓰코(Atsuko Ninagawa), 지난해 11월 1일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열린 오프닝 파티와 공연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 AWT의 프로그램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동행이 번쩍, 사에 번쩍 분위기 뛰어넘는 그녀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동기로 AWT를 만드는 데 소매를 견어하고 나선 걸까? ‘유명한 중소 갤러리가 좀 더 널리 자신들의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장려하고 싶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이벤트 전문가나 창립자가 아니라 자신의 갤러리(케니 나카와)를 이끄는 갤러리스트. 필자가 AWT를 방문했을 당시 도쿄 국립근대 미술관에서 최고인 진행 중이었던 일본 현대미술에 기록 오야야시(Shiro Ontake)도 다녀 나카와 갤러리 소속이다. ‘사실 도쿄는 다른 주요 도시에 비해 컨템퍼러리 아트 시장이 작은 편이죠. 그런 문화 예술 분야의 다른 측면이 풍부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렇다. 도쿄는 건축, 음악, 디자인 등에서 전통과 현대를 이루는 내실을 갖춘 도시 아닌가. 동시대 미술에서도 콘텐츠에 대한 확신이 뚜렷하게 든다는 나카와 대표는 단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일본인에게, 그리고 도쿄를 방문하는 타지인에게도 (우리와) 현대미술을 알리는 교육적인 역할을 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어쩌서 아트 페어가 아닌 다른 형태의 행사를 택했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미술 생태계에서 지역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행사를 기대한 거죠. 커뮤니티 인파로 이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이요.’ 여러 관계자가 찾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도쿄의 갤러리들이 자신들의 예술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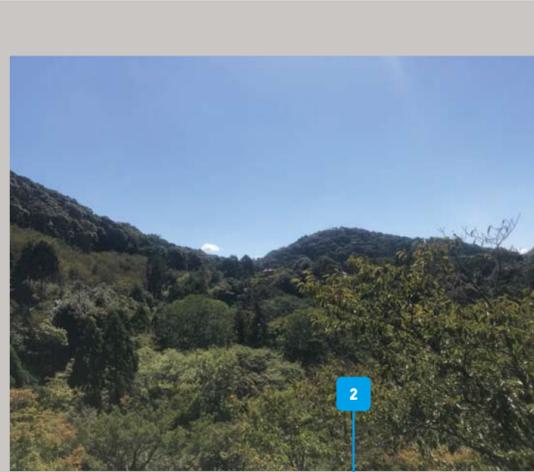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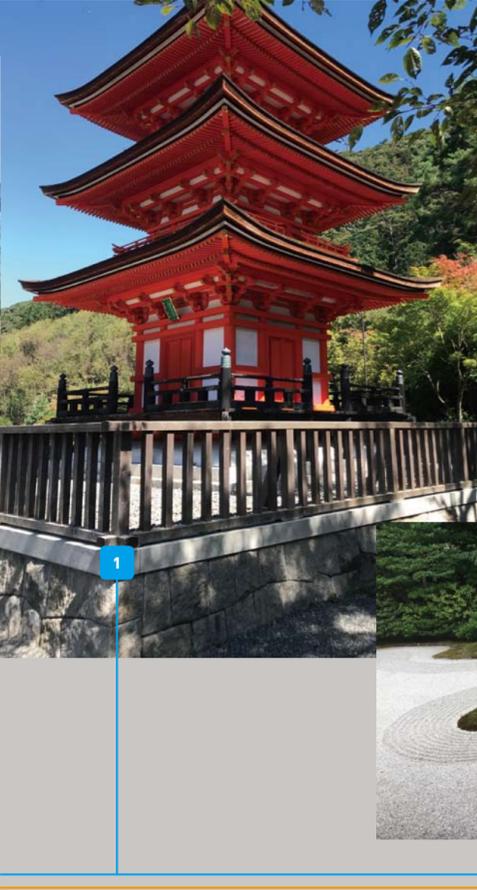


등고 싶었다는 그녀는 지난 2021년 봄 버스 노선도를 그려면서 행사 기획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들과 회동해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들은 ‘교육적인 플랫폼을 궁정적으로 여러 자원받을 수 있었어(이런 재 AWT는 정부와 도쿄 도청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고 여러 파트너를 두고 있다).’ 덕분에 거동력을 발휘해 바로 2021년 ‘소프트 론칭’ 형식으로 첫 행사를 열 수 있었다. 그런데 의외로 갤러리를 선택하는 데 더 ‘꿈’이 들어있다고 한다. ‘도쿄에 있는 상용 갤러리가 아트 주간(art week)이 아닌 개념을 낫살아했거든요.’ 그렇게 ‘발흥’ 만 보일 이 시기에 라에서 방문한 컬렉터들이 AWT를 위해 도쿄를 방문한 뒤 ‘참찬한 발견’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특정 작품들의 작품을 ‘영향’이나 그 자체에서 구매하는 경우에 더러 눈에 띄었다. 당연히 예까지지만 갤러리들은 이 같은 호응과 관심에 고무되어 있다. 이제 첫 단추를 끼운 셈인 것보다 효율적이고 매력적으로 프로그램을 꾸리기 위해 보완해야 될 점은 있지만, 내년 여름에 열릴 요코하마 아트 페어의 시나리오도 기대할 수 있게 아트 위크 도쿄의 행보는 흥미롭게 지켜볼 만하다.

1 ‘도시 기행’ 형식을 빌린 축제형 쇼케이스 아트 위크 도쿄의 공동 창립자이자 총괄 디렉터 역할을 맡고 있는 나카가와 아쓰코(Atsuko Ninagawa) 대표. photo by Katsuhiko Saiki 2, 3 나카가와 아쓰코 대표가 지난 2008년 도쿄에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데카 나카와(Take Ninagawa) 갤러리의 전시 풍경.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본의 저명한 사진이자 예술가 오야야시 고조(Gozo Yoshimasu) 개인전. courtesy the artist Take Ninagawa Gallery 4 누구나 무료로 내로본이 활용할 수 있는 아트 위크 도쿄 2022의 ‘AWT PASS’ 앱 화면. AWT에 참가한 다양한 아트 스페이스의 목록과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5 아트 위크 도쿄의 공식 블로그.



1 인터뷰 대상자 나카가와 아쓰코(Atsuko Ninagawa) 대표. 2, 3 AWT 2022 전시 공간의 모습. 4 AWT 2022의 ‘AWT PASS’ 앱 화면. 5 AWT 2022의 ‘AWT PASS’ 앱 화면. 6 AWT 2022의 ‘AWT PASS’ 앱 화면.



1 천 년 고도 교토를 대표하는 사람 기묘미즈데라. 2 산을 좋아하는 이들이 찾는다든 말이 있을 정도로 산세가 아름다운 기묘미즈데라 인근 풍경. 3 교토 기온 거리에 있는 1202년 창건된 교토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神宮寺)인 겐닌지(建仁寺)의 정원. 4-6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교토 인류지의 사찰과 아름다운 연못과 조경으로 유명한 정원 풍경. 교토의 동쪽에는 기묘미즈데라, 서쪽에는 덴류지가 있다는 말이 있다. 7, 8 도연명의 <화환>에 나오는 무릉도원을 모티브로 삼아 디자인한 미호 류지현. 자연경관을 배려해 건축 용적의 80%가 지붕에 메달려 있다. 리셉션 건물을 지나 전사민까지 연결된 터널을 걷는 것 자체로도 큰 공간적 예술을 느끼게 해준다. 은은한 빛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터널 끝 자연의 모습이 점점 다가온다. 일본 미술품을 비롯해 이스트, 서아시아, 그리스, 로마 등 세계 각지의 고대 미술품이 전시돼 있다.



Magical Encounters

쿠사마 야요이(Yayoi Kusama)는 생존 작가 목록을 놓고 지구상에서 대중성을 바탕으로 한 브랜드 가치로 따지자면 아마도 0순위에 꼽히지 않으면 서럽기 그지없을 이름일 것이다. 아니, 혹여 그녀의 이름을 모른다 해도 쿠사마표 '맹맹이(polka dots)'나 호박 무늬를 보면 대다수가 '아하' 하고 고개를 끄덕이지 않겠는가. 사실 이 살아 있는 신화 같은 유명세에는 2012년 루이 비통과 함께 선보인 신세이셔널한 '쿠사마 컬렉션'도 한몫했다. 온갖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미국행을 결단한 뒤 파란만장한 굴곡을 겪으며 성장한 배경이라든지 가슴 아픈 개인사까지 더해져 그 효과는 더 컸겠고 말이다. 워낙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터라 외려 자칫 간과할 수도 있는 그녀의 예술 세계를 동시대 흐름에 잘 어울리는 참신한 소통 방식으로 조명하는 프로젝트가 펼쳐졌다. 일본 도쿄 시내를 창조적으로 수놓은 그 현장을 다녀왔다.

연말연시를 맞이한 도쿄의 도심 풍경은 유난히 밝아 보인다. 그저 자본주의의 불빛으로 비추기에는 몽글몽글 정도로 황홀한 비온시간, 대체로운 조명과 장식의 묘하게 아름다운 조화가 바빠 길을 걷다도 절로 멈춰 서서 뻥히 들어 다보게 만든다. 지난 12월 초, 아즈마 그렇게 강렬한 주위를 느낄 수 없는 날 씨에 늘 봄비는 도쿄 역 근처는 휴대폰을 꺼내 든 채 허공에 대고 흔들면서 사진과 영상 찍기에 여념이 없는 인파로 더 북적거렸다. 다카기보면 유전자적 스캐이트를 타는 이들이 보이는 이따금 아이스링크를 배경으로 예뻐진한 글라스 박스가 놓여 있다. 기만히 지켜보노라니 그 신나는 풍경 속 대다수는 'LV' 로고가 새겨져 있는 사각 유리 박스 앞에 비치된 QR코드를 활용한 증강 현실(AR) 놀이에 푹 빠져 있었다. 귀여운 핑크빛 물고기 모양의 푸드 트럭에서 따뜻한 생강차를 홀짝이며 마시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바로 그 핑크빛 물고기들이 지어 춤추는 듯한 '퍼레이드' 화면을 AR로 즐겨볼 수 있는 경험. 바로 다시금 나리를 펼쳐고 있는 체형 경제 시대의 거물급에 루이 비통이 오랫동안 협업의 역사를 이어온 위대한 예술가 쿠사마에게 경의를 표하고, 동시대인들과 소통하는 방식이다. 이렇듯 도쿄 역을 비롯해서 시내 곳곳을 다

나면서 자마다 다른 설치 작품을 만나며 쿠사마를 몸소 감상할 수 있는 역동적인 협업 프로젝트다.

도쿄의 명소들을 쿠사마 야요이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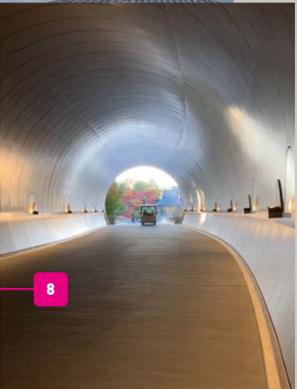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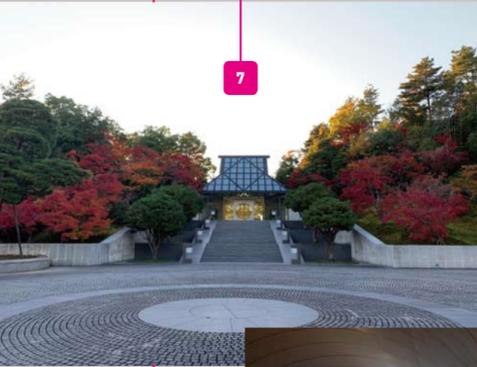
어느덧 나이 이흔을 훌쩍 넘긴 쿠사마(1929년생)가 꾸준히 걸어온 작업 여정을 '발광'으로 함께하는 루이 비통의 재기 어린 발상을 창조적으로 풀아낸 선택자들은 일부러 도시 기행을 하도록 만드는 매력적인 명소들이기도 했다. 이 중 도쿄 타워를 콧대 높은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듯한 유서 깊은 조조지사원, 그리고 바로 옆에 자리한 사바 공원은 한 묶음으로 다녀올 수 있는 곳들이다. 'LV X YK' 모티브로 가득한 이 명소들은 평일에 들렀는데도 예술 산책을 즐기는 다국적 방문객들로 활기를 내뿜고 있었다. 예컨대 멀리 도쿄 타워를 올라다보면서 사바 공원에서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커다란 원형의 메달 최대에 감정 비통의 노란색 맹맹이가 박힌 쿠사마표 호박이 시뻘히 올라와 있다는 가 허전 황갈색을 띠는 잔디 위에 우주선처럼 출몰해 있는 은색의 원형 구가 표면에 반사된 도시 풍경을 작은 마법처럼 담아내고 있다. 조조지사원으로 발걸음을 옮겨 가다 불상이 있는 사찰 앞으로 걸어가다 보면 쿠사마 특유의 일목달목한 울방울과 LV 로고가 결합된 대형 설치물이 시야에 들어오는데, 대체로운 색조와 고전적인 주변 배경의 대조가 절로 클릭을 부른다. 이 깜찍한 조합의 미학 역시 AR로 누릴 수 있음은 물론이다.

11년 만에 다시 선보이는 쿠사마와의 컬렉션 협업

'LV X YK' 프로젝트의 전시 장소로는 전통적인 명소만이 아니라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대중이 즐겨 찾는 도쿄의 변화기도 포함되어 있었다. 신주쿠와 시부야, 그리고 명품 브랜드 매장이 즐비하게 늘어선 간자까지 섭렵했다. 한국에서도 패션 피플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간자의 복합 쇼핑몰 도버 스트리트 마켓에는 주로 빨간 호박에 둘러싸여 있는 커다란 코끼리를 1층 쇼윈도

에서 만날 수 있고, 신주쿠와 시부야로 진입하면 지하철약이 있는 사거리의 고층 건물에 이 프로젝트의 주인공인 쿠사마가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과 전위적인 예술가다운 자태로 등장하는 옥외 광고가 몇 분 간격으로 계속 흘러나오는 걸 볼 수 있다. 오는 봄 전역 공개될 그녀와 루이 비통과의 협업 컬렉션 중 일부가 영상에 가끔 노출된다. 이번 협업의 제품 목록은 마치 작기의 방대한 이력과 작업 스펙트럼을 아우르듯 기원은 물론이고 남성/여성복, 선글라스, 향수 등 그야말로 라이프스타일 패키지가 다. 며칠 동안 비교적 따스하고 맑은 날이 지속되며 날씨 운도 따랐던 예술 산책의 대미를 장식한 건 마지막 목적지였던 신주쿠에서 잠깐 쉼이던 비의 세례나 데였다. 그녀의 상징과도 같은 물방울이 곱게 입혀진 기방이 나오는 스크린 위로 뱃방울이 살포시 겹치니 운 치 있는 영화가 따로 없었다. 글 **고성연**

1 멀리 보이는 도쿄 타워를 배경으로 하는 아름다운 사바 공원에 'LV X YK'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설치된 전시 모습.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쿠사마 야요이(Yayoi Kusama) 허전 떠오르는 트레드미로인 '호박' 조각이 시야에 들어오는데, QR코드를 받으면 이를 증강현실(AR) 모드로 즐길 수 있다. 2 사바 공원 바로 옆에 위치한 유서 깊은 조조지사원에도 'LV X YK' 프로젝트 설치 작품이 전시돼 있다. 사원은 사바 공원의 전답에 놓인 전시 작품들. 3 도쿄 변화되고 있는 복합쇼핑몰 도버 스트리트 마켓 간자 건물 1층에 설치된 'LV X YK' 전시물. ※ 1~3 photo by SY Ko 4 세계적인 예술가 쿠사마 야요이. 사진에서 그녀가 하고 있는 기행은 일본 선보일 루이 비통과의 협업 컬렉션 제품이다. 5, 6 오는 2023 S/S 시즌에 선보일 루이 비통과 쿠사마 야요이의 협업 컬렉션 중 키워인 '백' by 루이 비통 X 쿠사마 야요이, '리베라빌 버킷 햇' by 루이 비통 X 쿠사마 야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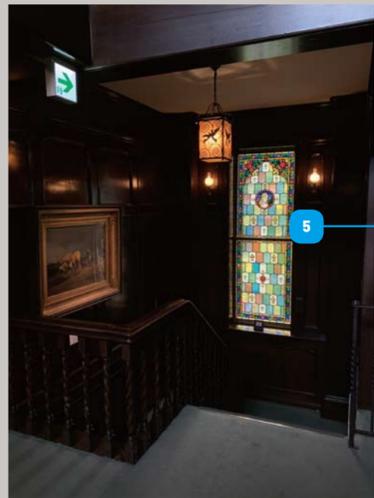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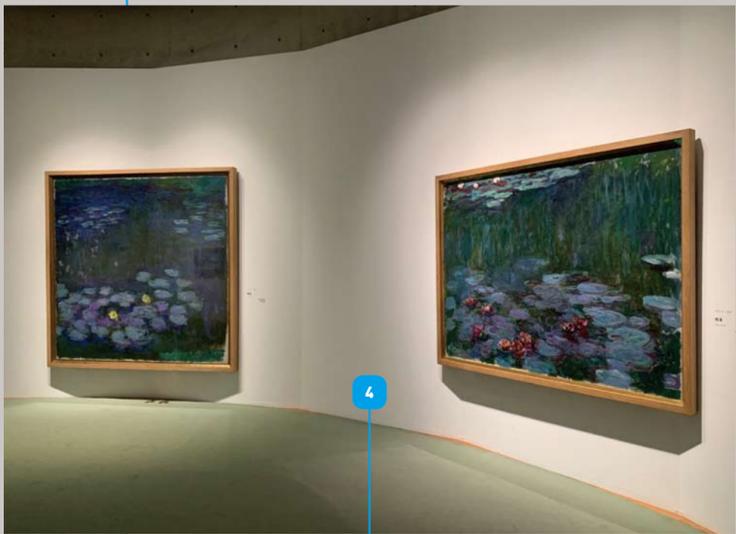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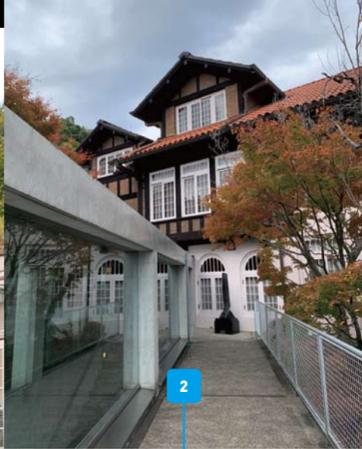


무려 1천 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는 메이지 유신 이후 좁은 분지라는 지형적 한계에 부딪혀 수운, 무역에 유리했던 도쿄에 중심의 자리를 내준다. 공식적인 수도의 지위를 상실하는 했지만 많은 일본인은 여전히 교토를 '정신적 수도'이자 '문화의 중심지'로 여긴다. 찬란한 전통과 학문을 반영하는 수백 개의 박물관과 미술관, 그리고 유수의 연구 기관은 물론 동쪽에 기묘미즈데라(황수사), 서쪽에 덴류지(천황사)를 대표 격으로 내세운 유서 깊은 사찰과 탐사객을 절로 관조 모드로 이끄는 아름다운 정원, 성곽 등 문화적 자원이 은은하게 빛을 발한다. 잘 알려져 있듯 대나무 숲을 비롯한 수려한 자연미도 교토의 자랑이다. 교토 시내에서 1시간 정도만 자동차로 움직이면 산물짜기 깊은 곳에서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로 유명한 L. M. 피아가 설계한 경이로운 지테로 맞이하는 미호 미술관은 자연과 건축의 오묘한 조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비와 코 호수 근처의 시가와 미술관도 빼어난 경치로 명성 높다. 이렇듯 곳곳에서 자타의 오리를 풍기는 문화유산을 보노라면 이 고고한 천 년 고도에서는 여전히 일본의 살아 있는 맥이라 할 만한 도시의 풍격이 느껴진다. 최근에는 동시대 미술과 더불어 공예, 디자인의 물결이 고이한 전통 예술로 스며들며 더 다양한 볼거리와 더 넓고 깊어진 예술의 스펙트럼을 선사한다. 늘 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던 교토가 코로나리는 북방을 맞이해 고요하게 재장비하는 시기를 누린 덕분일까, 역사적 소산물과 현대의 문화 예술적 흐름을 함께 엮어내거며 더 풍성한 볼거리를 찾아내고 있다. 일례로 전 세계에서 모여든 64개의 갤러리가 참가한 '아트 컬라보레이션 교토(ACK) 2022'가 지난 11월 중순 열리기 도 했는데, 2회를 맞이한 이 아트 페어는 자국(일본) 갤러리가 해외 갤러리를 초청해 '호스트-게스트로' 짝을 이루는 식의 흥미로운 구성이 돋보였다. 이렇듯 동시대 미술의 장으로도 거듭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토는 역시 빛나는 전통과 자연이라는 굳건한 토대를 바탕으로 현대 문명과 동시

교토 문화 예술 기행

'민예(民藝)'의 원류를 찾아서

'천 년 수도'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적 토양을 토대로 동시대 흐름을 반영하는 건축과 미식, 상점 등 다채로운 영역의 콘텐츠가 풍성하게 쌓이면서 갈수록 매력을 키워가고 있는 일본 간사이 지방의 대표적인 예술 도시 교토(京都). 늘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인파로 북적이던 교토 역시 코로나 시국에는 한동안 정적이 감돌았지만 외려 겨울잠을 자며 조용히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 것 같다. 이제 다시 문을 활짝 연 교토는 '문화 예술의 메카'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려는 듯 예전보다 더 신선한 활기를 띠며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교토다운' 역사와 일본 현대 디자인의 토대인 민예에 얽힌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을 지닌 문화 예술 유산을 소개한다.



#ASAHI BEER OYAMAZAKI VILLA MUSEUM OF ART

교토부 오미자카초, 덴노산 남쪽 기슭에 자리한 아사히 맥주 오야마자키 산장 미술관. 한번 가면 계절마다 꼭 다시 오리라는 결심을 하게 만드는 이곳을 찾은 건 단풍이 서서히 물들어갈 무렵이었다. 바람이 부는 날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만큼 고요한 언덕 위 산장. 말 그대로 입구에서 바라다보면 예쁜 산장 건물인데, 1996년 미술관으로 문을 열었다. 필자가 찾았을 당시에는 마침 특별로 기획되는 특별전으로 스위스 그림책 전시를 개최하고 있었다. '브라운 음악대로 유명한 스위스 베른 출신 알라스트레이터 한스 피셔(Hans Fischer)와 자녀들을 위한 그림책을 만들어 작품에 더욱 따뜻함이 묻어 있는 작가 펠릭스 호프만(Felix Hoffmann)의 아름다운 삽화. 원본에서만 느껴지는 미끈 잉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동화 속 인물과 동물을 보노라니 금세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게 된다. 산장 2층 카페 입구에서는 1985년경 제작된 독일 플라몬사의 디스크 오토콜 '미카즈'가 눈길을 은근히 잡아준다. 잠시 마다 작동하는데, 한번 회전하면 2분 정도의 연주가 진행된다. 거대한 금속관에 촛불이 붙어 있는 디스크가 돌아다니며 시냇물 두고 빙돌아 양 금속 판을 튕겨내며 선율을 이루는 것을 보고 듣고 있다면 마음을 울리는 고요한 음악에 한번 더 들어가자, 마음먹게 된다.

유서 깊은 별장, 네세나로 산장 미술관으로 거듭나다
이 고즈넉한 숲속의 미술관은 일본 근대 예술, 디자인 사상의 근간을 이룬 민예 운동을 지휘한 아마모토 다메사부로(1893~1966)와 산장을 처음 건축한 기가 쇼타로(加賀正太郎, 1888~1964) 사이에 씌운 우정의 소신이자 기업 메세나의 결실이기도 하다. 일본 다이쇼 시대, 1912년 5월에 걸쳐 목조로 설계한 뒤, 쇼와 시대 초엽(1922) 증축을 시작해 1932년 완성된 이 산장은 간사이 지방의 사냥가 기가 쇼타로의 별장으로 처음 지어졌다. 에도 시대부터 섬유업과 곡물 중개업을 한 기가 집안(加賀家)의 장남으로 태어난 기가 쇼타로는 증권을 비 롯한 여러 병원에서 활약한 사업가였다. 그가 건물을 넓혀려고 때론 유럽 여행 중, 런던 근교 템스강이 내려다보이는 완자성을 방문 중 영감을 얻은 뒤, 교토의 근교인 가즈, 우지, 가쓰라, 세 강이 합류하는 모습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오미자카의 덴노산 언덕 위에 우뚝을 정하고 직접 설계, 감수해 산장을 건축했다. 본관인 세이케이로(齋景樓)는 영국 튜더 양식(15세기 말부터 17세기 초까지의 건축양식)을 잘 구현해낸 일본의 유형문화재이기도 하다. 1954년 기가 쇼타로가 작고한 이래, 오미자카 산장은 주인이 여러

번 바뀌면서 노후했고, 1989년에는 대규모 아파트 조성 계획으로 아예 사라질 위기에 봉착했다. 하지만 오미자카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보존 운동이 전개되면서 아사히 맥주 주식회사기 산장을 복원해 미술관으로 공개하게 된다. 그리고 가까이 생전 친분이 깊었던 아마모토 다메사부로(아사히 맥주 주식회사 초대 사장이자 기증한 소장품이 미술관 컬렉션의 토대가 된다. 이 소장품은 아마모토 다메사부로가 민예 운동을 지지했다는 증거이기도 한데, 그가 아키히코 지원한 민예 운동 작가인 기와이 간지(河井寛次郎), 하마다 쇼지(濱田庄司), 버나드 리치(Bernard Leach)의 작품이 본관 전시의 주축을 이룬다.

간사이 지방이 낳은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합류
그렇지만 많은 이들이 산장 미술관을 찾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세계적인 '스타 아키텍트'이자 간사이 지방 출신인 안도 다다오가 기가의 별장을 미술관으로 확장할 때 참여한 원주위의 지중권(지중의 보석상 자라는 뜻, 1995년에서 선보이는 걸출한 컬렉션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에는 기획전을 위한 아미테란 '꿈의 상자'의 증축에도 참여했다. 덴노 산자락에서 우뚝이 1백여 년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본관의 위용을 존중하듯 안도 다다오 특유의 간결한 건축 미학이 묻어 있는 지중권은 반차하로 들어가 본관의 차분한 배경이 되어주는데, 안에서는 안상파의 개척자 클로드 모네의 그 유명한 수련 시리즈를 계절별로 교대해 전시한다. 고즈넉한 산속에서 가정의 붓 타자를 차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획이기에 단연 미술관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물론 미술관의 소장품 목록에는 모네의 수련 5점 이외에도 아메모 모달리니니(1884~1920), 알베르토 자코메티(1901~1966), 이사무 노구치(1904~1988), 헨리 무어(1898~1986) 등 20세기 거장들의 회화, 조각 작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산장 곳곳에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기도 하므로 미술관 밖으로 나와 산을 병풍 삼고 연꽃을 벗 삼아 유유자적 기어오르는 산책의 발품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이렇듯 소장품과 기획전을 이루며 안팎을 친철히 감상하다 보면 짝이던 해가 아깝지 않다.

'민예'라는 언어의 우를 입고 격상된 일상용품
아마모 다메사부로 출신인 필자의 배경 때문이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아마모토 다메사부로의 컬렉션에도 눈길이 갔다. 컬렉션을 주로 구성하는 도자기 등의 수공예품은 그 시대 혹은 더 이전 시대



#KAWAI KANUJURO'S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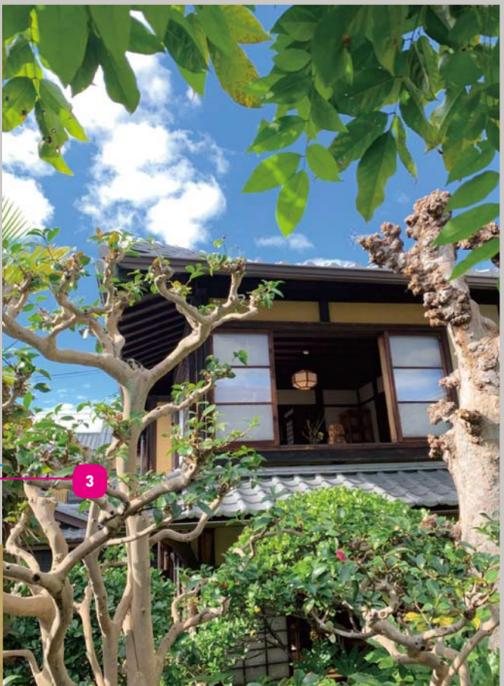
만에 운동 역사에서 또 다른 가정을 접할 수 있는 기와의 단초를 제공해준 아사히 산장 미술관의 준이치로 오노즈카 관장이었다. 앞서 언급하기도 했던 민예 운동 주창자이자 근대 도예가 기와이 간지로(1890~1966) 기념관이다. 마치 교토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기와 미즈데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한적한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가다 보면 기와이 간지로 기념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교토식 미인이 한민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가니, 입구 매표소를 지키고 있는 노년의 여인이 인사를 건넵는데, 바로 간지로의 손녀였다. 주변 일본 기와와 달리 채광이 유난히 좋아 초가을이지만 따뜻한 햇살이 집 안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고, 한눈에 옛 사대를 살았던 분위기가 자못 느껴질 정도로 한적한 민예의 정취가 느껴졌다. 기와이 간지로의 손녀를 맞아 담소를 나눴을 듯한 인체의 화랑기와 그 주변의 나무 의자라든지, 밖에 있는 중정의 한판에 있는 작은 기와, 산등성이처럼 올라가는 계단식 기와, 다양한 기와가 그 자취를 말해주는 듯했다. 실제로 일과 사생활을 구분하며 살지 않았던 간지로는 5대 기와미즈로 쿠베에(清水六兵衛)의 기와를 양도받은 이래, 이를 통한 기와(窯り)窯과 명명하고, 거주지를 함께 꾸렸다. 그러나 그 후 태풍으로 집이 심하게 파손된 사건을 계기로, 고향 친인척이던 목수의 도움을 받아 1937년 현재 기념관의 모습을 완성했다고. 간지로의 집 마네키야키 조선 농가(土産)인 점은 그가 야기 무네오(柳本) 조선 문화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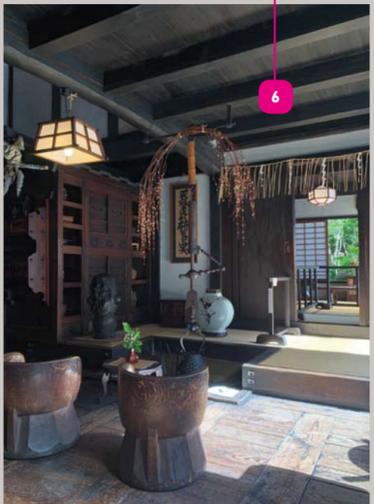
를 살았던 사람들의 일상생활용품이다. 이런 평범한 일상생활 수공예품을 지칭하는 '민예(民藝)'는 1925년 야기 무네오(柳宗悦, 1889~1961)와 기와이 간지로에 의해 처음 명명되었다. '민(民)'은 '민중과 민간(民衆や民間)', '예(藝)'는 '공예(工藝)의 예(藝)'를 뜻한다. 당시 평가의 대상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일상생활용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이다. 일제강점기에도 조선 문화의 독자성과 아름다움을 존중했던 인물로 한국에서도 꽤 잘 알려진 야기 무네오는 홍콩에서 태어난 영국인 도예가 버나드 리치(1887~1979)와 밀접한 교류를 통해 영국의 신비주의 화가이자 시인이었던 윌리엄 블레이크를 알게 되고 그의 사상에 심취한다. 이를 통해 상상, 직관, 자연관을 형성하는 본인의 철학적 기초를 다지는 한편 신비론(新神學, New Theology)을 통해 자연과 신의 합일을 체험하는 신비주의에 관심을 둔다. 그 후 동양 신비 사상의 핵심으로 여겨지던 '상상(想像)의 개념, 나아가 동양 사상의 핵심인 도교와 불교를 탐닉하며 민예 이론이라는 독자적인 미론을 구축해 나간다. 큰 사회적 맥락에서 보자면, 야기는 양자 세계대전 사이 영국에서 주도한 대량생산 체제에 반발해 수공예의 가치를 되살리고자 한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와 존 러스킨(John Ruskin)의 미술공예 운동(Arts and Crafts Movement)에 영향을 받아 동양의 미의식과 종교성이 결합된 독자적인 일본식 공예 이론을 수립했다. 유럽의 미술공예운동은 비우하우스와 미-나탈리츠 산업 디자인의 시초가 되었고, 일본에서는 하급 문화로 치부되던 일상 공예품을 민예라는 언어의 우를 입고 예술품으로 격상시키는 데 공헌했다. 이후 이 민예 사상은 한 세기에 걸쳐 일본의 사회 문화 전반에 뿌리를 내렸다. 아래게도 익숙한 브랜드 MUJI나 광범할 속의 비법을 뜻하는 '슈퍼노플' 개념의 토대가 된 것이다. 일본의 전설적인 산업 디자이너 야나기 쇼타로는 바로 민예 운동의 창시자 야기 무네오의 아들이다.



소박한 일상을 예술의 차원에서 담아내다
"좋은 것을 만들면 미는 나중에 따라온다 (良いものを作れば美は後から追いかけてくる)."
기와이 간지로는 1890년 시대적인 아사기에서 목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도공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다. 도쿄 고등공업학교 기와과에 진학했고 교토 시립 도자기 연구소에서 방대한 양의 유약 연구를 진행했다. 1921년, 그는 중국공예의 화려한 유약과 다양한 장식 기법을 활용한 도자를 제작해 도예가로서 첫 개인전을 연다. 그 후 야기 무네오, 하마다 쇼지의 만남을 통해 민예 운동의 주축 멤버가 되는데, 이로 인해 그의 작품은 단순하고 소박해진다. 감성을 위한 도자가 아니라 실용적인 일상용품 제작하게 된 것이다. 민예를 살트하면서 그는 도자 외에도 목각, 청동, 글씨, 다마 무어 사유의 폭과 깊이를 더해 나갔다. 간지로의 언어를 빌려 민예를 개념화한다면 아름다움을 의식하지 않고 만드는 일상의 물건에 머무는 진실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는 민예의 소박한 본의를 따라 국가의 인공문화체 제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명예를 거부했다. 전쟁 중에는 개인 작업을 중단했다가 쇼와 시대 초기 작품 활동을 재개할 때는 모든 작품에 이름을 댄다. 도자를 만들고 굽는 일개 도공으로 남고 싶었던 그, 아름다운 본질을 추구하다 보면 누가 만들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기와이 간지로. 고요한 청초혼의 철학이 깃든 공간을 보노라면 손녀의 기억처럼 그는 미움이 따뜻한 분이었는 것 같다. 글: 신 박혜연(디자인)



1 중정에서 바라본 기와이 간지로 기념관 본관의 모습. 앞으로 죽 따라가다 보면 등반 기와를 만날 수 있다. 2 기와이 간지로 기념관이라 쓰인 간판과 출입구. 3 안뜰에서 바라본 본관 2층 전시실 모습. 알뜰적으로 사생활을 중시하는 다소 폐쇄적인 일본의 주거 배후와 달리 간지로의 집은 아메모토 다른 장소가 보이는 왜 개성적인 형태가 인상 깊다. 4 간판의 조형미를 할 때 쓰인, 민물 한쪽에 있는 기와. 5 유약의 다양한 기법이 돋보이는 도기 작품. 6 출입구를 지나 들어오면 보이는 본관 내부 모습. 불을 피우던 화로가 있고, 조선 농가를 연상시키는 바네이오이다.





ACE HOTEL KYOTO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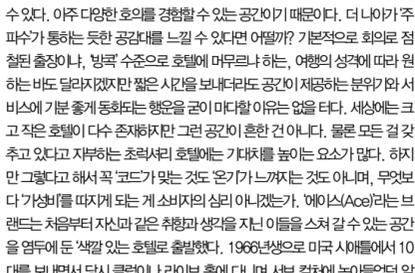


ACE HOTEL SYDNEY



문화 언어로서의 표현은 에이스 호텔이 추구하는 산업의 맥락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다. (매거진 B)

‘에이스 방식’, 우리가 정의하는 ‘럭셔리’에 공감하나요? 스스로 나그네가 되어 길을 떠나는 이는 근본적으로 낙관주의라는 문장을 어디에선가 공감하며 본 기억이 있다. 낯선 이들과 마주치기 마련인 길 위에는 어떤 위엄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법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행길에서 가끔 맞닥뜨리는 낯선 사람들의 호의에 기분이 한없이 업되기도 하고, 악연은 아니라 해도 심술을 겪게 되면 괜히 처량해지기도 한다. ‘여행의 공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호텔은 이런 맥락에서 어떤 이들의 여정에서 꽤 중요한 지분을 차지할 수 있다. 아주 다양한 호의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주파수가 통하는 듯한 공감대를 느낄 수 있다면 어떤일까? 기본적으로 최으로 점철된 출장이나, 방콕 수준으로 호텔에 머무르거나 하는, 여행의 성격에 따라 일하는 비도 달라지지만 짧은 시간을 보내더라도 공간이 제공하는 분위기에서 비스듬히 놓여 있는 행운을 굳이 기다릴 이유는 없을 터다. 세상에는 크고 작은 호텔이 다수 존재하지만 그런 공간이 흔한 건 아니다. 물론 모든 걸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는 초럭셔리 호텔에는 가파를 놓이는 요소가 많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코드가 맞는 것도 온기가 느껴지는 것도 아니며, 무엇보다 가장 [를 따지게 되는 게 소비자의 심리 아닐까? 에이스(Ace)라는 브랜드는 처음부터 자신과 같은 취향과 생각을 가진 이들을 스쳐 갈 수 있는 공간을 염두에 둔 ‘색깔 있는 호텔’로 출발했다. 1966년생으로 미국 시애틀에서 10대를 보내면서 당시 클럽이나 라이브 홀에 다니며 서브 컬처에 녹아들었던 알렉스 칼더우드(Alex Calderwood)라는 인물이 시동을 걸었다. 그는 영혼의 단짝 같았던 웨딩과 꽃이 맞아 레트로 힙 무드의 이별소를 차렸고 이 시대의 성공을 빌판 삼아 1999년에는 호텔 비즈니스에 뛰어들었다. 화려하게는 있지만 세련된 감성과 인문학을 찾는 여행자들을 위한 공간. ‘주파수’ 통하는 이들의 친조적 협업을 토대로 하고, 지역사회에 작고 소중한 활기를 일깨워 주고자 하는 흥미로운 라이프스타일 호텔 브랜드 에이스의 탄생이었다. 1호점 시애틀에 이어 많은 팬을 양산한 포틀랜드점(2007), 규모를 확장한 뉴욕점(2009) 등이 차례로 등장했다. 그런데 런던점을 연 2013년 말 알렉스 칼더우드는 40대의 나이로 세상을 일찍 떠났다. 당연하리우려도 불가했지만 그래도 에이스는 꾸준히 성장해 갔다. 지역 사람들이 에이스를 거실처럼 여기기 위해 열광했던 창업자의 뜻을 지키려 애쓰면서.



1 2020년 문을 연 에이스 호텔 교토의 건축인물. 교토의 유서 깊은 건물인 북쪽 건물역스 신동관과 이어져 있는 건물로 스타 건축가 쿠마 겐코(Kengo Kuma)가 친필적인 리뉴얼 설계 작업과 인테리어 디자인을 총괄했다. 2 에이스 호텔 교토의 객실에 딸린 욕실 모습. 3 매력적인 브랜드 상징과 영화관 등으로 이루어진 신동관의 표지판. 4, 5 에이스 호텔 교토의 상세한 인문학의 귀여운 생기가 느껴지는 객실 모습. LP 플레이어가 있다든지, 전용 디자인 굿즈를 활용할 수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디자인과 음악 같은 문화 예술적 요소를 담은 에이스 호텔의 특징들이 거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6 에이스 호텔 교토의 F&B 공간으로는 이탈리아 레스토랑(Mr. Maurice's Italian), 멕시코 레스토랑(POPPO), 정원을 전일적으로 관리하게 조스를 즐길 수 있는 윌데이(베트남 레스토랑), 그리고 스텝프 티온 커피 매장 등이 있다. 사진은 아키텍처인 레스토랑의 '브루스케트' 메뉴. photo by Gota Yuuki / 2019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는 덴마크 미식 브랜드 노마(Noma)와의 협업으로 '노마 레지스' 메뉴도 일주일만 특별 제공될 예정이다.

넙의 전사가 열려 보는 즐거움을 더해줬다. 팬데믹의 빗길에 접차 풀리면서 해방감까지 감도는 흥겨운 풍경에 이어 처음 접하는데도 그다지 낯설지 않은 정감 어린 객실 디자인을 마주하자 에이스 교토의 명성이 그대로 느껴졌다. 사실 에이스가 아시아에 처음 선보인 교토점은 2020년 문을 연 비름에 해외 방문객을 그리 많이 맞이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국인들이 주로 찾으면서 입소문이 퍼져 갔다. 일본이 낯은 또 하나의 '스타' 텍스트로 자리매김한 구마 겐코(Kengo Kuma)가 친필적인 디자인과 설계를 맡았으며 에이스에게 워치 산업을 타협해 못 사람들의 공공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을 터. 자신의 건축 언어를 '느슨하고 한가롭다'고 표현한 적이 있는 구마 겐코의 말을 반영하듯 에이스 교토 점에는 활기를 줄여 주는 공간과 타고 흐르면서도 섬세한 디테일의 미학이 들어 있다. 객실을 예로 들자면, 노들드 저드의 미니-바를 가꾸어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신발을 벗는 데 활용하는 작은 바니티가 침대 곁에 길게 펼쳐

진 다다미 스타일의 사이드 테이블이든지, 그리 크지 않은 방의 경우에도 아담하게 갖춘 일본식 욕조라든지 하는 것들이다. 에이스'다운 요소도 적절히 스며들었다. 갈게 뻗은 감각적인 테이블에 자다 램프나 태블릿 PC로 뭔가에 골똘히 집중하고 있는 로비의 풍경을 보여주는 로비 시(scene)의 새 장을 열었다고 찬사받았던 에이스 호텔의 명성이 구마 겐코의 감성을 엮고 교토식으로 재해석된 느낌이 든다. 에이스와 찰떡궁합으로 자주 어울리는 스텝프 티온 커피 매장이 호텔 안에 있는데, 이는 생기 넘치는 또 다른 교토의 명소인 테쓰로(Tetsuro Yoshida)가 설계한 유서 깊은 건물인데 에이스 교토점들이 어우러져 전방적으로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 매종 키츠네 카페, 르 리보 등 감각 있는 브랜드의 집합소라고 할 만한 복합 건물역스로 자정 단지 안에 정원이 한기운데 자리해 해사한 날이면 그 밑으로 눈부시게 비쬐인다.

PHOTO: O'DIA (ACE HOTEL SYDNEY)



6



5

정돈에 구애받지 않고 이탈리아, 일식, 동남아시아 요리 등 다양한 완찬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퓨전 요리를 제안하는 미치 오르는 유연하고 혁신적인 스타일의 셰프를 호텔 시드니의 미식 생태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인물. 유쾌한 성격과 실력을 겸비한 그의 명성과 더불어 후주의 자란 의미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디자인(호텔의 다른 공간과 달리 피오나 린지 오퍼스와 인테리어 부문의 협업을 따로 했다) 덕분에 에이스 호텔 시드니의 꼭대기(18층)에 자리 잡은 그의 레스토랑 킬른은 요즘 여하기 힘을 장도로 보인다. 물론 에이스 시드니점에는 갈피로 난 양광맞은 작은 문을 열자마자 바로 카페로 이어지게 돼 있어 산책자들의 발길을 절로 이끄는 '로움(Room)'을 비롯해 기법적 식도락을 즐길 수 있는 다른 공간들도 꾸려져 있지만 말이다. 글 고영진



7

1 미식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과 카페, 갤러리, 디자인 상점 등 다채로운 문화적 요소가 공존하는 서리 힐(Surry Hills)에 자리한 에이스 호텔 시드니. photo by SY Ko 2 요즘 인기 하늘을 찌르고 있는 '잇달인 킬른(Kin)' 레스토랑. 에이스 시드니점의 맨 꼭대기인 18층에 자리한 루프탑 레스토랑으로 젊은 셰프 미치 오퍼(Mich Om)가 에이스와 손잡고 운영 중이다. 3-5 후주의 이름다운 자연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파스칼 강성의 콘셉트와 더불어 역시 음악, 휴식 같은 브랜드의 요소가 아우러져 있는 에이스 호텔 시드니의 객실 풍경. ※ 2-5 photo credit Anson Smart 6 콘크리트, 자연에서 생선된 목재 등을 재료로 자연스럽게 노출한 1층 에이스 시드니점의 로비 디자인. 7 에이스 호텔 시드니에서는 신선한 재료를 쓰는 것으로 잘 알려진 시드니 특유의 강판 요리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Brands & Artketing_9 에이스 호텔(ACE HOTEL)

우리가 '여행의 공간'에 기대하는 것들

이동과 이주의 시대로 일컬어지던 21세기의 행보에 꽤 오랫동안 제동이 걸렸지만, 이제 하늘길이 보다 자유롭게 열리면서 다시 길을 떠나는 이들이 공황이 붐비고, 그들을 맞이하는 '여행의 공간'. 그러니까 호텔은 다시금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기가 다시 도래하기를 기다리며 차분히 기지개를 켜 준비를 해온 호텔 브랜드도 꽤 있다. 호텔의 세계에 관심을 둔 이들이라면 꽤 익숙할 만한 브랜드인 에이스 호텔(Ace Hotel) 역시 그러했다. 팬데믹 기간에 개장해 주로 내국인 위주로 꾸러왔던 에이스 교토와 지난해 5월 문을 연 에이스 시드니. 여행자들에게 내미는 제안에 대한 소신이 분명한 라이프스타일 호텔다운 개성 넘치는 '공간과 서비스'는 우리가 호텔에 기대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동시에 어쩌서 '에이스'라는 브랜드가 자신만의 속도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는지 알게 해준다.

심문섭, 時光之景(시간의 풍경)

통영의 바다와 홍콩의 바다가 만났다. 거센 바람을 안은 통영의 파도가 지나간 뒤, 잔잔한 빛을 담은 홍콩의 파도가 밀려온다.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페로탕 홍콩 전시장의 벽장을 통해 바다가 보인다. 시선을 왼쪽으로 돌리면, 통영의 바다가 출렁거린다. 바다를 통해 각각 다른 두 나라가 대화하고, 실제와 이미지가 어우러진다. 심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의해 이어진다는 심문섭의 시구(詩句)가 떠오른다. 심문섭(b.1943)이 갤러리 페로탕과 함께한 첫 개인전 《時光之景(시간의 풍경)》의 전시 부다. 오른쪽 벽장을 통해 홍콩 바다와 마찬가지로 건물도 보인다. 왼쪽 벽면에 자리한 그의 작업은 물과 빛이 만나 유화한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경쾌하게, 때로는 규칙적으로, 때로는 카오스처럼 전혀 예측되지 않는다. 그의 말대로 '건져 올린' 것과 '부서져 내리는' 것, '푸른색과 하얀색', '깊음과 높음'의 미학적 소통이다.

깊은 바다로부터 건져 올린 근원적 푸른색
하늘로부터 부서져 내리는 욕망이 부서지는 하얀색, 심문섭

심문섭의 작업은 물의 풍경이기도 하지만, 시간의 풍경이기도 하다. 낮뿐 아니라 밤의 풍경도, 아침의 노을도, 저녁의 석양도 화면 위에 차경(借景)된다. 그러면서 물의 깊이 만들어지고, '빛의 깊이' 드러난다. 그의 회화 작업은 확장성이 있어, 파도가 화면을 넘어 이어지는 것 같다. 파도가 넘실넘실 캔바스를 벗어나 벽으로, 공간으로 확장된다. 마티에르의 시간성에 대해 생각하는 심문섭의 작업은 그래픽인지 MZ 감각에도 잘 어울린다. 어느 전시에서 그의 그림을 낫 놓고 바라보던 어떤 관객이 "영 때리가 좋다"며, 한참 더 그림 앞에 머물러 있었다. 물은 별명(이름) 생리없이 오래 장차물을 응수한다는 뜻의 캄캄족 산조(塞草)이 아니라, 물결과 그 위로 드리우는 빛명이다. 페로탕 홍콩 전시 제목 《시간(時間)의 풍경》, 좀 더 정확히는 《시간(時間)의 풍경》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시간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한자가 우리에게 익숙한 時間(광동어, 時間 만다린어)이 아니라, 낯선 時光(광동어, 時光 만다린어)이다. '시간은 몇 시, 몇 분과 같이 하루를 24시로 나누고, 1시간을 60분으로 나누는 인위적인 규칙이다. 반면 '시광'은 해, 달, 별 등과 같이 빛(光)으로 시(時)를 가능한다. '시간'은 인간의 규칙이고, '시광'은 자연의 움직임이다. 이는 근대 사회(자아)의 관점으로 보는 원근법과 동양(자연)의 관점으로 보는 이동 시점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다. 반면 심문섭의 회화는 리듬이 출렁이는 이동 시점으로 보는 사(時)이다.

'섬으로'
프랑스인들은 심문섭의 팔레 루아얌 공원 전시(2006)를 보며 많은 감동을 받았다. 아무 생각 없이 간다면 PVC로 된 투명한 배가 하늘 위로 떠다니고(양쪽 나무에 걸쳐 있음), 그 배에는 바람을 타고 낙엽들이 무임승차하고 있다. 분수에는 미니멀화된 직사각형의 나무 배가 돌을 얹고 떠난다. 잔디밭 위에는 마치 땅의 '호흡(숨)'을 보여주려는 듯 원기동형 PVC 작업이 반복해서 부풀어 올랐다가 사그라져만 한다. 배경으로 도란산 스타일의 콜론이 오버랩되는 것이 흥망성쇠를 비유하는 것도 같다. 유사 깊은 프랑스식 정원이 몇 작품 덕분에 '섬이 되었다'. 이 프랑스식 정원은 오랜 유산과 시간이 중첩되어 있고, 루브르 미술관이 지적이며, 국립극장 코메디 프랑세즈, 문화부 등이 입주해 있다. 주변 풍경이 화려하고 강해 전시를 잘해내기 쉽지 않다. 이 공원의 다른 편에 있는 다녔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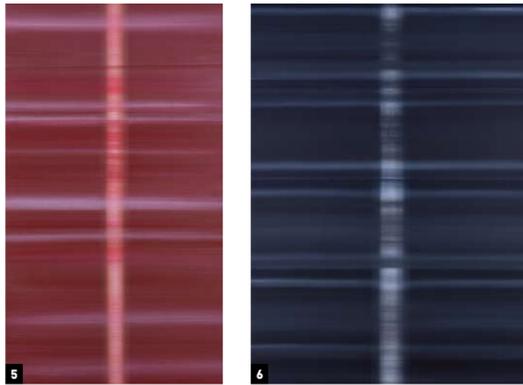


1 페로탕 홍콩에서 지난 12월 9일 막을 올린 심문섭 개인전 《시간의 풍경》 설치 모습. 오른쪽 벽통창으로 푸른 바다와 마찬가지로 보인다. Exhibition view, courtesy of the artist and Perrotin. 2 오른쪽 벽장 반대편에 위치한 심문섭의 작품들. Exhibition view, courtesy of the artist and Perrotin. 전시는 오는 2월 18일까지 계속된다. 3 제1-설을 향해 The Presentation - Vers une Iel(2006), 800 x 650 x 180cm, bambou, polyuréthane. 4 제1-설을 향해 The Presentation - Vers une Iel(2006), 1400 x 50 x 950cm, bois, pierre, eau 5 The Presentation(2018), 194 x 112cm. 6 The Presentation(2018), 194 x 259cm.

림의 '두 개의 플랫폼', 풀 리본의 분수, 좀 더 멀리 장-미셸 오토나엘의 '이행자들'의 키오스크' 등처럼 장소적 특성을 파헤치거나, 화려하게 휘어짜 작품이 눈에 보인다. 그런데 심문섭의 전시는 놀랄게도 허술했다. 우연으로 강함을, 자연적 요소의 도움으로 인위성을 극복했다. 웅장하고 장구한 장소에 감성이 찾아든 은은한 서정시처럼 울림을 주었다.

반조각의 연장으로서 회화

반(反)조각 작가인 심문섭은 5백70개의 섬이 있는 경남 통영에서 출생해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일본, 중국 등에서 30회가 넘는 개인전을 개최하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1960년대 말 새로운 조각을 추구하는 제3회회화(1970년대 AG(아방가르드) 운동 등을 통해 사유와 고민을 하며 반조각을 주장했다. 이는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이른바 포퍼라, 모노하 등 중요한 미술 운동의 골자라 맞물린다. 그는 1968년, 1969년, 1970년 세 차례 국전에서 수상하고, 1971년부터 파리 비엔날레에 3회 연속 참가한 것을 시작으로 상파울루 비엔날레(1975), 시드니 비엔날레(1976), 베니스 비엔날레(1995, 2001) 등 국제 무대에서 이름을 알렸다. 또 1981년 일본에서 개최된 제2회 해외 미술 대상전에서 우수상을, 2007년 프랑스 문화 예술 공로 훈장 슈발리에를 받는 등 해외 각국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2017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과천관)에서 유례없는 큰 개인전을 가지기도 했다. 심문섭의 회화는 반조각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는 이미 1973년과 1975년 파리 비엔날레에서 종이, 캔바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평면 설치 작업을 선보였다. 그의 작업은 아무 생각 없이 물결을 하게 하지만, 반대로 반조각이라는 그의 끊임없는 저항, 단색화의 입체적 확장, 마티에르의 시간성 등을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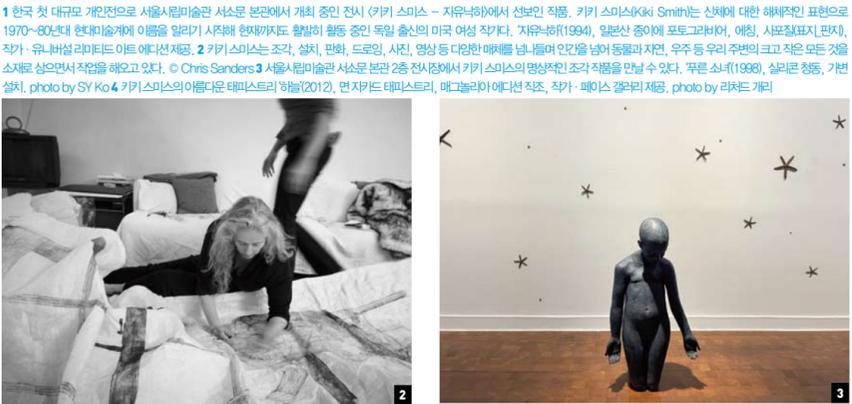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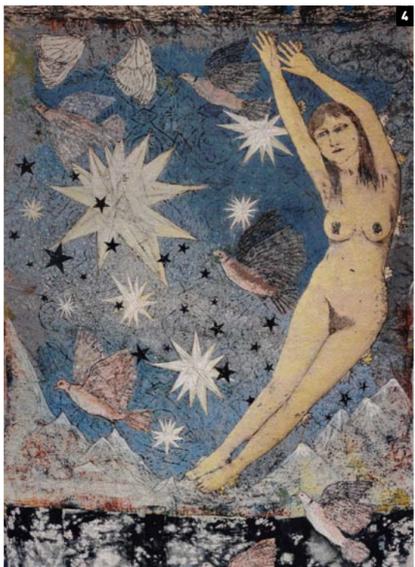


평화로운 전사 키키 스미스의 자유낙하가 닿는 지점

늑대의 배를 뚫고 당당히 걸어 나오는 여성의 모습을 조각으로 표현하거나 젠더와 정체성을 둘러싼 이슈를 다루며 몸을 해부학적으로 다루었던 키키 스미스는 이미 위대한 여성 미술가 중 한 사람이다. 여전히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자유낙하'를 즐기는 키키 스미스의 지난 40여 년 세월이 걸친 여정을 돌아보는 대규모 전시 《키키 스미스 - 자유낙하》가 국내 최초로 서울시립미술관(서소문 본관)에서 열리고 있다. 자기 자신과 작업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이 어디로 자신을 데려가는데 대한 두려움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그녀는 '자유낙하'라고 이름 붙였는데, 자신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68세의 평화로운 전사는 말한다. 코로나에 세 번이나 걸렸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아 기쁨 따름이라고 밝힌 키키의 현재 세계는 여성과 동물과 취약하고 연약한 것들, 비천하고 낮은 곳에 존재하는 것들을 재평가하면서 생명의 폭력성과 취약성을 따뜻하게 품고 있는 것 같다. 전시는 오는 3월 12일까지.

결국 작업은 '수행자'와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수행적 태도로 주변의 크고 작은 모든 생명을 향해 귀 기울이게 되니 말이다. 인생의 여러 단계를 거쳐 결국 지구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게 되는 건 아닐까.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좀 인터뷰로 만난 키키 스미스(Kiki Smith)도 치열한 전시 역할을 어느 정도 내려둔 휴가분한 모습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인간은 사실 모든 것을 다 영양으로, 영양분으로 만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해방의 가능성을 꿈꾼다고도 생각해요. 그리고 이러한 면모는 어쩌면 복잡할 수도 있는 다양한 모습을 띠고 다각적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예요." 손가락마다 블루빛 티투를 한 채, 은색의 긴 머리를 풀어헤친 키키 스미스는 여전히 보헤미안 같았지만, 그녀의 답변처럼 어떤 경지에 달아본 사람만이 품고 있는 이롭담고 온화한 분위기를 풍겼다. 키키 스미스는 1980년대 미국의 정치·사회적 이슈를 다루며 가정 폭력, 임신 중절, 에이즈 등을 소재로 인체 내 장기를 묘사한 작품을 선보이던가 하면 1990년대에는 배설, 생리 등 파격적인 모습의 인물 전신상을 제작하기도 하는 등 의도적으로 신체와 관련해 불편한 생체 기능을 다루는 '에브젝트(object)' 미학으로 설명되는 작가였다. 그녀의 예술은 유한하면서도 유리처럼 취약한 몸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파편화된 몸과 내장 기관 등을 작품으로 다루며 그녀는 서구 문화 속에서 여성을 둘러싼 여성 담론에 반발하는 페미니즘 미술의 발

전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나의 많은 작품이 공적 공간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차이에 관한 것이다. 우리 젠더는 엄청난 자유가 참부대 왔다. 문화의 아무것도 우리의 경험을 논하지 않기 때문이다. ... 공적 공간에서 그것을 건져 낼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내게는 여자-아이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문화 안에서 버티는 것이 중요했다." 《키키 스미스, 자유낙하》(열화당) 중 '비체' 그녀는 당시와 같은 발언을 수없이 했을 만큼 급진적인 여성 작가였다. 2000년대 들어 키키 스미스의 작품은 다양한 배경의 종교, 신화, 문학을 모티브로 인물을 넘어 동물과 자연, 우주 등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소재로 삼으며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몸, 자연, 삶이 있는 물질에 필연적으로 따르려는 생의 고통과 사의 폭력을 인정하고 포용한다고 신해경 평론가가 《키키 스미스, 자유낙하》에서 표현했듯, 이제 그녀는 개인적 경험에서 벗어나 신화, 설화, 고대 역사 등 다양한 시간들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모든 걸 겪고 난 뒤 에이비로스 세계를 배회할 수 있는 신책(신책) 말이다. 그녀 스스로도 본인의 작품 활동에 대해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며 같은 공간을 반복적으로 맺는 방랑자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의 지난 40년간 작가 여정을 돌아볼 수 있는 작품이 서울시립미술관에 펼쳐져 있다. 키키 스미스는 7차 간담회 중 진행된 좀 인터뷰에서 "저는 그저 집에서 40~50년간 작업을 해왔을 뿐"이라고 답했지만, 그녀의 긴 서사는 섬세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아름다운 시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녀가 좀 인터뷰에



서 인생이라는 것이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작업이 변한다고 대답한 것처럼, 그리고 예술 작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머리가 짙은 색이었던, 지금은 백발이 되었고 말하는 것처럼. 전시장에는 사람과 동물, 우주와 식물 등이 어우러진 대형 테이프의 작품도 걸려 있는데, 모든 것들과 화합하고 사는 그녀의 소망 어린 7도처럼 명상적으로 느껴진다. "사실 매일 밤 여성주의 작가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68세인데, 제 주변을 둘러보면 80대에 접어들어 갑자기 여성주의 작가로 한 사람과 커뮤니티에 여성 작가로 추앙받는 동료 작가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지난 60년 동안 집안에 틀어박혀서 자기 작업을 해 온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사실 스스로 선언하는 것이고요. 말하자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작가'라니까라고 선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스스로 감당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글 김수진(프랑스 에르메 - 디올(루이비통) CEO)

1 한국 첫 대규모 개인전으로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에서 개최 중인 전시 《키키 스미스 - 자유낙하》에서 선보인 작품. 키키 스미스(Kiki Smith)는 신체에 대한 해체적인 표현으로 1970~80년대 현대미술계 이름을 알린가 시초에 한해까지도 활발한 활동 중인 독일 출신의 미국 여성 작가. 자유낙하(1994), 일본산 종이 모노그라피, 애칭, 시모실표지(판자), 작가 유비실리비티드 아트 에디션 제2, 2 키키 스미스는 조각, 설치, 판화, 드로잉,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넘 넘어 인간을 넘어 동물과 자연, 우주 등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소재로 삼으면서 작업을 해오고 있다. © Chris Sanders 3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2층 전시장에서 키키 스미스의 명상적인 조각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푸른 산(1998), 삼모(1998), 기원(설치), photo by SY Ko 4 키키 스미스의 이름은 태드트리(1992), 면자(1992) 테이프(1992), 매그넷(1992) 에디션(1992), 작가: 페이스 갤러리 제공. photo by 라투르(가)



1



2

우연한 걸작을 위한 몸의 제석
#제여란, 〈Road to Purple〉

제여란의 작품을 감상하려면 우리 스스로 '솔직한 여행자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제여란의 작품은 그녀 자신의 몸이 역동적으로 차나간 흔적인데, 우리가 그사를 걸어 다니다 보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주를 느낄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그리하여 결국 정확하며 울라간 바위 위에 서면 탁 트인 사리를 마주한 듯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다. 조금 더 그녀의 작업 사리를 거닐다 보면 물 세간의 '생체티르산의 풍경'을 볼 수도 있고, 카스피르 대비트 프리드리히의 인게 바다 위의 방랑자를 만날 수도 있다. Usquam Nusquam, 어디든 어디도 아닌이라는 리턴어 작품 제목에서 끊임없이 무언가가 나타나야 한다는 작가의 생각이 느껴진다. 마치 처음 기본 길, 혹은 한번도 알려지지 않았던 비둘길 길을 버리는 마음 아닐까.

화가로서 외길을 걸어온 제여란은 국내보다, 사실 1980년대 유럽을 고민하던 그녀는 6개월간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많은 가정들의 작품을 접한 뒤, 외려 한국에서 회화 작업을 이야기로 결심했을 정도로 강한 있는 성격의 소유자다. 일찍 학대에서 인정을 받은 편이지만, 1994년 개인전을 가진 이후 마치 은둔자처럼 작품에 매진하다가 무려 12년이 지나야야 전시할 정도로 스타성을 드러내는 데도 별 관심이 없었다. 당시 오란본의 전시에서 선보인 무채색의 추상화 연작에 대해 그녀는 이번 얘기를 했다고 한다. "흑색은 내게 유일한 신처럼 송고하다. 그리고 흑색은 내게 집요한 상상력을 가르친다. 유대인들은 겨울을 1년의 시작으로 봤다. 흑색은 내창적 공간을 기질 수 있는 유일한 색이다." 언뜻 단색회화 범이기도 하는 제여란의 흑색 회화 연작은 현재 스페이



1 스페이스K 서울에서 진행 중인 제여란 작가의 전시 모습. 2 대체로운 색을 활용하는 작가의 본격적인 색 감각을 보여주는 작품은 몸의 움직임과 긴장감을 고스란히 화면에 드러낸다. 3 제여란 작가의 Usquam Nusquam(The Phantom of the Opera)(2022), oil on canvas. 4 제여란 작가의 '되-고 becoming and becoming synthetic(2005). 이 연작은 2000년 초 - 중반 발표한 시리즈로 푸른 색조와 붉은 색조가 강도는 어두운 톤이 특징이다.

스K 서울에서 진행 중인 개인전 〈Road to Purple〉에서도 강한 인상을 준다. 검은색 붓질에서 강한 선함과 자력이 느껴진다고 할까. 지난 30여년간의 작업을 망라한 이번 전시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보라'를 전면에 내세우며 새로운 색 상황에 대한 끝없는 의지를 드러냈다. 덕분에 2000년대 중반부터 작가가 본격 활용한 스쿼지의 울퉁임이 압도적인 보라빛 대형 추상회화 작품을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 스쿼지(squeegie)의 역할 덕분에 몸의 움직임과 긴장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작품에 대해 작가는 "몸과 대담해지는 직선 구조의

도구가 서로 대항하면서 느끼는 긴장이 담겨져 있어 거기서 오는 긴장, 예기치 않은 실수, 거기에서 오는 묘한 불편함, 그 안에서 벌어지는 팽팽한 긴장감에 대해 설명한다. 그렇게 우연한 걸작을 안기까지 작가로서의 상상력과 시행감 이 전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기에 작품을 감상하며 움직이는 사이 사이의 발견이 조금 더 숙연하고 조용해진다.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날지 알 수 없는 세계를 생각하면서 말이다. 전시명 〈Road To Purple〉 전시 장소 스페이스K 서울 전시 기간 2023년 1월 19일까지

Exhibition in Focus

어떤 여성 서사나 상징도 없이 추상적 미술 언어만으로 독특한 여성주의적 질감을 만들어내는 중견 여성 작가들의 행보가 두드러진다. 이들은 어떤 선인도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일상 세계를 추상화나 추상적 표현으로 담아낸다. 그리고 운명으로 자신들의 서사를 작품 속에 풀어낸다. 지난 30년간 스쿼지를 통해 기세 넘치는 곡선으로 화면을 채우는 제여란(b. 1960)과 역사와 시간이 관통하는 삶에 주목하며 연구자 같은 행보를 보이는 남화연(b. 1979) 작가는 세상의 인기에는 별 관심 없는 듯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미술사에 새로운 길을 트고 있다.



1

다가올 순간들을 위한 탐구 #남화연, 〈가브리엘〉

이탈리아에 에르메스가 2022년 마지막 전시로 선보인 남화연의 개인전 〈가브리엘〉 전시장 입구에 도착하면 관람객이 이따금씩 방문객이 배치되어 있거나 조각품을 설치되어 있다. 시운드 조각 코다는 마치 알베르토 지코메티의 작품처럼 보이기도 하고, 전시장인 방을 가로지르는 길고 긴 몸의 조각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들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듯한 장면을 상상하게도 한다. 소리와 시간의 개념에 초점을 둔 남화연의 이번 전시는 시간을 재해석하거나 기억을 재구축하려는 인위적인 노력 대신 시간의 흐름을 한가운데서 다가올 순간을 고요하게 응시할 것을 요구한다. 몸의 일부 길기도 한 이따금씩 시운드 조각 코다를 지나서 커튼을 열면 시선 유무가 특한 남화연의 비디오 작업 가브리엘(신)의 정령으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나 전쟁, 파멸의 소식을 전하는 대신의 이물이 상상되고 있다. 약 20분 길이의 영상에 담긴 장면은 할 수 없는 신화로 가득 차 있고, 서사와 언어를 환형한 자체하며 단 몇 줄의 문장으로 관람객을 상상으로 이끌고, 마지막에는 이것은 모두 오래된 얘기가 되는 구절로 끝난다. 영상 속 이미지들은 르네상스 화가들이 상상했던 수레고지의 순부터

알아보기 어려운 화성 탐사 로버로봇 탐사 차량의 촬영본 등이 뒤죽박죽 섞여 있다.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그녀의 작품이지만, 볼 때마다 미려한 과거에 일어난 새로운 사실 하나쯤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비평가 존 라셀은 "우리가 이번 주에 본 것은 다음 주가 되면 다르게 보일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남화연의 작품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미라가 되기도, 현재가 되기도, 신화 속 이야기 가 되기도 한다. 작가는 먼 미래에서 영상 속 이미지를 보고 사슬하는 누군가의 시점을 암시하고 싶었던 동시에 이미지를 보여 시간을 예감하는 현재의 누군가가 지난 시점일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먼 미래, 먼 과거, 혹은 현재의 황량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소리가 속삭이듯 새어 나온다. 화상에서 녹음된 비람 소리부터 관악기 연소 소리, 금속 파이프가 매질로 기능하며 나는 소리 등이다. 소리와 속도가 변화무쌍하다는 점, 시물과 신체는 진동시킨다는 점, 파라데이 잠재되어 있다는 점 등 흥미로운 요소가 많은 비람 소리와 관악기 소리를 전면에 등장시켜, 이미지들의 파편적인 연결과 단절이 만드느 리듬을 더 두드러지게 선보였다. 2019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한국관 대표로 참가하기도 했던 남화연은 무용가 최승희의 이야기로 관련 작업을 10년 가까이 진행한 작가다. 역사의



2



3

Remember the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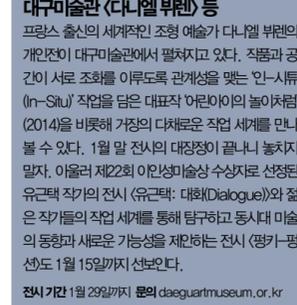
지난 몇 년간 팬데믹의 장기화로 움츠러들었던 일상이 점차 기가지를 켜고 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일상에 위로와 전율을 선사하는 미술 산책 덕에 바랄 수 있던 이들도 있지 않았을까. 지난 연말에 이어 올해 첫달과 함께는 전시부터 롯데 이수움을 뒤로하고 곧 긴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는 전시까지. 조금씩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2023년을 맞아 다채로운 매체와 공간을 활용해 새로운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와 함께해보자.



에스페이스 루이비통 서울 (선향)
일상과 풍경을 소재로 대중의 눈을 사로잡은 일렉스 카츠의 개인전 〈선향〉.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의 컬렉션 소장품을 에스페이스 루이비통의 미술관 벽 너머 프로그래밍 차원에서 소개하는 전시다. 잘 알려졌듯 카츠는 자신만의 독특한 시선으로 비리본 자연과 그가 사랑하는 것들을 화폭에 담았다. 90세를 넘어서는 노장 화백이지만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감각적인 표현력 덕분에 젊은 미술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그를 향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 전시 기간 3월 26일까지 문의 louisvuitton.com



수원시립미술관 〈에르빈 부름: 나만 없어 조각〉
오스트리아 조각가 에르빈 부름의 대규모 전시 〈에르빈 부름: 나만 없어 조각〉. 작가는 조각의 무게를 덜어내고 부풀거나 녹아내리는 형태를 만들어 그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등 일관적인 조각과는 다른 작업 방식을 적용해왔다. 국내 최대 규모로 꾸러진 이번 전시에서 그의 대체로운 스페트럼과 시간을 접할 수 있다. 관람객은 작가가 제시하는 조각의 다층적 면모와 함께 호흡하며 규정된 조각에 대한 해석을 넘어서는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전시 기간 3월 19일까지 문의 suma.swwon.go.kr



대구미술관 〈다미엘 부름〉 등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조형 예술가 다미엘 부름의 개인전이 대구미술관에서 펼쳐지고 있다. 작품과 공간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관계성을 맺는 '인-시튜(In-Situ)' 작업을 담은 대표작 '어린아이의 놀이터' (2014)을 비롯해 가장의 대체로운 작업 세계를 만나 볼 수 있다. 1월 말 전시의 대장정이 끝나니 놓치지 말자. 아울러 제22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자로 선정된 유근택 작가의 전시 〈유근택: 대화(Dialogue)〉와 젊은 작가들의 작업 세계를 통해 탐구하고 동시대 미술의 동향과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전시 〈평가-평상도 1월 15일까지 선보인다. 전시 기간 1월 29일까지 문의 daeguartmuseum.or.kr



국립현대미술관 〈임옥상: 여기, 일어서는 땅〉 등
리얼리즘 미술에서 대지 미술, 환경 미술까지 작업 영역을 넓힌 작가 임옥상의 대규모 신작 프로젝트를 접할 수 있는 전시. 서울관 내 6, 7전시실과 전시장 등 특별한 장소를 활용해 선보여 임옥상의 최근 작업 특성은 물론 보다 확장된 예술 세계를 감상할 기회다. MMCA 덕수궁에서는 문신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회고전 〈문신(文身): 우주를 향하여〉가 1월 29일까지, 과천관에서는 백남준과 1990년대 활동했던 한국 작가들의 작업을 선보이는 〈백남준 효과〉와 더불어 MMCA 이천(화평역) 특별전: 모래와 파스, 피리의 이따금씩 순간들이 2월 26일까지 열린다. 전시 기간 3월 12일까지 문의 mmca.go.kr



롯데뮤지엄 〈미틴 마르자말파〉
20년 세월을 수놓은 빛나는 패션 카리어를 뒤로하고 아티스트로 돌아온 마르자말파의 국내 첫 대규모 개인전이 서울 롯데뮤지엄에서 막을 올렸다. 사티에아 이코노미 자매기업인 작가가 1980년대부터 탐구한 예술, 물질과 인체, 시간의 영속성, 전대, 관객 참여라는 주제를 살치, 조각, 글라주, 페인팅, 등 총 50여 점의 다양한 작품으로 풀어낸 전시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독특한 전시 동선으로 관람객이 마치 미로 속을 걸어 작품에 감성하는 경험을 선사한다. 전시 기간 3월 26일까지 문의 lottemuseum.com

리만파린 서울 〈삼세대(三世代): 시세옥(1929-2020)의 기리며〉
한국 수묵 추상의 대가 고재욱 선생(山丁) 시세옥 화백을 기리는 전시. 이번 전시는 2020년 11월 향년 91세로 타계한 시세옥을 기리며 그의 이듬이자 세계적인 현대미술가인 서도호 작가, 서우호 건축가를 포함한 산대를 아우르는 그의 가족 구성원이 제작한 작품을 함께 전시한다. 역동적인 드로잉과 회화, 설치,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드는 이번 전시는 오늘날까지 의미 있게 이어지는 시세옥 화백의 탐구적 족적과 시계계를 엿볼 기회다. 전시 기간 1월 20일 문의 lehmannmaupin.com



롯데갤러리 〈일피 케인, 고요의 순간〉
글로벌 미술 사이트 ARTSY가 선정한 '컬렉터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1위에 오른 1996년생 젊은 작가 일피 케인의 이따금 최초 개인전. 건축을 전공한 배경을 반영하듯 섬세한 구조미가 느껴지는 건축적인 화면에 동화적인 풍경을 다한 케인의 작업은 마치 데이비드 호크니와 에드워드 호퍼처럼 풍부한 색감과 평면적이면서 독특한 원근감이 매력적이다. 이번 전시를 위해 작업한 16점의 대형 회화 신작을 선보였으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전시 기간 2월 12일까지 문의 lottegallery.com

국립중앙박물관 〈함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 등
한국-오스트리아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오스트리아 빈 미술사박물관과 함께 기획한 〈함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 유럽 최고 기원(기원)사적 시대의 중심에 있던 함스부르크 왕가를 예술품 수집가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회다. 이 밖에 3월 19일까지 개최되는 〈외규장각 의궤, 그 고구려의 의미〉를 비롯해 투루판 지역의 독특한 장례 문화를 담은 전시 〈영원한 삶의 집, 아스타나 고분도 7월 15일까지 만나 볼 수 있다. 전시 기간 3월 1일까지 문의 museum.go.kr



국립현대미술관 〈이미지, 상징, 기도〉
K3 공간에서 펼쳐지는 코라르티 이룬-나차의 개인전. 2021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소속 작가로 활동하는 작가가 한국에서 선보이는 첫 개인전이다. 작가는 영상, 회화,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존재와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해왔다. '불'과 '제'라는 요소를 사용해 작업의 시선 전환, 주변의 사회적 시선을 고찰하고 서술한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전시 기간 1월 29일까지 문의 kjkgallery.com



DIOR

JEWELLERY

LA ROSE DIOR COLLECTION

White gold and diamonds.

온라인 부띠끄, Dior.com